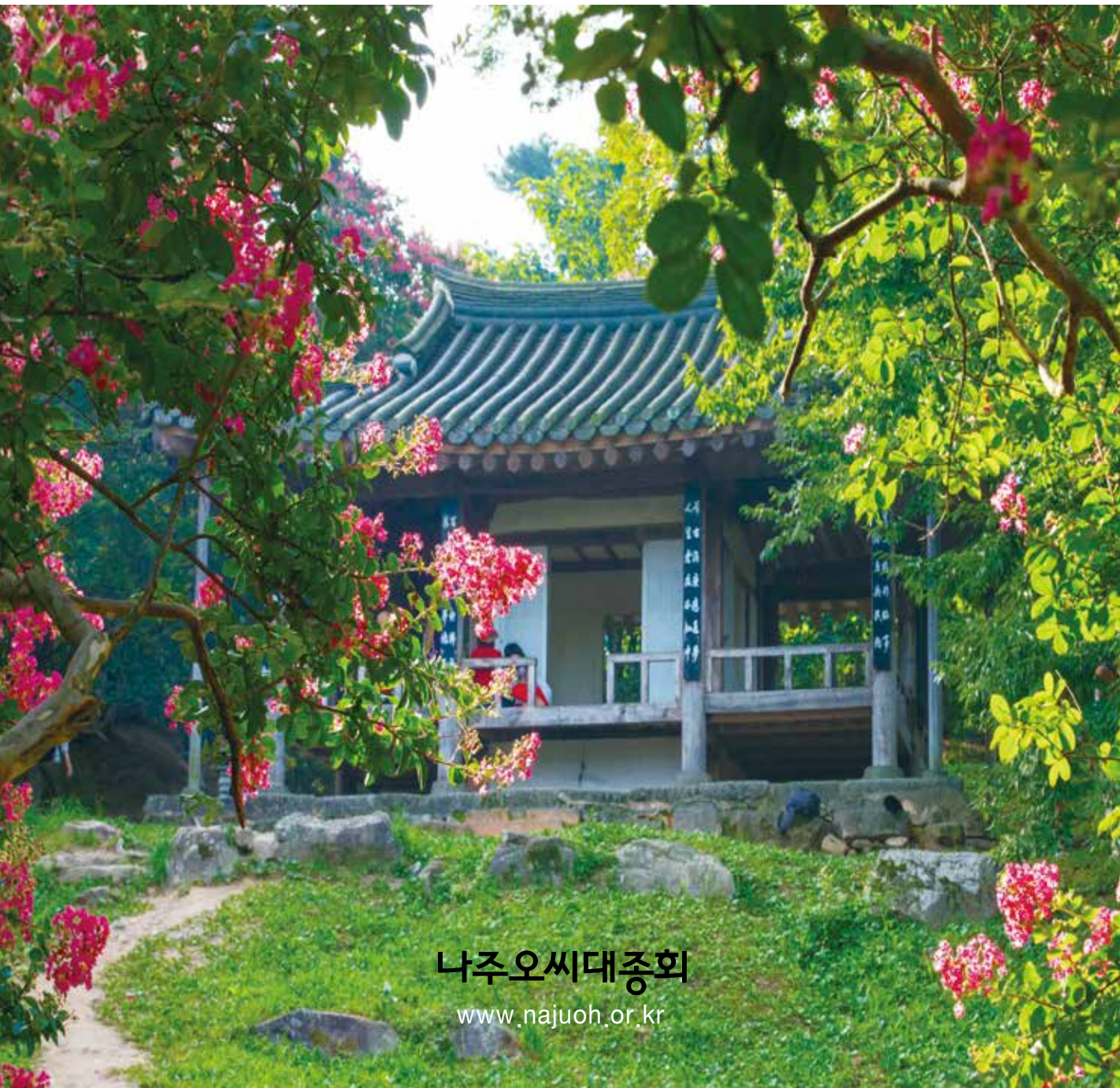


나주(금성)오씨대종보

羅州(錦城)吳氏大宗報

2020 | 제 21 호



나주오씨대종회

www.najuoh.or.kr

배롱나무 그늘까지 붉다

몇 번을 거둬 죽어 꽃으로 환생할까
주리를 뜯는 시대에도 여름을 버텨기며
동백처럼 꽃송이째 후두둑 떨어져서
연못 위 호사스러운 웅단을 깔아 놓고
독방길 범람하며 자미탄을 이루는 길
몸에도 몸 밑에도 붉은 흔적 가득하다
그 붉음 내 몸속에 온전히 살아 있어
시공간 벽 허물고 일대일로 청한 대화
세상의 시끄러움 소거한 듯 사라지는
한순간 현기증 난 붉은 꽃의 난장인가
어눌한 내 가슴에 철육처럼 새긴 살점
빛나간 사랑처럼 끝도 없이 추락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 삶의 추억 되새기며
울울창창 남은 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걸까
한 번도 그 표정을 바꾼 적 없는 마음
필생을 살아가는 이 세계가 숨죽일 때
비로소 나는 없고 오로지 너만 남아
내 눈은 장막을 친 휘장처럼 감쌌다
하늘이 때맞춰서 햇볕과 비 내려주면
땅에 사는 못 생명들 소리 없이 굽이치고
고요 속에 피어나는 통곡의 감탄사를
명옥헌 처마 끝에 풍경으로 내걸렸다

—오종문, 『배롱나무 그늘까지 붉다— 여름, 명옥헌원림』 중에서

표지 사진—명옥헌원림鳴玉軒苑林



명옥헌은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아름다운 민간 정원으로, 물소리도 구슬이 부딪쳐 나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하였다. 명곡공 호희도(希道, 1583~1623)는 19세 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623년(인조 원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후 예문관 한림으로 등용되었고,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명곡공은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제백가서諸百家書에 연구가 깊은 학자이며, 시문詩文에 탁월한 문장가로 유교집『명곡유교明谷遺藁』가 있다. 자연을 벗삼아 살던 곳으로, 아들 오이정(吳以井, 1619~1655)이 명옥헌을 짓고 건물 앞뒤에 내모단 연못을 파고 꽃나무를 심어 가꾼 정원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로, 명옥헌이라는 현판과 삼고三顧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건물 오른쪽 개울의 조그마한 바위 벽면에 '명옥헌 계축鳴玉軒'이라 쓴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정자 뒤 연못 주위에는 배롱나무와 오른쪽에는 소나무 군락이 있고, 명옥헌 뒤에는 이 지방의 이름난 선비들을 제사 지내던 도장사道藏祠 터가 남아 있다. 또한 명옥헌 오른쪽 능선에는 후산리 은행나무 또는 인조대왕 계마행仁祖大王繫馬杏이라 불리는 은행나무가 있다. 300년 이상된 노거수로 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보다가 명곡공을 찾아 이곳에 왔을 때 타고 온 말을 매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09년 9월 18일 명승 제58호로 지정되었다.

나주(금성)오씨대중보 제21호(2020)

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 발행인 : 오근성 | 편집인 : 오정균
편집위원 : (서울) 오근성 · 오종만 · 오양근 · 오형근 · 오종문
(호남) 오무송 · 오기주 · 오현교

발행처 : 나주오씨대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홈페이지 : <http://www.najuoh.or.kr>
블로그 : najuoh.or.kr.blog.me (네이버)
전화 : 02-2275-5574 / 팩스 : 02-563-5574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1-8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중증회관 3층
전화 · 팩스 : 062-375-5575

제작 : 도서출판 이미지북 (010-3214-7068)

• 본지에 기고한 글은 '나주오씨대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Contents

송조사상을 받드는 나주오씨 이야기

- 02 인사말/ 오근성_대중회 회장
- 대중회 소식
 - 05 2019년 정기총회 개최
 - 10 기증·기탁 특별전—조선의 공신功臣 이모저모
 - 14 고창군 오씨대동종친회 나성군(양평군) 유적 방문 화보
 - 17 대중회 소식 26/문중 소식 31/수도권 친목회 소식
 - 154 오수·오성산악회 산행일지 및 산행의 이모저모
- 『增補版 羅州吳氏世蹟』 발행에 대한 羅州吳氏大宗會의 입장문
 - 34 『增補版 羅州吳氏世蹟』 발행에 대한 羅州吳氏大宗會의 입장문
 - 37 『增補版 羅州吳氏世蹟』의 주요 문제점
- 강연회 지상 중계_기증·기탁 특별전 '조선의 공신'
 - 76 「조선 세조 공신 :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김인규
 - 79 「오자치 초상의 호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신재근
- 기 고
 - 82 남평공南平公 오언후吳彦厚 선조님을 기리며/ 오종만_종사연구위원장
 - 85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과 금정산성/ 오찬균_금초가문 대표
-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특별전 관람기
 - 95 후석 오준선 <광장> 전을 다녀와서/ 오종문_홍보부장
- 나주오씨 인물 동성
 - 100 오동근東根 대중회 감사, 광산문화원 제9대 원장 취임/ 편집부
 - 101 오증선鍾善 대중회 재무부장, 방송통신대 제21대 서울총동문회장 취임/ 편집부
 - 102 오혜림慧琳 종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임용/ 편집부
 - 103 오교철敎哲 前 중무원장, 목사 안수·임직/ 편집부
 - 104 오증문鍾文 대중회 홍보부장, “한국시조대상” 수상 및
가사시집 『명옥헌원림 별사』 발행/ 편집부
-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전자족보 등록 안내, 나주오씨대중회 조직기구표
 - 98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2015년, 통계청)
 - 110 나주오씨 홈페이지 전자족보 등록 안내
 - 120 나주오씨대중회 조직기구표
- 107 문화재 함께 읽기_인장, 존재를 증명하는 새김/ 편집부
- 112 시사용어 상식_알아두면 쓸모 있는 IT 상식/ 편집부
-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사당 제향일/ 나주오씨 애경사 소식
 - 116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118/사당 제향일 119/애경사 소식
- 항렬자 정규, 나주오씨대중회 회칙 및 운영 규칙
 - 106 나주오씨 항렬자 정규
 - 134 나주오씨대중회 회칙 139/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 대중회 임원 명부 및 오수·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대중회 역대 회장단 명단
 - 141 대중회 임원 명부 151/오수·오성산악회임원 명단 152/역대 회장단 명단
- 대중회 공지사항
 - 74 본관을 나주로 통일합니다 99/대중보 제22호 원고모집 안내
 - 153 연회비·협찬금 납부 안내

□ 2020년도 정기총회 자료

- 123 : 2019년도 주요사업 집행 보고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
- 127 : 2019 회기 결산(총괄) 및 2020 회기 예산안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회장 오 근 성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은 위축되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불편함 속에서도 긴장하면서 살아온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종친과 그 가족 중에는 확진된 분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보다 조상님의 보살핌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종친 모두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키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나주오씨대종회 회칙은 매년 2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종무회의, 3월 넷째 주 일요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종회에 관한 소식들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만남을 통해 종원들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금년에도 대종회에는 종무회의와 정기총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과 호남 집행부 임원들이 대전뿌리공원 내 효문화원을 현지답사 후 회의장과 식당 등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면서, 긴급 서울·호남 집행부 임원간담회의를 통해 1개월씩 연기하여 3월에 종무회의, 4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는데, 3, 4월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



어 나라를 걱정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서울·호남의 집행부 임원 열세 분이 대전 소재 ‘장수두부촌’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장시간 숙의했습니다. 그 결과 종무회의와 정기총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의, 대총회 행사는 2021년에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칙대로 하면 현 집행부 임기는 2020년 3월 28일로 종료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종무회의 개최가 힘든 현 상황에서 총회 인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현 집행부가 다음 총회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대총회 소식과 종원들의 대소사 소식을 비롯하여, 2019년도 주요사업 집행 보고와 2019년도 회기 결산 등 주요 내용을 종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매 정기총회 시 종친들에게 배포했던 ‘나주오씨대종보’ 제21호(2020년)를 추석 이전에 발행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 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돌이켜보면 1999년 나주오씨대총회가 창립된 이래 20여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대종보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총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종친 분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2021년에는 종무
회의와 정기총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
여 알찬 회의가 되
도록 노력할 것이
며, 모든 종친들이
하나가 되는 한마
당 잔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특히 총회는 각 소문중에서 유사를 맡아 집성촌 인근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 다른 성씨에서는 유래가 없는 우리 나주오씨대종회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총회 때는 전국 각처에서 많은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부를 나누고, 정담을 나누면서 친목을 돈독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종보 등을 통해서는 선조님의 훌륭한 행적과 유적 및 유산을 소개함으로써 명문가 자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같은 자손으로서 일체감을 더 깊게 하는 보람 있는 행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금년 정기총회는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지만, 2021년에는 종무회의와 정기총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알찬 회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든 종친들이 하나가 되는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무위원, 임원, 고문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비를 납부해주시고, 대총회를 위해 비품과 찬조금을 협찬해 주시고, 대총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019년 정기총회 개최 (2019. 03. 24.)

2019년도 나주오씨대종회 정기총회가 2019년 3월 24일(일)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595 소재 동강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송은당공 문중 주관으로 개최됐다.

수도권, 호남권,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송조사상 함양과 단합 그리고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함께 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대종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겸해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대종회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에 참석 종친들이 1999년 12월 대종회 창립총회부터 지난달 종무회의까지 각종 행사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지난날을 회상하는 감회가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형근榮根 총무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종회 회칙 제13조에 따라 정기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했다. 국민의례와 선조님에 대한 묵념 그리고 사회자의 임원 및 외빈·내빈 소개에 이어, ‘대종대상’ 효자상과 효부상 표창, 장학금 수여,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2019년도 ‘대종대상大宗大賞’ 효자상孝子賞 표창대상자인 오종렬琮烈(83세) 종친은 송은당공 19대손으로, 최광례 여사와 혼인 후 2남 2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왔으며, 송조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부모님을 지극한 효심으로 봉양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칭송이 자자한 효자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 효자로 선정됐다.

또, 효부상孝婦賞 표창대상자인 故 나경자



羅敬子 여사(1925년생)는 송은당공 17대손 오찬수讚洙의 처로,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을 두었고,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가정을 지키며 6남매의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을 뒷바라지하여 출가시킴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효부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 효부로 선정됐다.

2019년도 장학금 수혜자인 오수빈收彬(23세)양은 송은당공 18대손으로,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승조정신이 투철하고 애족심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방정하여 그 장래가 촉망되므로, 본회 회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문을 빛낼 인재로 선정되어 장학금 일백만원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다음은, 오의곤義坤 영남지역본부장, 오양

근梁根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현교玄敎 재무 부회장에게 공로상 표창이 있었다. 오의곤 영남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으로 2008년부터 11년간 재임하면서, 오양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2012년부터 7년간 지역본부장에 재임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인화단결에 힘쓰고 지역회원들이 대총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오현교 재무 부회장은 2008년부터 11년간 재무부장 및 재무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인화단결에 힘쓰고 본회의 재정이 충실하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로를 기리고자 세 분에게 공로상패와 기념품을 수여했다.

이어서 오근성根筮 회장은 개회사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나주오씨대총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총회가 20년의 뿌리를 내



릴 수 있었던 것은 종친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난해에는 종친들의 뜻을 모아 나성군 선조님의 초상화(보물 제1190호)를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여 영구보존토록 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주관으로 나성군 초상화 특별전시회와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나성군 선조님의 훌륭한 행적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개회사를 했다.

그리고 오인선仁善 송은당공 종중 대표(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나주오씨대종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송은당공 문중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2년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기쁜 마음

을 전하고, “훌륭한 선조님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으로서 매년 종중의 집성촌을 찾아 총회를 개최·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자랑입니다. 이는 단결과 화합 그리고 배려심이 강한 종훈의 ‘송조·성실·친목·봉사’ 덕목을 실천하는 의지와 자부심입니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이어, 오무송茂松 호남지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종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나주 곡강 송은당공 종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모든 종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총회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신 송은당공 종중 회장님을 비롯한 일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다음 순서로, 대종회 창립 20주년 기념하는 축시 「다시 바람이 불어오도다 -나주오씨대종회 창립 20주년에 부쳐」(2019년 제20호 대



종보 16~17면 게재)를 김태정 시낭송가께서 낭송해주어 참석 종친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축시는 2017년 10월 제37회 <가람시조문학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3월 <한국시조대상>을 수상한 오종문鍾文 홍보부장이 지은 축시이다.

이어, 오근성 대총회장께서 오인선 송은당 공 종중 대표에게 총회지원금 삼백만원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어서, 정기총회 주요 안건인 의안보고 및 인준에 관한 건을 오근성 회장(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오정균丁均 종무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오동근東根 감사의 2018회기 감사보고가 끝나고, 의장은 제1호 의안인 '2018회기 사업집행 및 2019회기 사업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의장은 2018회기 주요사업집행보고 및 2019회기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참석한 모든 종원들이 원안대로 인준했다.

이어 의장이 제2호 의안인 '2018회기 결산 및 2019회기 예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장은 예산·결산자료를 설명하고,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참석한 모든 종친들이 원안대로 인준했다.

이어 의장이 제3호 의안인 '대총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회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1) 대총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대총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총회의 목적 조항(제3조) 개정과 사업 조항(제3조의2)을 신설하고, (2) 종무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



(제1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3(신설), 제12조)하며, (3) 향후 설립하는 나주오씨장학회의 장학사업업무를 담당할 장학사업부를 신설(제5조, 제8조)하고, (4) 대총회 소유 부동산은 강남구청에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따라 나주오씨대총회 명의로 등기하고, 금융자산은 역삼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에 따라 나주오씨대총회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재산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6조)하는 회칙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제3호 안전에 대하여 참석한 모든 종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다.

이상으로 의안보고 및 인준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형근 총무 부회장이 대총회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오자치초상(보물 제1190호) 특별전시(전시기간: 2019.05.27.~06.30(35일간), 전시장소: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 학술강연회 및 초상영인본 전달식(행사일자: 2019.06.03. 오후2시, 행사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공지를 끝으로 대총회 2019년도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역대 총회 개최 문중

개최연도	개최문중	개 최 장 소
2003	도암공	전북 고창군 늘봄가든
2005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06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07	사정공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사회복지관
2008	철송공	광주시 상공회의소
2009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0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1	금양군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2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13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4	사정공	전남 나주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2015	철송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6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7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8	금양군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9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20		코로나19로 총회 미 개최



우리 대중회가 2017년 11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에 대한 특별전시 및 학술강연회가 2019년 6월 3일(월)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는 2019년 5월 28~6월 30일(34일간)까지 '조선의 공신' 기증·기탁 특별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을 비롯하여 공신에 책봉되어 국가에서 받았던 명예로운 초상화,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측에서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초상화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중회에서는 오근성 대중회장장을 비롯한 임원, 증무위원, 종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선의 공신

공신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 말한다. 조선의 공신을 비롯하여 위대한 왕조 역사의 궤도에 함께 한 공신들의 공을 세운 공신초상,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공신초상화 조선시대 국사(國史)에 내린 '명령서' (勅令書)에 따라 그려진 공신초상화. 조선의 공신을 비롯하여 위대한 왕조 역사의 궤도에 함께 한 공신들의 공을 세운 공신초상,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Portrait of O Ja-chi
(보물 제1190호)
조선시대 국사(國史)에
내린 '명령서'에 따라
그려진 공신초상화

1471년(세조 13)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은 조선
왕조 역사의 궤도에 함께
한 공신들의 공을 세운
공신초상화. 조선시대
국사(國史)에 내린 '명령서'
에 따라 그려진 공신초상화.
조선시대 국사(國史)에
내린 '명령서'에 따라
그려진 공신초상화.

전시를 알며 Foreword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가문에서 소장해 오셨던 유물을 기증·기탁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기탁 특별전 - 조선의 공신'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증·기탁 유물 가운데 조선시대 공신초상과 관련된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공신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 말한다. 조선의 공신을 비롯하여 위대한 왕조 역사의 궤도에 함께 한 공신들의 공을 세운 공신초상,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의 기증은 비롯하여 1991년 동안 5년 동안 됐다가 지난해 늦게는 '역한대군 영정(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을 기탁하는 등 기증과 기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문의 귀중한 보물을 우리 박물관에 보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기증: 유물을 박물관에 주는 것
- 기탁: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 기간 빌리는 것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pleased to present a special exhibition in appreciation of all the patrons who gladly donated or entrusted their treasured family heirlooms to the museum. The artifacts of cultural heritage on display are related to *Gongsin* (mentioned subjects of the Joseon Dynasty). *Gongsin* was a title that Joseon kings conferred on subjects who performed distinguished services that helped the country overcome a crisis and the royal family thrive. Honored subjects also received certificates, portraits, and material rewards from the king. This exhibition features documents related to such practices as well as portraits of *Gongsin*.

- Donator: Making a gift of artifacts to the museum
- Entrustment: Depositing artifacts with a museu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기증·기탁 특별전 조선의 공신 Donated and Entrusted Collection on Exhibition Mentioned Subjects of the Joseon Dynasty

5.28. TUE 5.31. FRI 6.30. SUN

특별 강연

일시: 2019. 6. 3(월) 오후 3시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내용

- 조선 세조의 공신: 직계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
(김인규, 유물과학과장)
-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미
(신재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도록주신 분별

기증·기탁자	유물 이름	지정 번호
나주오씨 대종회 기증	오자치 초상 보물 제1190호	보물 제1190호
창릉이씨 대종회 기탁	이성종 위상공신 녹권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보물 제1569호
이건무 기탁	이성종 초상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보물 제1490호
	이성종 위상공신 교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보물 제1508호
	이성종 위상공신 교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보물 제1508호
한위이씨 이가철 기탁	이항 위상공신 녹권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보물 제1657호
한주이씨 익인대군회 종회 기탁	익인대군 영정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 순서는 지정 번호 순이며, 유물 이름은 지정 번호와 이름입니다.



기증·기탁 특별전 이모저모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오근성 대종회장 인사말 후,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복제품 1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외주 제작하여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기증자인 우리 대종회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증 유물 오자치 초상에 대한 학술강연회가 실시됐다.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이 「조선 세조 공신 :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 및 신재근 유물학과 학예연구사가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서 오자치 특별 관람 후 진병목 고궁박물관장과 대중회 임들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친 후 대중회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했다.







고창군 오씨대동종친회 나성군(양평공) 유적 방문

2019년 11월 4일 '고창군 오씨대동종친회' 오통렬 회장을 비롯한 회원 80여 명이 광산구 왕동 소재 원당 나성군 유적지를 방문했다. 환영 행사 후 사회자의 안내로 원당영각元堂影閣으로 이동, 나성군 초상을 모시고 배례한 후 시기재始基齋로 이동하여 시기재 뒤편에 모셔진 부조묘不祧廟를 둘러보고 시기재에서 준비된 음료와 다과를 먹으며 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작은 공사에서 큰 공사까지 책임을 다하여 완벽하게 시공합니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작은 소규모 공사부터 큰 대규모 공사까지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100% 만족하실 수 있는 역량과 열정, 완벽한 시공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토목공사, 포장, 철근, 상하수도, 기계임대업

영업종목 도로확포장 및 투스콘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관로공사

보유장비 vegel-600, vogel-1800, vogel-1900, BG 2 로울러 등



(주)가야건설~(주)금성건설

대표이사 오 중 순 (대중회 부회장 | 사정공 문중)

◆본사: 전남 나주시 송월동 667번지
◆지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 289-7
◆전화: 061-332-8127~8
◆FAX: 061-336-8111

오자치 초상 특별전시 및 학술강연회 개최(2019.06.03.)



우리 대중회가 2017년 11월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에 대한 특별전시 및 학술강연회 행사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2019.05.28~06.30.(34일간) 열리는 기증·기탁특별전 ‘조선의 공신’ 특별 전시는 ‘오자치 초상’을 비롯하여 ‘이성윤 초상(보물 제1490호)’, 18여 년 동안 도난 당했다가 지난해 되찾은 ‘익안대군 영정(충남문화재자료 제329호)’ 등 공신에 책봉되어 국가에서 받았던 명예로운 초상화,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는 국립고궁박물관 주관으로 2019.06.03(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소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측에서 진병목 국립

고궁박물관장과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중회에서는 오근성 대중회장을 비롯한 임원, 종무위원, 종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자치 초상을 500년이 넘도록 잘 보존하여 국가에 기증해 준 나주오씨대중회 및 바쁜 시간을 내어 광주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주신 나주오씨 일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근성 대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존 상태가 안 좋은 유물을 보존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준 고궁박물관 측에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립고궁박물관 관련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자치 초

대중회 소식

상 보존처리 및 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결의해 주시고, 2017년 초상 기증식과 오늘 특별 전시 및 학술 강연회 행사에 참여해 주신 대중회 임원·종무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외주 제작한 ‘오자치 초상’ 복제품 1점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기증자인 우리 대중회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어 기증 유물 오자치 초상에 대한 학술강연회가 실시됐다.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이 “조선 세조의 공신 :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ppt를 이용하여 “공신의 정의부터 세조 때의 공신, 적개공신 오자치의 활동과 평가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신재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가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ppt를 이용하여 강연했다.

신재근 학예사는 활을 잘 쏘는 오자치에게 성종이 호피와 녹피를 하사했다는 실록의 기록을 인용해 설명하고, 오자치 초상화를 예로 들면서 공신 초상화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본문 79~81쪽 참조)

학술강연회 행사가 모두 끝난 후, 행사 참석자들은 전시실로 이동하여 오자치 초상 특별 전시 행사를 관람했다.

*(사진 화보 10~13쪽 참조)

[註]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사업 완료 보고’ 및 ‘국가에 기증 완료 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8년 제19호 〈나주오씨대종보〉 18~21, 23~24, 26~27(화보), 76~83면을 참조하세요.

나주오씨대중회 블로그 개설(2019.09.29.)

대중회는 2019년 9월 29일 네이버에 ‘나주오씨대중회 블로그(najuohorkr.blog.me)’를 개설했다. 대중회 홈페이지(najuoh.or.kr)는 2002년 5월 10일 개설하여 18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8월 22일 대중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나주오씨 유래, 세계분파도, 나주오씨족보 편찬사, 나주오씨족보 서문序文 소개, 향렬자 정규定規, 사적, 문헌, 주요인물, 집성촌, 제향일 등을 열람해 볼 수 있다.

또 2010년 9월 10일 대중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대중회 홈페이지에 〈전자족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전자족보 기본사항’은 본인·배우자·자녀 인적사항, 본인의 연락처·근무처, 대중회 관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족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는 많은 종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검색엔진의 대중회 홈페이지 검색 허용을

대중회 소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주오문 종원들의 경우에도 대중회 홈페이지(najuoh.or.kr)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려면 “오넷(oh-net)회원”으로 가입 승인된 종원만이 로그인한 후 〈전자족보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주오문 종원들이 대중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다른 성씨 국민들은 대중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조차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회 블

로그(najuohorkr.blog.me)’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대중회 블로그’는 우리 나주오문 종원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누구라도 나주오문의 종사宗史, 대중회 활동상황 등 각종 소식 및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중회 블로그’에서는 〈전자족보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다. 나주오문의 〈전자족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족보’에 등록하고 ‘전자족보’를 열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중회 홈페이지(najuoh.or.kr)에서 “오넷회원” 가입신청하여 가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경기지역본부 임원·종무위원 단합대회(2019.10.12.)



서울경기지역본부는 2019년 10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문화예술공원’에서 2019년도 추계 임원·종무위원 단합대회를 개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중회 임원, 종무위원, 종원 가족 63명이 야외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양근 지역본부장의 단합대회 개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오형근 총무 부회장이 참석자들을 전원 한분 한분 소개하였고, 오기선 수도권친목회장의 환영사, 오근성 대중회장의 격려사, 오형근 총무부회장이 대중회 소식 및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2019년 2월 종무회의 소식, 2019년 3월 정기총회 개최 소식, 2019년 6월 오자치 초상 특별전시 및 학술강연회 소식, 2019년 10월 금양군 정향제 및 나성군 정향제(예정) 소식, 2019년 5월 오수산악회와 오성산악회의 순천

강천사 합동산행 소식, 2019년 9월 대중회 블로그 개설 소식 등 대중회소식 등을 전했다.

이어 준비해 온 홍어회, 돼지머릿고기, 술과 음료수를 곁들여 화기애애한 대화로 혈육의 정을 흠뻑 느끼며 중식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다 함께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단합대회를 모두 마쳤다.

▷참석자 : 63명

근성, 양근, 종만, 기선, 공수, 학수(부부), 근신(부부), 맵근, 두성, 근태(부부), 근국, 경근, 형근, 채근(부부), 열, 진열(부부), 동렬, 정렬, 남렬, 전열, 동, 양균, 백교, 홍구, 창교, 승기, 건열(부부), 종문, 종선, 정숙(女), 기근, 성근, 순열, 민열, 점석(女), 규열(부부), 초섭, 맵렬, 채열, 재열(칠송, 부부), 재열(석문, 부부), 형교, 송균, 종석, 홍수, 광구, 명근, 사근, 유근, 승렬, 광렬, 태균, 재교, 부종 등.

고창군 오씨대동종친회 회원, 원당 나성군 유적지 방문(2019.11.04.)



2019년 11월 4일 ‘고창군 오씨대동종친회’에서 오통렬 회장을 비롯한 회원 80여 명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소재 원당 나성군 유적지를 방문했다.

버스 3대에 분승한 일행은 오전 10시경 원당에 도착하여 나성군신도비 앞 공터에서 오희교 대종회 부회장의 사회로 참석한 종친들의 소개와 간단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근성 대종회장이 준비한 기념품과 나주오씨대종보, 양평공(나성군)종중에서 준비한 ‘나주오문의 4대봉군’ 유인물, 지난 6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있었던 조선 공신 오자치(나성군) 초상 특별전시 및 강연회 리플렛 등을 참석한 대동종친회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오은열 양평공종중 회장의 인사말씀과 오근성 나주오씨대종회 회장의 인

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근성 대종회장은 나성군羅城君(휘 자치自治) 선조님의 행적 및 업적 등을 소개하고, 대동종친회 회원 일행이 오후 방문 예정인 담양 명옥헌鳴玉軒과 명곡공明谷公(휘 희도希道)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대동종친회 측에서 오세환(해주) 청장년 사무국장의 사회로 방문 인사 소개와 오통렬 대동종친회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환영 행사를 마치고 사회자의 안내로 원당영각元堂影閣으로 이동하여 나성군 초상을 모시고 배례를 한 후 시기재始基齋로 이동하여 시기재 뒤편에 모셔진 부조묘不祧廟를 둘러보고 시기재에서 준비된 음료와 다과를 들면서 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동종친회 회원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대중회 소식

목적지인 담양 명옥헌으로 출발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나주오씨대중회 종친은 오근성, 오은열, 오정균, 오영교, 오동근, 오필렬, 오인국, 오도근, 오동석, 오희태, 오현교이며, 대동종친회 측 인사는 오동렬(나주), 오균호(함양), 오동근(해주), 오연권(동북), 오영

택(함양), 오세국(해주), 오극렬(나주), 오희성(나주), 오세환(해주) 외 72명(여자 15명 포함)이 동행했다.

담양 명옥헌에서는 명곡공 종중에서 오만균 종친이 대동종친회 회원 일행을 안내했다.

※ 화보 14~15쪽 참조.

서울경기지역본부 임원회의(2020.01.08.)



- 회의일시 : 2020. 01. 08. (수) 정오 12시
- 회의장소 : 대중회 사무실
- 참석자 : 오근성, 오양근, 오기선, 오민선, 오공수, 오근신, 오맹근, 오근태, 오경근, 오형근, 오채근, 오열, 오진열, 오동렬, 오동, 오교철, 오양균, 오대균, 오백교, 오홍구, 오승기, 오종문 (이상 22명)

•보고 및 토의사항

1. 2019회기 주요 사업집행보고
2. 2020회기 사업계획안 설명
3. 대중회 회장 선정에 관한 건

－ 회장 공모에 응모한 6건(임원회의 당일 1건 추가 접수함)에 대하여 작품 설명을 하였으나, 작품 디자인에 대하여는 참석 임원들

대중회 소식

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참석 인원 모두 동의하였는 바, 오늘은 참석임원들이 개인별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1점씩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이 선정 결과를 선정위원회가 참고하도록 하였음.

4.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준비에 관한 건

—2020년 2월 9일 종무회의 직후, 종무회의에 참석한 종무위원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장학회 창립 취지문 채택, 장학회 규정 제정, 장학사업 요강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음.

5. 차기 임원선출에 관한 건

—대중회 회칙상 임원 선출 관련 회칙 조항인 제6조(임원선출) 조항과 제12조(종무회의)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설명.

—'대중회 역대 회장단 명단'과 2019년 3월 24일 개정된 회칙에 따른 '대중회 조직기구표'

설명.

—능력과 덕망이 있는 새 회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1월 각 지역본부별 임원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개최되는 종무회의에서는 차기 회장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함이 바람직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차기 회장 후보 자격조건을 몇 가지 제시.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첨부자료에 소개된 호남지역본부 주요 임원 중 상기 조건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오동근東根(본회 감사)과 오종순鍾淳(본회 부회장) 2인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의.

• 공지 및 협조요청 사항 전달

1. 대중보 제21호(2020년 3월 발행) 원고 제출 (2020.02.14.限)
2. 신유보(자손록) 전산화에 따른 전자족보 신규(변경)등록 신청
3. 본관 정정 신청 추진

호남지역본부 임원회의(2020.01.16.)

• 회의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정오 12시~14시 50분

• 회의장소 : 사직명가식당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소재)

• 참석자 : 오무송, 오판수, 오중섭, 오희열, 오인선, 오수열, 오행근, 오희성, 오희렬, 오성교, 오찬균, 오현교, 오기주 (이상 13명)

• 토의사항

1. 차기 대중회장 후보 추천의 건

차기 대중회장 후보 추천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황 선출 방식의 투표 결과 1순위 오인선, 2순위 오정균을 차기 대중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음.

서울·호남지역본부 집행부 임원 간담회(2020.01.30.)

- 회의일시 : 2020. 01. 30. (목) 낮 12시
- 회의장소 : 대전광역시 뿌리공원 입구
〈장수두부촌〉
- 참석자 : 9명

—서울지역 : 오양근(본부장), 오형근(총무부회장), 오근신·오맹근(부회장), 오종문(홍보부장), 오승기(감사) 등 6명

—광주지역 : 오무송(본부장), 오기주(총무부회장), 오현교(재무부회장) 등 3명

• 논의사항

1. 차기 대중회장 후보 추천의 건

—2020년 2월 종무회의에서 선출할 차기 대중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지역 본부는 2020년 1월 8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대중회장 후보로 오동근 현 감사와 오종순 현 부회장 등 2인을 추천결의한 바 있고,

호남지역본부는 2020년 1월 16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대중회장 후보로 오인선 현 부회장과 오정균 현 종무원장 등 2인을 추천결의한 바 있다.

—2월 종무회의 장소(대전뿌리공원 인근 ‘孝문화원’) 사전 답사차 현장 답사에 참여한 서울·호남본부 집행부 임원들 9명 일동은 대전뿌리공원 입구 ‘장수두부촌’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호남본부에서 각각 추천한 대중회장 후보 4인에 대한 상호간 의견 조율을 통하여, 서울본부에서 추천한 1인(오동근 현 감사)과 호남본부에서 추천한 1인(오인선 현 부회장) 등 후보자 2인을 차기 대중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고, 2월 종무회의에서 후보자 2인 중 1인을 대중회장으로 선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음.

서울·호남지역본부 집행부 임원 간담회(2020.06.20.)

- 회의일시 : 2020. 06. 20. 낮 12시~14시
- 회의장소 : 대전광역시 뿌리공원입구
〈장수두부촌〉

• 참석자 : 13명

—서울지역 : 오근성(회장), 오양근(본부장), 오종만(종사연구위원장), 오형근(총무부회장), 오종문(홍보부장), 오종선(재무부장), 오승기(감사), 오채근(오수산악회장) 등 8명

—광주지역 : 오무송(본부장), 오기주(총무

부회장), 오현교(재무부회장), 오동근(감사), 오성수(오성산악회장) 등 5명

• 회의 결의사항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정부의 강력한 집회제한 권고에 따라, 2020년도 종무회의(당초 예정일자 2020.02.09.) 및 정기총회(당초 예정일자 2020.03.22.)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서울·호남 지역본부 집행부 임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다음의



5가지 현안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1. 2020년도 중무회의 및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부득이 각각 1년 순연하여 개최하기로 하되, 2019회기 결산사항과 2020회기 예산사항 등은 제21호 <나주오씨대종보>에 게재하여 전 종원에게 알리기로 의결하다.

2. 제21호 <나주오씨대종보> 발행에 관한 건

—당초 2020년 3월에 발행하려던 제21호 나주오씨대종보는 금년 추석(2020.10.01.) 이전에 발행하기로 의결하다.

3. 참의공파 종중의 <증보관 나주오씨세적> 발행에 관한 건

—참의공파 종중에서 2020년 발행한 <증보

관 나주오씨세적>(오성근·오항식 공저)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주오씨대종회의 입장문을 채택하다.

4. <증보관 나주오씨세적> 발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증보관 나주오씨세적> 발행에 대한 나주오씨대종회의 입장문(주요 문제 부분 지적사항 첨부)을 제21호 나주오씨대종보에 게재하고, 대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게재하여 전 종원에게 알리기로 의결하다.

5. 대중회 회장에 관한 건

—2019년 대중회 회장(심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에 의한 뱃지 및 종기(宗旗) 제작용 디자인 2종을 심의·의결하다.

나주오씨 나성군 종중 정기총회 개최(2020.04.08.)

2020년도 나주오씨 나성군 종중의 정기총회가 4월 8일 광산구 원당 소재 시기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인사, 내빈 인사, 업무보고, 결산보고, 안건 협의 등의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업무보고 건으로는 왕동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철담공사용 부지 임대료, 송신철담 부지 임대료 갱신, 영각 대문 포함 양쪽 담벽 8미터 확장 도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수정 민원 제기, 나주오씨 나성군 종중의 서광주세무서 비영리법인 등록 완료, 부동산 등기용 번호 등록(총 22필지) 및 주소지 변경을 완료하고 나주오씨 나성군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우체국/농협)하는 등의 업무보고 후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이어서 안건 협의에 들어갔다. 제1안으로, 동석 씨는 도로 확장으로 현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고 왕동 상수도 시설이 확정되었다면 '상수도 연결 공사'를 제안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가 기약이 없으므로 현 지하수 관정을 재이설하기로 의결했다.

제2안으로, 도근 씨가 '영각, 시기재, 부조묘 마당 황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제안했다. 사당이 잡초에 묻혀 관리가 안 되고, 제초작업과 제초 농약의 사용상의 한계가 있으니, 한전 철담 보상비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

◀결산 보고(2019.4.1.~ 2020.3.31.)

일자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4.1	전년도이월	18,844,830		18,844,830
4.20	시재,도우미,부담가스		1,205,000	17,639,830
6.1	왕봉공 영정 전시회 협찬		200,000	17,439,830
7.29	건물, 재산세		125,360	17,314,470
8.1	시기재 관정 보상금	6,000,000		23,314,470
8.3	철담,송진선 관계 임원회의		299,100	23,015,370
8.9	경기예탁 만기이자	193,260		23,208,630
8.12	주소변경 식대,차,도장		72,500	23,136,130
8.12	한전,철담,송진선	11,334,200		34,470,330
8.22	토지,건물대장,고유번호,철담		66,900	34,403,430
9.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327,200	34,076,230
9.12	나성군,나원군,별초		400,000	33,676,230
9.18	종합토지세		1,048,230	32,628,000
9.27	문화재단돌봄 재초작업		100,000	32,528,000
10.2	재복 세탁		126,000	32,402,000
10.15	정향재 양침 식대		48,000	32,354,000
10.15	정향재 재물		282,800	32,071,200
10.15	정향재 식대		224,000	31,847,200
11.2	고향오씨대동종친회 방문		69,000	31,778,200
11.5	별초,재초세,다과		280,000	31,498,200
12.31	예금이자	446		31,498,646
1.6	오관석(경작료)	80,000		31,578,646
1.9	심정섭(경작료)	360,000		31,938,646
1010	심재영(경작료)	540,000		32,478,646
1.10	오영교 교문(전기세)		19,150	32,459,496
1.13	오정준(경작료)	1,681,602		34,141,098
1.15	오현종(경작료)	353,600		34,494,698
2.28	삼원전력(철담부지사용료)	5,000,000		39,494,698
8.9	경기예탁: 18,000,000			
8.12	경기예탁: 11,334,200			
	보통예탁: 10,160,498			
	다음연도 이월		39,494,698	
	총 계	44,387,938	4,893,240	

다. 토의 결과 이 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제초작업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근 씨가 제안한 '묘소 주변 잡목 및 소나무 가지 제거 작업'은 금년 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총회를 마쳤다.

*참석자 명단 : 영교, 은열, 광교, 현교, 천년, 정섭, 낙균, 경교, 웅열, 필열, 기주, 성수, 안모, 동석, 순교, 동근, 도근(무순, 이상 17명)

증랑장공 1세 언偃 시제 봉행(2019.04.13. 음 3.9)

2019년 4월 13일(음력 3월 9일) 정오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평가산에서 1세 증랑장공 휘 언 선조의 시제를 봉행했다. 이날 2세 계진季眞, 4세 신교愼交(부사공府使公), 5세 경친敬親 선조의 시제도 함께 봉사했다.

근성 회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1세 증랑장공 휘 언 선조님의 시제는 가능하면 나주오씨 모든 분들이 참석해 선조님을 기릴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1세 언 선조 시제 봉행 기

념타올을 부사공 문중에 전달했다.

이날 시제에는 부사공 문중 종친 외에 서울에서 근성 회장, 양근 서울지역본부장, 종만 종사연구위원장, 승기 감사, 종선 재무부장, 종문 홍보부장 등 6명, 광주에서는 광섭·영교 고문, 무송 호남지역본부장, 기주 총무부회장, 현교 재무부회장, 동근 감사, 은열·필렬·광교 부회장, 응열, 경교 씨 등 30여 명이 시제에 참제하였다.



원당 시제 봉행 (2019.04.20, 음 3.16)



2019년 4월 20일(음력 3월 16일) 정오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묘역에서 5세 휘諱 자치自治(나성군羅城君), 6세 휘諱 세훈世勳(나원군羅原君), 7세 휘諱 겸謙(금양군錦陽君), 8세 휘諱 언후彦厚(남평공南平公) 선조님 등 네 분의 시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시제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사는 종친 외에 전국 각지에서 개인적으로 도착한 종친과 서울에서 근성 회장, 양근 서울지역본부

장, 종만 종사연구위원장, 기선 부회장, 형근 총무부회장, 승기 감사, 종문 총무부장, 재열 종무위원 부부 등 9명 등이 원당 시제 봉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울팀은 광주 지역 종친들과 함께 나성군 선조님 신도비를 둘러보고, 나성군 위선사업에 많은 헌금을 낸 고故 금정錦亭 용근用根 님의 공적비 앞에서 금정 님의 장남 재열 부부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상경했다.

금양군 정향제 봉행 (2019.10.17, 음 9.9)

2019년 10월 17일(음력 9월 9일) 정오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77번지 광산사廣山祠에서 7세 국재菊齋 금양군 오겸吳謙 선조님의 정향제를 봉행하였다.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이 좌찬성에 올라 왕으로부터 궤장几杖을 내려받고, 그 뒤 기로소에 들어갔다. 지춘추관사가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최종 관직이 우의정에 이른 선조님이시다.

이날 시제에는 광주향교 관내 유림들이 정향제를 주관했으며, 금양군 문중 종친 외에 서울에서 근성 회장, 양근 서울지역본부장, 종만 종사연구위원장, 형근 총무부회장, 기선 부회장, 승기 감사, 종문 홍보부장 등 7명, 광주에서 무송 호남지역본부장, 현교 재무부회장, 동근 감사, 광교 부회장(면장) 등이 정향제에 참제하였다.

나성군(양평공) 정향제 봉행(2019.10.13, 음 9.15)

2019년 10월 13일(음력 9월 15일) 정오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소재 시기재始基齋(우천으로)에서 5세 양평공襄平公 오자치吳自治 선조님의 정향제를 봉행하였다. 선조님은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신 큰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에 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시고 나성군羅城君에 봉군되셨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 및 시호 양평襄平공이시며,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은전을 받아 부조묘不祧廟(사당)에서 기제사를 올리는 우리 가문의 큰 어른이시다.

이날 정향제에는 서울에서 근성 회장, 양근 서울지역본부장, 종만 종사연구위원장, 기선



부회장, 형근 총무부회장, 승기 감사, 종문 홍보부장 등 7명, 광주에서는 광섭·영교 고문, 무송 호남지역본부장, 기주 총무부회장, 현교 재무부회장, 동근 감사, 광교·낙균·찬균·인국·은열 부회장 등 총 26명이 정향제에 참제하였다.

나성군(양평공) 부조묘 제사(2020.07.23. 음 6.3)

7월 23일 나성군 선조님의 부조묘 제사를 칠송공 문중(봉사손) 주관으로 봉행하였다. 해마다 봉행하는 나성군 부조묘 제사는 모든 종원들이 아시는 대로 음력 6월 초3일이다. 그러나 이번 제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간의 여러 경과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나성군 부조묘 제사는, 제사를 봉행하는 전 과정 뿐 아니라 제수 하나 하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국가(한국국학진흥원)의 자료로서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되어 나성군 선조님의 인물, 행적

등 더 나아가 우리 나주오문의 역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7년 부조묘 제사를 참관했던 ‘부조묘 제례와 제례음식’을 연구하는 전남대학 서해숙 교수(남도학연구소 대표)로부터 “한국국학진흥원(<http://jongga.koreastudy.or.kr>)”(안동 소재)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과제로 호남지역 뒤편으로 5백 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나성군 부조묘 제례가 선정되었다는 말과 함께 나성군 선조님의 부조묘 제례 및 제례음식 영상 촬영을 요청 받고(2020. 6. 1) 종중(대중

문중 소식



회, 양평공 종중, 칠송공종중)의 여러분과 상의 하였는바, 당시 극성을 부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나성군 선조님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나주오문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리라 믿어 요청을 수락했다.

7월 23일 4명의 촬영팀이 일사불란하게 촬영이 진행되었으나 하루종일 내리는 장맛비 때문에 드론을 띄워 나성군 선조님의 묘소 촬

영이 연기되었다. 그동안 별초를 하는 등 준비하였는데 아쉬움이 있었으나 차후 날씨가 좋은 날에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기괴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한편으로 조상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현 시절이 어쩔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라 선조님께서도 어여빠 봐 주시리라 믿는다.

제례는 전례대로 엄숙히 진행되었으며, 전과정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잘 마쳤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종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오근성 대종회 회장님, 오은열 나성군종중 회장님, 오병균 칠송공 압해문중 회장님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날 촬영한 부조묘 제사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성군 선조님과 나주오문이 선조를 봉양하는 좋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례에 참석 하신 분은 초헌관 오천년(봉사손), 아헌관 오은열(나성군종중 회장), 종헌관 오영교(대종회 고문), 축관 오현교(칠송공종중 총무), 집례 오피열(칠송공종중 회장), 집사 오여교(칠송공), 집사 오종상(칠송공종중), 학생 오주열·오교한·오찬균·오병균·오광준·오동균·오영일·오태영·오정숙(이상 칠송공종중), 오도근(나성군종중 총무), 오동석(나성군종중 재무), 백지희(오산열 씨 며느리) 등 총 19명이 참례하였다. (정리 : 오현교)

수도권 친목회 소식

2019.03.20.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기선, 양근, 맹근, 경근, 형근, 채근, 열, 진열, 동렬, 동, 양균, 대균, 승기, 종문, 정숙 (이상 15명)

•회의 내용 : 2019년 3월 총회 준비사항 논의, 2019년 6월 오자치초상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안내, 종문 홍보부장 한국시조대상 수상 소식 등.

2019.04.17.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기선, 공수, 맹근, 근태, 형근, 안근, 진열, 양균, 대균, 홍구, 승기, 종문, 정숙 (이상 13명)

•회의 내용 : 친목회 신입 회원 소개(근태, 안근, 양균), 대종회 2019년 사업계획 및 회칙 개정 내용 설명, 임원친목회 취지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등.

2019.05.15.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기선, 양근, 학수, 근신, 맹근, 두성,

근태, 경근, 형근, 열, 진열, 남렬, 동, 양균, 홍구, 승기, 정숙 (이상 17명)

•회의 내용 : 2019년 6월 나성균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안내, 산악회와 대종회의 상호 발전방안 논의 등.

2019.06.19.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기선, 근성, 양근, 형근, 학수, 근신, 맹근, 두성, 근태, 형근, 채근, 열, 진열, 대균, 승기, 종문 (이상 16명)

•회의 내용 : 2019년 6월 3일(월)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오자치 초상(보물 제 1190호)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소개 등.

2019.07.17.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기선, 양근, 공수, 학수, 근신, 맹근, 두성, 근태, 경근, 형근, 열, 진열, 동렬, 전열, 동, 양균, 대균, 백교, 종문, 정숙 (이상 20명)

•회의 내용 : 친목회 발전방안 논의(회원 대상 범위 확대, 모임 명칭 변경, 운영위원회 구성·

수도권 친목회 소식



운영방안, 상부상조 강화, 회비 각출 기준, 친목회 회칙 마련 등).

2019.08.21.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 참석자 : 기선, 양근, 학수, 근신, 맹근, 두성, 근태, 형근, 열, 진열, 동렬, 동, 양균, 대균, 종문, 정숙, 점석 (이상 17명)
- 회의 내용 : 점석(烈, 명곡공, 여성종무위원) 참석 소개, 대종회 회장 공모 참여 독려, 외부 강사 초빙 교양강좌 실시(박희 교수) 등.

2019.09.18.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 참석자 : 기선, 근성, 양근, 종만, 홍수, 근태,



열, 진열, 전열, 동, 대균, 백교, 승기, 종문 (이상 14명)

- 회의 내용 : 노년기의 글쓰기 교양 강좌 실시 (홍보부장 오종문)

2019.11.20. (수)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 참석자 : 기선, 근성, 양근, 종만, 홍수, 근태, 열, 진열, 전열, 동, 대균, 백교, 종문 (이상 13명)
- 회의 내용 : 한국근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회 관련 소개, 고창오씨대동종친회 원당 및 명옥헌 방문 소식, 2월 종무회의 및 3월 총회 안내, 오동근 감사 광산문화원장 취임 건 등.

2019.12.21. (토) 낮 12시, 대종회사무실 수도권 친목회 송년모임

- 참석자 : 기선, 근성, 양근, 종만, 근신, 맹근, 두성, 근태, 경근, 형근, 열, 진열, 동렬, 정렬, 남렬, 전열, 동, 양균, 대균, 백교, 홍구, 종문, 종선, 홍수, 재교, 초섭 (이상 26명)
- 회의내용 : 신규 참석자 소개(홍수, 재교, 초섭), 신근 종무위원 모친상(12/11), 정숙 여성부장 입원·수술(12/17), 교철 전 종무원장 목사 안수식(1/11예정), 동근 감사-광산문화원장 취임(11/26), 종선 재무부장-방통대 서울총동문회장 취임식(11/23) 소개 등.

수도권 친목회 소식



2020.01.15. (수) 낮 12시, 가야골 오리집



•참석자 : 기선, 근성, 양근, 종만, 맹근, 근태, 열, 진열, 동렬, 전열, 동, 양균, 대균, 백교, 종문, 홍수, 재교, 초섭 (이상 18명)

•회의 내용 : 기선 수도권친목 회장님의 신년 하례식을 겸한 오찬 및 회원 확대를 통한 수도권친목회 발전 방안 등.

『增補版 羅州吳氏世蹟』 발행에 대한 羅州吳氏大宗會의 입장문

나주오씨 참의공파 종중에서는 2020년 3월 10일 「增補版 羅州吳氏世蹟 上系(2世 中郎將公派 季眞篇)」(251면, 吳成根·吳恒植 공저)을 발간하여 나주오씨 종원 및 외부인사·기관·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羅州吳氏世蹟’이라 함은 우리 吳氏家門 代代로 전해 내려오는 事蹟으로서 주로 선조님들의 行蹟과 遺蹟 등을 기록해서 후손들이 이를 기리고 본받을 귀감으로 삼도록 하는데 世蹟 발간의 意義가 있다 할 것입니다.

1999년 발간된 「羅州吳氏世蹟」(949면, 발행인 吳正烈, 편집인 吳連洙)은 羅州吳氏門에 대단히 유익한 문헌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간된 「증보판 나주오씨세적」은 우리 씨족사를 왜곡·날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중에서 추진한 승조사업을 대종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곡해하여 비방하거나, 승조사업에 전무후무한 공적을 남긴 故 용근 고문님과 종사에 헌신·봉사해 온 종친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여러 종친들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서책을 어찌 감히 ‘나주오씨세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이비 ‘나주오씨세적’을 우리 종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 도서관, 향교 등의 기관 및 단체에까지 배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나주오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 후비열전편」에 기록된 고려 태조비 莊和王后吳氏와 그 할아버지 富佗, 아버지 多憐君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후삼국시대 나주 호족 가문 출신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장화왕후 버들아씨 이야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국오씨 최초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된 바입니다.

장화왕후 부친 多憐君을 고려 중엽인 吳淑珪 선조님의 후손 가문인 현재 나주오씨의 시조로 정립하려면, 그 주된 요건은 多憐君이 “현재 나주오씨의 직계 선조”인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나주 출신의 역사적 인물일지라도, 多憐君을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羅州吳氏라고 부르거나, 「고려사 후비열전편」에 기록된 “莊和王后吳氏 羅州人”을 개성왕씨 또는 타 성씨의 족보에서 “莊和王后 羅州吳氏”로 표현을 바꾸어 써놓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장화왕후의 부친인 多憐君이 현재의 나주오씨 직계선조가 될 수도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과연 多憐君이 우리 나주오씨의 직계선조로서 나주오씨족보의 譜系에 맨 처음 선조 즉 시조로 등재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고증은 우리 후손들 몫이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후비열전편」에 “莊和王后吳氏 羅州人 祖富純 父多憐君”으로 기록된 것이, 이를 원본으로 하여 1797년에 발간한 「개성왕씨족보 고려성원록 및 후비열전편」에 “莊和王后羅州吳氏 祖富純 父多憐君”으로 바뀌어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多憐君이 나주오씨 직계선조인지 고증 없이, 즉 「개성왕씨족보」의 위 기록만으로 多憐君을 나주오씨 직계선조로 고증하였다고 가당치도 않은 보학무지의 주장을 成根·恒植 兩人은 이번에 발간 배포한 「증보판 나주오씨세적」에서도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주 고을에서 알아주는 유학자 가문으로 전통 있는 나주오씨 가문이 우리 대에 와서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과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이 나주오씨 전체 문중과 상의나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전북 고창 소재 참의공(諱希亮) 묘원에 多憐君 시조비를 부당 건립한 것을 우리 대종회로부터 지적받자, 多憐君 시조비 건립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증보판 나주오씨세적』을 발행한 것입니다.

나주오씨 전체 문중 간 합의 절차없이 참의공(諱希亮) 묘원에 부당 건립한 多憐君 시조비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에 많은 종친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은 이

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2016년 10월 28일 多隣君 시조비 건립이 부당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에게 통보하였음(※2017년 3월에 발행한 제18호 나주오씨대종보 18~25면에 게재하여 전체 종원에게 우리 대종회의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음)에도,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증보관 나주오씨세적」을 발간하여 우리 대종회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모함·비방함은 물론 대종회 운영에는 비협조적이면서도 대종회 운영에는 불만을 품고 십여 년에 걸쳐 각종 인쇄물과 책자를 만들어 종친들에게 배포하여, 대종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권한이나 행사한다고 비방하거나,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시행한 元堂 世葬山을 폄훼하는 내용 등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 羅州吳門은 나주오씨 씨족사와 관련하여 考證이 안 된 기록을 허황되게 우리 조상의 기록으로 둔갑시킨다거나 혹은 장차 고증을 요하는 기록을 지워 없애는 어리석은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世蹟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영광된 일은 널리 알리고, 좋은 점은 계승 발전시키며, 부끄러운 일들은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의공과 종중에서는 「증보관 나주오씨세적」을 나주오씨 종원들을 비롯한 외부 인사·기관·단체 등에 대한 배포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羅州吳氏大宗會는 「증보관 나주오씨세적」이 왜곡·날조·폄훼한 주요 부분을 별첨 내용과 같이 발췌하여, 서울·호남지역본부 집행부 임원 간담회에서 결의한 입장문을 제21호 나주오씨대종보 및 대종회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羅州吳氏大宗會 임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종원)님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0일

羅州吳氏大宗會 任員 一同

『增補版 羅州吳氏世蹟』의 주요 문제점

1. 참의공과 증종의 羅州吳氏 始祖 정립과 관련하여

(1) 諱淑珪 선조님은 譜系상 首先인데, ‘始祖’로 정립하지 못한 이유

- 우리 나주오씨족보 <정묘보>(1747년) 譜系에 吳淑珪 선조님을 首先(맨 처음 등재된 선조=始譜之祖)으로 올렸지만, ‘始祖’로 정립하지 못한 이유를 <정묘보> 범례의 첫째항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씨는 삼한초부터 대족이라고 불렸다. 나주오씨는 進士公 諱淑珪부터 家乘 맨 처음에 등재하였으나, (進士公은) 고려 중엽인이므로 이 분 위로 반드시 명현(유명한 현인) 달관(높은 관직) 등 훌륭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世代와 名諱를 고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進士公 으로부터 시작하지만 ‘始祖’라는 두 글자를 쓰지 못하고 다만 이름만을 적는다.

(吳氏 自三韓初號稱大族 而若羅州吳氏 則自進士公諱淑珪 始載家乘 而云高麗中葉人 則此以上必有名賢達官赫赫可稱者 而世代名諱無以考准 故雖以進士公爲始 而不書始祖二字只書諱)

★ <경오보>부터 진사공 諱淑珪 선조님을 ‘中祖’로 정립하였다

- <경오보>(1810년) 修譜시에도 <정묘보> 譜系에 首先으로 등재한 吳淑珪 선조님을 ‘始祖’로 정립하지 못하고 ‘中祖’로 정립한 이유를 <경오보> 범례의 첫째항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헌을 잃어버려 始祖 이하 上系 名諱가 전해지지 않아, 고려 중엽인 進士公 諱淑珪부터 家乘 맨 처음에 등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舊譜(정묘보)에 따라 進士公 으로부터 시작하지만 ‘中祖’라고 적는다.

(文獻散佚 始祖以下名諱不傳 自高麗中葉人進士公諱淑珪 始載於家乘 故依舊譜 以進士公爲始 而書以中祖)

- 임진보(1892년), 신사보(1941년), 신유보(1981년) 등의 범례에서도 舊譜(경오보)와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신사보 발췌] 始祖 이하 統系와 名位가 전해지지 않은 이유를 위(舊譜)에서 상세히 살펴본
있다. 그로 인하여 舊譜(정묘보) 등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다시 쓸 필요가 없으며 進士公 諱
淑珪로부터 시작하지만 ‘中祖’라고 적는다.

(始祖以下統系名位不傳之由 詳見于上 不必仍舊譜更書 以進士公諱淑珪爲始 而書以中祖)

(2) 후손인 중랑장공 諱偃 선조님을 ‘起世祖(1世)’로 정립한 이유

● 譜系상 首先(始譜之祖)인 中祖 進士公 吳淑珪 선조님부터 中郎將公 吳偃 선조님 사이에는 잃
어버린 代數가 있기 때문에, 中祖 進士公 吳淑珪 선조님을 起世祖(1世)로 정립하지 못하고, 後
孫이지만 그 이후 世系가 분명한 中郎將公 吳偃 선조님을 ‘起世祖’로 정립한 이유를 〈정묘보〉
범례의 둘째 항에서 밝히고 있다.

進士公부터 4代 이하 中郎將公 이상 系牒을 잃어버려 그 사이에 전해지지 않은 代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中郎將 諱字 위에 子字를 쓰는 것은 부당하므로, ‘後孫’이라고 칭
하여 다른 줄에 따로 쓰고, 이로부터 代數를 계산하고 각 파가 나누어진 근원으로 삼는다.

(自進士公四代以下中郎將以上系牒逸 而無傳其間代數不知爲幾 則中郎將諱上不當書以子字
故別書他行 而稱以後孫 自此計其代數 以爲各派之分源)

● 〈경오보〉·〈임진보〉 범례의 둘째 항과 〈신사보〉·〈신유보〉 범례의 셋째 항에서도, 譜系상 首
先인 中祖 進士公 吳淑珪 선조님을 起世祖(1世)로 정립하지 못하고 後孫인 中郎將公 吳偃 선조
님을 起世祖(1世)로 정립한 이유가 위 〈정묘보〉 범례와 大同小異하게 실려 있다.

(3) 참의공파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的 多憐君 ‘始祖’ 정립 주장에 대하여

● 참의공파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은 이 「증보판 나주오씨세적」에서 본인들이 多憐君을 羅
州吳氏 始祖로 임의로 定한 것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 고려 태조 莊和王后의 부친인 多憐君이 〈개성왕씨족보〉에 ‘羅州吳氏’라고 쓰여있다 하더라
도, 多憐君이 고려중엽인 진사공 吳淑珪(中祖) 선조님 및 고려말엽 중랑장공 吳偃(1世) 선조님
의 直系後孫 가문인 현재의 ‘羅州吳氏’ 가문의 始祖가 되려면, 반드시 多憐君이 吳淑珪 선조님
또는 吳偃 선조님의 直系先祖(直脈)임이 밝혀져야 한다.

多憐君이 直系先祖이고 吳淑珪 선조님과 吳偃 선조님이 그 子孫이라는 고증없이, 단지 어느 서

적에 “羅州吳氏”라고 쓰여있다 고 해서 直系血族(直脈)이 틀림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야말로 보학지식은 고사하고 일반상식 이하의 부끄러운 강변이며, 환부역조(換父易祖 : 가문의 신분 상승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바꾼다는 뜻)하는愚를 범할 수 있는 일이다.

“2001년에 종말인 成根·恒植이 <고려사>와 후비열전 및 개성왕씨 고려성원록을 발췌하여, 태조 휘 건 자 약천, 세조장자태조비 장화왕후나주오씨 다련군녀(太祖諱建字若天, 世祖長子太祖妃 莊和王后羅州吳氏 多憐君女)의 기록을 역력이 考證”하였다고 시조비 碑文에 새기고 (시조비 碑文 및 증보판 전면 17면 게재),

“나주오씨는 1747년 발행한 <정묘보>에 우리 조상 祖富純(부순) 子多憐君 孫莊和王后 기록을 선명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증보판 전면 32면 게재)

“개성왕씨는 우리 나주오씨보다 50년 후에 족보를 발행하였으므로, 구보를 수보하신 선조들은 개성왕씨 문헌을 보지 못하고 고증을 못해서 시조 정립을 못한 것이고, 종말들은 문화생활의 발달로 모든 서책 문헌을 발췌할 수 있어서 개성왕씨의 공사문적을 발췌하여 고증하였으므로 시조 정립을 한 것이다.” (증보판 후편 241면 게재)

● 成根·恒植 兩人은 2000.12.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518-54 -2, 편저자 미상, 발행자 미상, 고종 18년 辛巳 1881년 10월 20일 발행 / 연원실록 129~134면 참조)을 열람하고, 이 <개성왕씨족보>에 의하여 마치 多憐君이 나주오씨 중조 吳淑珪 선조님과 시세조 吳偃 선조님의 直系先祖로 直脈이 밝혀진 것처럼, 거짓 주장하면서, 多憐君을 羅州吳氏 始祖로 단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眞正으로, 개성왕씨 私門中에서 발행한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에 의하여, 장화왕후오씨의 부친 多憐君이 우리 나주오씨 中祖 吳淑珪 선조님과 起世祖 吳偃 선조님의 直系先祖(直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확실하게 그 直脈이 확인되려면 적어도, 우리 <정묘보> 발행시기 보다 50년 뒤인 1797년에 발행된 <개성왕씨족보>에 多憐君의 직계후손으로 吳淑珪 선조님 또는 吳偃 선조님의 諱字를 포함한 어떠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直脈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始祖로 추대(推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부역조하는愚를 범하면 아니 된다.

● 그러면,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의 후비열전편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나주목 불우 흥룡사편, 우리 나주오씨족보 <정묘보>의 이산현감 大經所錄 및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에 기록된 莊和王后吳氏, 祖富純, 父多憐君 관련 기록을 각각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고려사> 후비열전편

- 1451년(조선 文宗 1년)에 鄭麟趾 등이 편찬한 고려 왕조 正史.
- “莊和王后吳氏 羅州人 祖富純(부돈) 父多憐君”으로 실려 있음.

●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불우 흥룡사편

- 1530년(조선 中宗 25년)에 李荇 등이 중종의 명에 의하여 편찬된 지리서.
- “高麗太祖 莊和王后吳氏 祖富純(부돈) 父多憐君”으로 실려 있음.

● <정묘보> 이산현감 大經所錄

- 1747년(영조 23년) 최초 발행된 우리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출전(出典)으로 하였음을 밝힘.
- “高麗太祖 莊和王后吳氏 祖富純(부돈) 父多憐君”으로 실려 있음.

●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

- <정묘보> 발행시기 보다 50년 뒤인 1797년(正祖 21년) 최초 발행.
- 후비열전편 표제(表題)에 “鄭氏麗史本”이라 부기(附記)하여 鄭麟趾가 편찬한 <고려사>를 원본(原本)으로 하였음을 밝힘.
- “莊和王后羅州吳氏 祖富純(부순) 父多憐君”으로 실려 있음.

[註] 고려사·신증동국여지승람·정묘보·개성왕씨족보 발체 : ‘첨부자료 2’ 본호 73면 참조

※ <개성왕씨족보>가 <고려사>와 다르게 기록한 부분에 대한 註記 등은 없다. 다만 장화황후 오씨 나주인을 나주 오씨로 바꾸어 쓰고, 祖富純을 富純으로 諱字를 잘못 써 놓았을 뿐이다.

★ <정묘보> 修譜 선조님들이 多憐君을 始祖로 정립하지 아니한 이유

● 이산현감 諱大經 선조님께서 쓰신 <정묘보> 발문을 살펴보면, <정묘보> 修譜 선조님들께서 장화황후의 부친 多憐君을 우리 나주오씨족보인 <정묘보> 譜系에 올리지 못한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多憐君이 (吳氏) 諸族 鼻祖와의 直脈과 行位, 支派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만일 舊譜 (정묘보 이전의 系譜)가 여러 차례 병란과 화재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증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

(不知多憐君之爲諸族鼻祖之直脉及其行位支派之爲何如 則若使舊譜 不見失於累度兵火 必不如是之無徵)

● 〈정묘보〉 범례의 첫째항에 의하면, ‘吳氏는 三韓初부터 大族이었다’고 하므로 그 당시 羅州에는 많은 吳氏 선조님들이 살고 계셨을 것이다.

따라서 多憐君이 많은 吳氏 일가들과 함께 살고 계셨을 것이라고 추정해보면, 多憐君이 吳淑珪 선조님 또는 吳偃 선조님의 傍系先祖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 당시 多憐君 가문이 羅州의 木浦에서 대대로 살아온 호족이었으므로, 형제는 물론, 4촌·6촌·8촌·10촌 등 傍系血族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추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따라서 多憐君이 우리 나주오씨 中祖 吳淑珪 선조님, 起世祖 吳偃 선조님과 直系先祖(直脈)인지 여부는 반드시 考證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 서기 1250년 이전에 등재된 吳姓 인물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이 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吳姓 인물들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吳氏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이다.

(921)吳富佗·吳多憐君·莊和王后吳氏, (925)吳興, (935)吳淡, (1033)吳幸, (1041)吳金甫, (1049)吳演, (1073)吳沙弗, (1077)吳英霸, (1079)吳曦, (1081)吳英淑, (1083)吳仁俊, (1090)吳相, (1096)吳猛·吳延寵, (1098)吳孫慶, (1099)吳壽增, (1103)吳拭·吳知老, (1126)吳卓·吳達·吳挺臣·吳含, (1136)吳元師·吳先覺, (1151)吳日就, (1152)吳仁廣, (1158)吳忠正, (1162)吳中正, (1171)吳錄之, (1176)吳叔夫·吳光陟, (1187)吳敦信, (1197)吳淑庇, (1199)吳應夫, (1217)吳壽祺·吳仁永, (1220)吳世才, (1226)吳艾, (1247)吳贊, (1250)吳承績·吳安矩, (1258)吳壽山

● 5차례 나주오씨족보 修譜에 참여하신 모든 선조님들께서는 나주오씨 宗史와 譜學에도 밝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莊和王后吳氏 羅州人”으로 기록된 史實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최초 인쇄본 족보인 정묘보(1747년)에 수록된 이산현감 大經所錄과 태인공 希吉所記를 쓰신 〈정묘보〉 修譜 선조님들께서는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세세히 찾아보시면서 우리 씨족사를 발굴하신 분들이고, 〈정묘보〉 편찬시에도 修譜 선조님들께서 쓰신 글에서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출전으로 하였음을 스스로 밝히셨다.

● 莊和王后 부친인 多憐君을 나주오씨족보 譜系에 首先 또는 始祖로 기록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나주오씨 가문이 여러 차례 병란과 가화로 系譜를 잃어버려서 장화왕후의 부친인 多憐君과 우리 나주오씨족보 譜系에 首先인 中祖 吳淑珪 선조님 이하 후손들과 直系血族(直脈)인지 여부를 分明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묘보 修譜 선조님들께서는 多憐君을 나주오씨족보 譜系에 올리지 못한 것인데, 成根·恒植 兩人은 정묘보 수보 선조님들이 〈정묘보〉 보다 50년 뒤에 발행된 〈개성왕씨 족보〉를 보지 못함으로 考證을 못해서 始祖 정립을 못한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成根·恒植 兩人은 문화생활의 발달로 모든 서책 문헌을 발취할 수 있어서 개성왕씨의 사문적(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을 발취하여 막연히 考證하였으므로 始祖를 정립한 것이다(증보판 후편 241면 게재)라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주장을 하고 있다.

(4) 海州吳氏 始祖의 경우

● 해주오씨는 중국 宋나라의 대학사로, 984년(고려 성종 3년)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 군기감 감(軍器監監)을 역임하고 황해도 해수에 정착한 吳仁裕를 始祖로 하는 京派와 이와는 달리 중국에서 동래하였다가 돌아갔다는 전설적인 인물인 吳瞻을 鼻祖로 하고 그 후손인 海州君 吳賢輔를 始祖로 하는 鄉派(吳宗寅系) 등 始祖를 각각 달리하는 두 系統으로 되어 있다.

● 〈고려사〉에 등장하는 文襄公 吳延寵(1055-1116)은 〈고려사〉 列傳 諸臣篇에 ‘海州人’으로 기록되어있고, 198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本貫이 ‘海州’로 기재된 인물이다.

● 해주오씨는 文襄公 吳延寵을 해주오씨의 先祖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주오씨족보 譜系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주오씨 역시 현재로서는 吳延寵이 현재 해주오씨의 始祖인 吳仁裕 및 吳賢輔(吳宗寅系)와의 直系血族(直脈)인지 여부가 分明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2. 羅州吳氏 始祖碑 건립에 대하여

●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은 이 책에서 전북 고창에 소재하는 참의공(諱希亮, 참의공과 파조) 묘원에 나주오씨 시조비를 임의로 건립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오씨 시조비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나주오씨 전체 종원의 동의를 전제로 羅州吳氏 始祖 정립 절차를 거친 후, 시조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조비 비문 결정, 시조비 건립장소 선정, 시조비 건립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의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은 이와 관련하여 羅州吳氏大宗會 및 나주오씨 전체 문중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莊和王后의 부친 多憐君을 羅州吳氏 始祖로 단정하고 시조비를 2016년 9월 5일 전북 고창 참의공 묘원에 건립하였다. 뒤늦게 2016년 11월 4일 시조비 제막식을 추진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한 사회규범에도 전혀 맞지 않는 천부당만부당한 독단적인 처사이다.

3. 羅州吳氏 始祖碑 碑文 내용의 오류 등에 대하여

● 이 책에 실린 羅州吳氏 始祖碑 碑文(吳成根·吳恒植 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과 씨족사를 왜곡·날조하는 등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成根·恒植 兩人의 〈고려사〉·〈개성왕씨족보〉考證 주장에 대하여

朝鮮朝의 창업으로 開城王氏가 멸문지화를 당하자 도생지책(圖生之策)으로 변성명(變姓名)하거나 은둔하여 개성왕씨에 관한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때인 英祖23 서기 1747년 나주오씨는 정묘보를 간행하고 개성왕씨는 그 51년 후인 正祖22 서기 1798년 무오초보를 간행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修譜祖들께서 문헌고증의 어려움으로 始祖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던 중

2001년 종말인 成根·恒植이 고려사와 후비열전 및 개성왕씨 고려성원록을 발췌하여, 太祖 諱建字若天, 世祖長子太祖妃 莊和王后 羅州吳氏多憐君女の 기록을 역력이 고증하고 2011년

발행한 오씨유래전거집 중의 나주오씨 시원비문을 수정보완하여 九世 希亮 선조의 묘원에 羅州吳氏始祖碑를 세운다. 이는 나주오씨 본연의 정체성과 世系傳統을 바로 세워 자손만대의 보감으로 길이 전하고자 함이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7면 게재)

● “1. 참의공과 종중의 羅州吳氏 始祖 정립과 관련하여”(본호 37~42쪽)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개성왕씨 사문중에서 1797년에 발행한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의 기록은,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 후비열전편의 기록을 원본으로 하여 轉載한 것이므로, <고려사>와 <개성왕씨족보>의 후비열전편 내용은 서로 똑같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成根·恒植 兩人이 <고려사>의 후비열전편과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의 내용이 여합부절(如合符節 : 사물이 꼭 들어맞음)하다고 하면서 확인고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하물며,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나 개성왕씨 사문중에서 발행한 <개성왕씨족보>에는 多憐君의 후손으로 나주오씨족보 譜系 首先 인물인 中祖 吳淑珪 선조님 또는 起世祖인 吳偃 선조님의 諱字를 포함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데,

成根·恒植 兩人은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에서 多憐君이 우리 羅州 吳氏 直系先祖임(直脈)을 考證한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주오씨 후손으로서 올바른 자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를 이용하여 나주오씨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더욱이 成根·恒植 兩人은 ‘起世祖 中郎將 諱偃 追慕記’에서 “㉓정묘보 수보 선조들은 개성왕씨 문헌을 고증할 수 없었습니다”(증보판 전편 36면 참조)라고 하면서, <정묘보> 修譜 선조님들을 폄훼까지 했다.

그러나 <정묘보> 修譜 선조이신 이산현감 大經 선조님께서는 <정묘보> 大經所錄에서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출전으로 하였음을 밝히면서 “고려 태조 장화황후 오씨의 할아버지는 부돈이고 아버지는 다련군이며 대대로 나주의 목포에서 살았다. 다련군은 사간 연위의 딸 덕교와 혼인하여 왕후를 낳았다(高麗太祖 莊和王后 吳氏 祖富佗(부돈) 父多憐君 世家 羅州之木浦 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 生后)”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大經 선조님께서는 1747년 <정묘보>를 修譜하시면서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의 세가·후비열전의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나주목 불우 흥룡사편의 기록을 그 당시 직접 확

인하셨기 때문에, 大經所錄 말미에 다음과 같이 그 출전을 밝히셨다.

“우측에 있는 여러 조항은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을 출전으로 하여 현 이산현감 대경이 기록하다(右諸條出麗史及輿覽而今尼山倅大經所錄)”

● 〈정묘보〉가 발행되고 50년이 지난 뒤에, 개성왕씨 사문중에서도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의 세가·후비열전편을 원본으로 하여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을 편찬하게 되었다. 개성왕씨가 〈고려사〉를 원본으로 하여 〈개성왕씨족보〉 후비열전편을 편찬하면서 고려 왕조 정사인 〈고려사〉와 다르게 기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註記했어야 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修譜 선조들께서는 개성왕씨 문헌을 보지 못하여 고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多憐君을 “始祖”로 정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成根·恒植 兩人만이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辛巳(1881년)10월 20일 발행분, 연원실록 129~134면 참조)를 2000년 12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이를 근거로 고증할 수 있어서 多憐君을 始祖로 정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2) 多憐君의 官職

나주오씨시조 고려태조국구 삼중대광다려군비
羅州吳氏始祖 高麗太祖國舅 三重大匡多憐君碑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5면 게재)

● 多憐君의 관직은 〈고려사〉나 다른 고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시조비에 ‘三重大匡’이라는 관직을 넣어 “羅州吳氏始祖 高麗太祖國舅 三重大匡多憐君碑”라고 새긴 것은 고려 正史인 〈고려사〉의 史實을 왜곡한 것이다.

선조님이 돌아가신 후 천 년이 지나서 후손이 선조님에게 벼슬을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家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3) 吳氏의 羅州 世居 始期

우리 羅州吳氏는 나주 중흥리 일명 흥룡동에서 발상(發祥)하여 오늘에 이르도다. 정묘보에 따르면 羅州吳氏는 三韓초부터 그곳에 세거(世居)해 온 호족(豪族)이었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5면 게재)

● 〈고려사〉 후비열전편에, “莊和王后吳氏는 나주사람이다. 祖父는 富佗, 아버지는 多憐君으로, 대대로 羅州의 木浦에서 살아왔다(莊和王后吳氏 羅州人 祖富佗 父多憐君 世家州之木浦)”라고 실려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불우 흥룡사편에도, “高麗太祖 莊和王后吳氏의 祖父는 富佗, 아버지는 多憐君으로, 대대로 羅州의 木浦에서 살아왔다(高麗太祖 莊和王后吳氏 祖富佗 父多憐君 世家州之木浦)”라고 실려 있다.

●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泰仁公希吉所記에는 “吳氏 先祖는 본래 羅州 中興里에서 일어났다(吳氏先本起羅州中興里)”라고 실려 있고,
또 〈정묘보〉 범례의 첫째항에 “吳氏는 三韓初부터 大族이라고 불렀다(吳氏 自三韓初號稱大族)”라고 실려 있다.

● 〈정묘보〉에 나주오씨가 三韓初부터 나주 중흥리 일명 흥룡동에서 世居해왔다는 기록은 없으며, 〈정묘보〉 범례에는 ‘오씨는 三韓初부터 大族이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고,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莊和王后吳氏는 대대로 羅州의 木浦(현재 영산포 일원)에서 살았다’고 실려 있다.

따라서,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신증동국여지승람〉, 〈정묘보〉의 希吉所記와 범례를 참고하여 보면, 吳氏는 三韓初 以前부터 대대로 나주의 목포(현재 영산포 일원)에서 세거해 왔고, 三韓初부터 大族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여기에서 ‘三韓’이란 마한·변한·진한이 아니고, 통일신라(676~935), 후백제(900~936), 후고구려(→마진→태봉. 901~918) 등 後三國을 말하며, 이는 後三韓이라고도 한다.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공신호를 ‘三韓功臣’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화폐를 ‘三韓通寶’와 ‘三韓重寶’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서 ‘三韓初’라 하면 신

라 말엽과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개국시기인 서기 900년경을 말한다.

● 참고로, 고려시대 羅州 中興里는 보물 제364호 “羅州 西城門 안 石燈”이 세워져 있었던 나주 서문 내 지역으로, 현재 나주 금계동 일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나주 홍룡동과 중흥리와는 다른 곳이다.

[註] 石燈의 팔각형 간주석(杆柱石)에는 1행씩 8줄의 銘文이 있는데, 高麗國羅州中興里에 1093년(고려 宣宗 10년, 요(遼) 大安 9년, 癸酉) 7월에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4) 吳氏來東文蹟記(竹軒公 時鼎 記)

오씨래동문적기의 함양오상옥 족보 서문과 보성오씨 족보 서문 및 오씨 유전(遺傳)문자를 상고해보면 吳起의 후에 瞻이 동래하였다는 誌石記 중의 전설적 야사를 긍정도 부정도 없이 참고삼아 전재(轉載)하고 있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5면 게재)

● 成根·恒植 兩人은 위와 같이 誌石記 중의 전설적 野史를 긍정도 부정도 없이 참고삼아 吳氏來東文蹟記에 轉載하였다고 竹軒公 時鼎 선조님의 글을 펴내었다.

● 그러나 時鼎 선조님은 오씨래동문적기에서 오윤보 지석기, 보성오씨족보 서문, 함양오씨 오상옥족보 서문, 오씨유전문자 등을 비교설명·평가하면서, 광신지석기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설명하고,

끝으로, 시정(時鼎) 선조님은 족제(族弟) 세주(世胄. 1700~ 1732, 명곡공의 玄孫) 선조님의 기록(보성오씨족보에 諱 淑珪와 淑環 형제, 中郎將 諱가 있다는 기록)도 소개하고, 후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자상하게 하였다.

吳氏來東文蹟記는 정묘보 서문 다음에 실려 있으며, 그 기록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오윤보 지석기와 보성오씨 족보, 함양오씨 족보 등과의 비교 설명·평가〉

“오윤보의 지석기와 보성오씨 족보에는, 모두 오침(吳瞻)의 아들인 익(翊)이 처음으로 동방에 와서 아들 수권(守權)을 낳고 수권(守權)이 세 아들을 낳아서 君을 封하였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유전된 문자에는 오침(吳瞻)이 동방에 와서 세 아들을 낳았다 라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양오씨 오상옥 족보 서문에도 오침(吳瞻)이 동방에 왔다 라고 하였는데,

첨(瞻)의 아들이 익(翊), 익(翊)의 아들이 수권(守權)이라는 기록은 어찌하여 혹은 쓰여 있고 혹은 쓰여 있지 아니한가? 오히려 불어난 글자인가 아니면 이 기록에 빠진 것인가?

또 오윤보의 지석기와 보성오씨 족보 서문 가운데는 두 차례나 지석기를 기록하였는데, 처음 기록은 오익(吳翊)이 세 아들을 낳아서 첫째는 함양군(咸陽君)이고 둘째는 해주군(海州君)이며 셋째는 고흥군(高興君)으로 되어 그 후 고흥군(高興君)이 변하여 흥양군(興陽君)이라 하였고,

보성오씨 족보 서문에도 익(翊)이 수권(守權)을 낳고 수권(守權)이 세 아들을 낳으니 현보(賢輔)는 해주군(海州君)이요 현좌(賢佐)는 비안군(庇安君)이고 현필(賢弼)은 화순군(和順君)이라 하였으니,

생각해보건대 부자(父子)가 습봉(襲封=내리 이어 군봉을 받아)하여 고흥(高興)과 흥양(興陽)의 지명이 서로 바뀌어 진 것인가? 비안(庇安)과 화순(和順)은 작호(爵號)를 고치어서인가?

오익(吳翊)의 世系에는 오윤보의 지석기와 보성오씨 족보 서문은 모두 첨(瞻)의 아들이 익(翊)이라 하였는데, 오상옥의 족보만은 첨(瞻)의 아들이 웅(膺)이라고 기록되었으니 익(翊)은 첨(瞻)의 17대손이 된즉 어찌하여 대수(代數)의 착오가 이처럼 아득한지 모르겠다.

또 그 밑에 희(曦)의 아들 익(翊)이 연충(延寵)에게로 출계(出繼)하였고 익(翊)의 아들이 경(璟)이요 경(璟)의 아들이 등란(登蘭)이요 등란(登蘭)의 아들이 수권(守權)이라 하니 함양군(咸陽君) 익(翊)과 수권(守權)의 선후(先後)가 어찌하여 서로 착오(錯誤)되었다는 말인가? 옮겨 쓸 때 착오(錯誤)되었다는 말인가?

어느 기록이 잘못인지 알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유익한 변명(辨明)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전(傳)하는 의심(疑心)난 기록문자를 실었으나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면 산거(刪去=없애)한 문자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심나는 단서(端緒)를 모아 짐작(斟酌)하여 참고(參考)할 수 있는 근본을 삼고자 한다.”

〈족제(族弟) 세주(世胄)의 기록 소개〉

“1729년(己酉) 여름에 충청도 문의(文義) 삼기리(三岐里)에 사는 오영기(吳英基)의 역전(歷傳=대대로 전하여 내려옴)에 문의현(文義顯) 덕화면(德化面)에 사는 오정기(吳鼎基) 집에 보성오씨 족보가 있으니 그 족보 가운데 휘 숙규(諱淑珪)와 휘 숙환(諱淑環) 형제가 있고 또 중랑장의 휘(諱)가 있다고 하니, 합(合)하여 볼진대 동방 오씨(東方吳氏) 성관(姓貫)이 비록

다르나 시조(始祖)는 한 사람이란 설(說)이 망령된 설(說)이 아닌 것 같다.

멀리 고적(古籍)을 상고(詳考)하고 널리 금보(今譜)를 열람해 본즉 선대(先代)의 누계(漏系)를 거의 이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사는 곳이 벽루(僻陋=아주 외지고 누추한 곳)하고 문견(聞見)이 천박하여 비록 보첩(譜牒)을 수집(修輯)하되 선대(先代)를 계승(繼承)하는데 아직 모 자람이 있으니 한탄스럽도다.”

〈후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1)〉

“엎드려 원하건대, 제종(諸宗)의 후곤(後昆)들은 소성(小成)한 것에 만족(滿足)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各自) 척려(惕厲=두렵고 위태로워하는 마음)하여 간혹 오성(吳姓)의 사람을 만나거든 그 족보를 보며 질의(質疑)할 것이요 혹은 문의(文義) 땅을 지나거든 그 사는 곳을 찾아 토론하여 누계(漏系)된 곳을 이어 고치고 닦아서 족보를 완전하게 하면 조상을 빛내고 후손을 복되게 하는 공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후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2)〉

그리고 時鼎 선조님께서서는 吳氏來東文蹟記의 말미에서, “古今文蹟과 見聞한바에 따라 나의 의견을 부쳐 우리 吳氏 기록이 참으로 그러한가의 의문점을 傳하니 공손히 후곤(후손)들이 다시 公私文蹟에 考證을 더하여 위로는 선조의 漏系를 잇고 아래로는 자손의 뒤에 출생한 이를 기록하여 계속하여 新譜 만들기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 〈정묘보〉 범례 제25항에서도,

“吳氏來東文籍에서 4가지 내용(오윤보지석기, 보성오씨족보서문, 오상옥족보서문, 기타오씨유전문자)을 볼 수 있으나, 모두 그것들이 진실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종중의 世系로 傳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윤보지석기와 오상옥서문의 요점을 모아 훗날 참고할 수 있도록 책머리에 올려놓았다.(吳氏來東文籍得見四樣 而皆未知其眞的 亦非吾宗世系之傳 故撮其要吳潤寶誌石記及吳相玉序文 語騰書卷首 以備後考)”라고 쓰셨다.

● 아울러, 나주오씨족보 〈정묘보〉에 실린 ‘吳氏來東文蹟記’는 정묘보 서문을 쓰고 정묘보 발행을 주관한 竹軒公 時鼎 선조님의 글인데, 成根 · 恒植 兩人은 “修譜하신 이산현감 諱大經祖의 遺文입니다.”라고 잘못 기록했다. (증보판 전편 35면 게재)

(5) 新羅吳氏

나주오씨 족보 유실 및 부집사적기 중 태인공 希吉의 所記에 나주오씨 선조는 본시 나주 중흥리에서 살았고, 신라조에서 벼슬한 신라오씨 선조는 김부왕의 부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6면 게재)

● 泰仁公希吉所記를 살펴보면,

“나주는 바로 변한의 땅인데 진한으로 들어갔고, 뒤에 다시 백제의 땅이 되어 신라에 합해진 것이다. 오씨의 선조는 김부왕의 부마가 됨에 이르렀으니 김부왕은 바로 신라의 경순왕이다(羅州 卽弁韓地 而入于辰韓 後爲百濟地 而合于新羅 吳氏先 至爲金傅王駙馬 金傅王 卽新羅敬順王也)”로 되어 있다.

원문을 번역하면서 ‘而合于新羅’ 다음에 ‘吳氏先’과 끊지 않고 붙여서 ‘新羅吳氏’라고 잘못 번역함으로써 新羅吳氏가 생겨났다.

(6) 金傅王의 駙馬說

신라조에서 벼슬한 신라오씨 선조는 김부왕의 부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高麗太祖 國舅인 多憐君의 訛傳이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6면 게재)

● ‘신라조에 吳氏 선조가 金傅王의 부마(임금의 사위)가 되었다’는 기록과 ‘고려조에 吳氏 선조 多憐君이 고려 태조의 국구(임금의 장인)가 되었다’는 기록은 사실이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金傅王 駙馬說이 와전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史實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 참고로, ‘金傅王 駙馬說’과 관련하여, 李奎報(1168-1241)가 지은 〈東國李相國集〉 제5권 고을 시편에 실린 “차운 오동각세문世文 정고원제학사 삼백운시 병서(次韻 吳東閣世文 呈誥院諸學士 三百韻詩 并序)” 즉 李奎報가 1195년 吳世文에게 次韻 · 和答하여 보낸 시에서 東閣 吳世文(1130-1219, 본관 고창)이 신라왕의 외손으로 東都(慶州)에서 살았다는 고문헌의 내용으로 볼 때, 吳氏 선조 중에 신라조에서 金傅王의 駙馬가 되었다는 것이 허튼소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吳世文의 동생 吳世才(1133-1195)도 말년에 先代의 외가인 慶州에서 우거(寓居 :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부처 삶)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한다.

(7) 莊和王后 祖父(多憐君 父)의 諱字 ‘富純’

오씨는 곧 장화왕후이며 그父는 多憐君이요 그母는 德交이며 그祖는 富純(부순)이라 기록하고 있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6면 게재)

● 多憐君 부친의 諱字는,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 후비열전 장화왕후편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불우 흥룡사편 및 <정묘보> 이산현감 大經所錄에서도 “富純(부순)”으로 실려 있다.

또한, 1999년 참의공과 종중에서 발행한 <나주오씨세적> 166~167면에서도 “富純(부순)”이 정당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그러나, 시조비 碑文에는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大經所錄과 참의공과 종중에서 발행한 <나주오씨세적>과도 다르게 “富純(부순)”으로 잘못 기록했다.

(8) 始祖碑 立碑 門中

羅州吳氏叅議公宗中 謹豎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8면 게재)

● 나주오씨 시조비를 “羅州吳氏叅議公宗中”이 세운 것으로 시조비에 새겨넣었는데, 나주오씨 시조비를 세워야 한다는 當爲性이 있다면, 나주오씨 전체 문중의 이름으로 세우고 나주오씨 전체 종원들이 이를 크게 경축했어야 할 것이다.

시조비를 세우면 永遠한 것인데 시조비를 세우면서 어느 특정 한 문중만이 이 시조비를 세웠노라고 碑文에 새겨넣은 것은 독단적인 처사로 나주오씨 전체 문중으로부터 지지받을 수도 없음은 물론, 宗族 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사이다.

4. 기타 사항

(1) 『增補版 羅州吳氏世蹟』의 品格

『增補版 羅州吳氏世蹟』은,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이 多憐君을 羅州吳氏 始祖로 정립하고 전북 고창에 始祖碑를 건립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다음 (3)항~(5)항과 같이 내용상 많은 오류와 일방적인 주장 등이 실려 있으며, 공저자인 成根·恒植 兩人의 개인 감정이 실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 있는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고, 굳이 世蹟에 게재하지 않아도 될만한 小門中에 관한 내용까지도 게재하고 있으며, 다음 (2)항과 같이 190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羅州吳氏世蹟’이라는 책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이며, 이 책은 羅州吳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2) 世蹟에 개인정보 게재

나주오씨 종원은 물론 타 성씨, 전국 유명도서관,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는 『增補版 羅州吳氏世蹟』 214~224면에 실린 나주오씨 종친들을 포함하여 190명 정도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본인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이용하여 世蹟에 게재하였다.

참의공과 종중에서 2016년 11월 시조비 제막식 招請狀을 보낸 초청 대상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문중별로 분류하여 신고 있다. 이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招請狀을 받지도 못했다.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이 개인정보를 世蹟에 게재한 의도나 이유를 모르겠다.

참의공과 종중은 시조비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명만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참의공과 종중이 招請狀을 보낸 것처럼 종원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까지 본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하여 世蹟에 게재하는 한 것은 너무 무례한 일이다.

제막식 행사 사진에서 참석자를 확인해 보면, 참석자 40여 명 중 참의공과 종원을 제외하면 기타 나주오씨 종친은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

成根·恒植 兩人은 이러한 사정을 호도할 목적으로, 이 책에 제막식 행사 초청 대상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까지 실어놓고, 마치 나주오씨 각 문중과 종원들이 나주오씨 始祖碑 건립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악용했다.

(3) 世代未明의 祖上 관련

① 命福祖 家火로 系牒 燒失 관련

나주에서 발상하여 오랜 세월 크게 번영을 이루던 나주오씨는 1550년 전후 일순의 화마로 700여 년을 전수해오던 계첩이 소실되어 始祖 이하 선대의 諱字를 상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시조비 碑文, 증보판 전편 15면 게재)

吾門의 비운과 후손들의 불찰로 始原과 世系를 기록하여 傳受하는 系牒(家乘)을 六世 諱命福祖께서 베끼려고 빌려갔다가 서기 1550년 전후 家火로 燒失하였다. 그로 인하여 始祖 以下 世代未明은 諱字라도 있는데 世代未明 諱光佐 以後~중랑장 諱偃의 中間에 失傳世代가 또 있으므로 족보에 子字世系를 하지 못하고 一世後孫偃으로 世系하였다.

(증보판 전편 32면 게재)

(起世祖 中郎將 諱偃 追慕記)

羅州吳氏 起一世祖 中郎將 諱偃祖께 後孫宗末等이 敢히 告하나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六世 命福家의 화재로 系牒을 燒失하여 선세누대(先世漏代)의 祖上 諱字와 행장(行狀) 및 묘갈명(墓碣銘) 등의 기록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궁금하고 답답함을 어찌 다 말씀 올리겠습니까? (증보판 전편 34면 게재)

- 〈정묘보〉 내한공 希道所錄에 의하면, 羅州吳氏 系牒은 錦陽君 吳謙(1496~1582) 선조님이 南平縣監으로 계실 때(1530년경으로 추정) 習讀公 命福 선조님이 빌려가서 家火로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系牒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命福 선조님이 가화로 系牒을 소실함으로써, 선세누대의 조상 휘자와 행장 및 묘갈명 등의 기록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기록해선 안 된다. 과연 위의 기록은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考證이 필요하다.

- 錦陽君 遺書 중 羅州吳氏 遠祖에 대한 遺記 및 追錄에는, 羅州吳氏 관련 先世族系 紛失에 관한 사항은 全無하고, 中郎將公 諱偃 선조님 위로는 전혀 모르셔서, 鄉中 舊老들의 口傳에 의거 김부왕(경순왕) 사위인 선조님에 관한 기록과 高麗中葉人 吳淑珪 선조님과 아들 諱慶

延, 그 아들 諱光佐 선조님을 찾아낸 기록만을 남기셨을 뿐, 가화로 인한 系牒 소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일체 없다.

● 또한 七松公 吳訥(1507~1559) 선조님께서도 立張族譜를 작성하여 傳하면서 그 귀중하게 가문에 전해 내려온 족계 소실에 대하여는 왜 기록하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남는다.

● 만약 잃어버린 系牒에 역사적인 인물인 多憐君 및 莊和王后가 族系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분들이 우리 가문의 直系先祖라고 소상하게 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始原과 世系를 기록하여 傳受하는 系牒이 소실되었을지라도, 만약 잃어버린 系牒에 우리 나주오씨의 시조와 1세조 吳偃 선조님의 부친, 그밖에 나주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多憐君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특히 다려군인 우리 오문의 直系先祖(直脈)인지 여부가 틀림없이 우리 가문에 알려졌을 것인데, 錦陽君(吳謙), 七松公(吳訥), 庶尹公(吳諤) 및 習讀公(吳命福) 선조님들께서 소실된 족계에 기록된 최소한 몇 분의 선조님도 기억을 못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아마도 역사적인 인물인 多憐君과 莊和王后는 잃어버린 系牒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선조님들이 작성한 家牒에 多憐君과 莊和王后에 대한 기록이 全無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정묘보>의 ‘富純·多憐君·莊和王后’ 기록 관련

나주오씨는 서기 1747년 발행한 丁卯譜에 우리 조상 祖富純 子多憐君 孫莊和王后 기록을 선명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증보판 전편 32면 게재)

●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譜系에는 富純, 多憐君, 莊和王后가 우리 나주오씨 조상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산현감 大經所錄에는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을 출전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우리나라 오씨는 모두 한 할아버지의 후손임을 전제로 오씨가문에서 나온 최초의 역사적 인물인 莊和王后의 기록을 정묘보 상권 문헌편에 “高麗太祖 莊和王后吳氏 祖富純(부돈) 父多憐君”이라고 실었다.

③ 吳氏의 羅州 世居 始期 관련

나주오씨는 三韓初부터 나주 世居한 토호족(土豪族)인 반면에... (증보판 전편 32면 게재)

- 나주오씨족보에는 나주오씨가 三韓初부터 나주에 세거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묘보> 범례의 첫째항에는 ‘吳氏는 三韓初부터 大族이었다’는 기록은 실려 있다.

고려 왕조 정사인 <고려사> 후비열전편에 장화왕후 오씨는 대대로 나주의 목포(현재 영산포 일원)에서 살아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씨는 삼한 초(서기 900년경) 이전부터 대대로 나주의 목포(현재 영산포 일원)에서 살아왔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三韓은 後三韓, 즉 後三國을 말한다.

- ★“3. 羅州吳氏 始祖碑 碑文 내용의 오류 등에 대하여” 중 “(3). 吳氏의 羅州 世居 始期”
(본호 46~47면 참조)

(4) 起世祖 中郎將 諱偃 追慕記 관련

① 정묘보 進士卓眞派 初疊 註記 관련

나주오씨 舊三譜를 보면, 중랑장 諱偃 子 進士卓眞 중랑장 예빈시정(禮賓寺正) 諱季眞은兄弟인데 피차가승(彼此家乘)에 넣은 곳과 兄弟의 諱자를 써놓지 않아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며 숙형숙제(孰兄孰弟)라 하였고… (증보판 전편 34~35면 게재)

- “넣은 곳과 형제의 諱字가 쓰여 있으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판별이 가능할까요? 丁卯譜에는 1세 휘 언祖 아들로서 휘 계진祖 및 휘 탁진祖(各錄)의 諱字가 다 쓰여 있다.

그리고 丁卯譜 下卷 進士卓眞派 初疊에 ‘이 파는 중랑장 諱偃 子 季眞 형제인데 始分하고 兵火로 失譜한 후 피차의 사승(私乘)에 生之派 不書로 백중지서(伯仲之序) 숙형숙제(孰兄孰弟)라 하였으므로… (증보판 전편 35면 게재)

- <정묘보> 탁진파 초첩 주기(註記)를 번역하면서, 위와 같이 漢文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번역을 해 놓았다.

(丁卯譜 進士卓眞派 初疊 註記)

이 派는 中郎將 諱偃으로부터 아들 季眞과 兄弟로 처음 나누어졌으나, 兵火로 인하여 譜牒을 잃어버린 후, 彼此 私乘에는 다만 자기들이 낳은 자손들의 파만을 기록하였고 탁진·계진

간 伯仲의 次序는 쓰여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금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가려내기 곤란하므로 이에 각각 기록한다.

(此派 自中郎將諱偃 子季眞兄弟始分 而兵火失譜之後 彼此私乘 只書其所生之派 不書其伯仲之序 孰兄孰弟 今難卞別 茲以各錄焉)

② 司正公 諱敬眞祖 관련

1941년 辛巳譜부터 進士卓眞을 長子로 中郎將 季眞을 次子로 司正公 敬眞을 三子 막내로 定立하였습니다. (증보판 전편 35면 게재)

- 1941년 〈辛巳譜〉修譜시 司正公 諱敬眞祖를 三子 막내로 기록한 사실이 없고, 司正公派는 별도로 “後孫 敬眞祖”부터 등재되어 있다.

③ 〈吳氏來東文蹟記〉作成 先祖 관련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① 修譜하신 이산현감 諱大經祖의 遺文.

오씨래동문적기 말미에... (증보판 전편 35면 게재)

- 〈吳氏來東文蹟記〉는 竹軒公 諱時鼎 선조님의 글인데, 이산현감 諱大經 선조님의 遺文이라고 잘못 기록했다.

★ 증보판 후편 226면에서도, 〈吳氏來東文蹟記〉를 이산현감 大經 謹跋 기록으로 잘못 기록했다.

★ “3. 羅州吳氏 始祖碑 碑文 내용의 오류 등에 대하여” 중 “(4). 吳氏來東文蹟記”

(본호 47~49면 참조)

④ 〈개성왕씨족보〉의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 고증 관련

③ 정묘보 수보 선조들은 개성왕씨 문헌을 고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성왕씨는 이조창업으로... (증보판 전편 36면 게재)

④ 종말들은 선조들의 유문(遺文)을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종말 成根·恒植은 나주오씨 舊三譜(丁卯譜·庚午譜·壬辰譜)를 근간(根幹)으로 始祖를 정립한 참고문헌 正史와 非正史 文獻 등을 발췌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대조대비(對照對比)하고 확인고증(確認考證)하여 2016년 1월 일 上祖 諱富純의 子 多憐君을 羅州吳氏 始祖로 定立하여 2016년 10월 5일 시조비를... (증보판 전편 36면 게재)

● 1797년 발행한 <개성왕씨족보> 제1권 고려성원록 중 후비열전편은 고려 왕조 正史인 <고려사> 후비열전편을 원본으로 하여 修譜한 것이다.

● 1747년 정묘보 수보 선조들은 <정묘보> 修譜시 <고려사> 후비열전편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불우 홍릉사편을 확인하고 “莊和王后吳氏 祖富純 父多憐君”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大經所錄), 多憐君이 나주오씨족보 譜系상 首先인 진사공 吳淑珪 선조님과 起世祖 吳偃 선조님의 直系血族(直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정묘보 발문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조 요망.

★ “1. 참의공과 종중의 羅州吳氏 始祖 정립과 관련하여” (본호 37~42면 참조)

★ “3. 羅州吳氏 始祖碑 碑文 내용의 오류 등에 대하여” 중

“(1). 成根·恒植 兩人的 <고려사>·<개성왕씨족보> 考證 주장에 대하여”(본호 43~45면 참조))

⑤ 2016년 대종회 종사연구위원회 개최 관련

나주오씨 대종회장 根篁씨와 종사연구위원장 鍾滿씨가 始祖 定立, 始祖碑 建立, 建立場所를 놓고 맹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철거 운운하며 2016.10.22.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증보판 전편 37면 게재)

● 1999.12.5. 창립한 대종회가 문중을 위해 한 일들입니다.

4. 2016.10.22. 대종회가 종사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나주오씨 시조비」 설치 문제점 정리라는 의제로 시조비를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증보판 전편 38면 게재).

● 羅州吳氏大宗會가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의 나주오씨 始祖 정립과 나주오씨 始祖 碑 건립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始祖碑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羅州 吳氏大宗會의 임무이다.

● 우리 대종회는 참의공과 종중의 始祖碑 건립 사실을 2016년 10월 초 알게 되었다. 2016년 10월 9일 錦陽君 정향제 봉행 후 당일 행사에 참석한 서울 및 호남지역본부 임원·종무위원 18명이 금하재(錦霞齋)에서 오후 2시에 모여 始祖 정립과 始祖碑 건립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논의하고, 이어 지역본부별로 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리하여 호남지역본부는 2016.10.12., 서울지역본부는 2016.10.14. 각각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始祖 정립과 始祖碑 건립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2016.10.22. 대전에서 종사연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종회는 2016.10.22. 토요일 낮12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81 소재 ‘술밭집’에서 종사연구위원 8명, 집행부임원 7명, 초청임원 6명 등 총 21명이 참석(成根·恒植 兩人은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참함)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종사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始祖 정립과 始祖碑 건립의 부당성을 심층 토의한 결과, 始祖碑를 건립한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에게 나주오씨 始祖 정립과 始祖碑 건립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부당 건립된 始祖碑의 자진철거 조치를 즉각 엄중히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아울러 대종회 종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에게는 始祖碑 부당 건립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즉시 발송함은 물론, 대종회 홈페이지 및 대종보(2017년 3월 발행 제18호)에 게재하여 전체 종원들에게 始祖碑 부당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기로 결의하였다.

⑥ <한국성씨총감>의 나주오씨 시조 관련

[회의 요점]

④ 종말 등은 위 ❶번 諱大經(正: 時鼎)先祖遺文과 ❷번 諱時鼎謹序 遺文을 받들어 16년간 대종회와 대립하며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종회는 2005.3.30. 발행한 한국성씨총감(萬姓譜)에 나주오씨 시조를 吳淑珪로 왜곡하여 등재하여 놓고 종극적(終極的) 목표가 무엇인지 계속하여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대종회의 무지몽매함을 先世先祖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증보판 전편 37면 게재)

● 1999.12.5. 창립한 대종회가 문중을 위해 한 일들입니다.

2. 2005.3.30. 한국성씨총감(萬姓譜)에 나주오씨 시조를 吳淑珪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登載하였습니다. (증보판 전편 38면 게재)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

나주오씨는 이상과 같이 나주오씨세보를 五回 수보 발행하였다.

보시다시피 始祖 기록이 한 곳도 없다.

○ 그런데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장이 2005.3.30. 발행한 한국성씨총감(萬姓譜)에 나주오씨세보에 의하면 [시조는 고려 중엽에 진사를 지낸 오숙규이며] 중랑장을 역임한 언(僊)을 一世로 하여 선조들의 정착 世居地인 羅州를 本貫으로 삼아 世系하고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시조를 왜곡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宗末等은 大宗會의 종극적(終極的)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증보판 후편 233면 게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주오씨는 1747년 정묘보 修譜시 吳淑珪 선조님을 譜系에 首先으로 등재하였으나, 이분이 고려 중엽인이므로 이분 위로 훌륭한 명현달관 선조님들이 틀림없이 계시겠지만 世代와 名諱를 알 수 없어 ‘始祖’라는 두 글자를 쓰지 못하고 ‘이름’만을 적었다.

또, 1810년 경오보 修譜시에는 舊譜와 같이 吳淑珪 선조님을 譜系에 首先으로 등재하였지만, 문헌(계첩)을 잃어버려 始祖 이하 上系 名諱가 전해지지 않아, 首先 인물인 吳淑珪 선조님을 ‘中祖’라고 적었다.

타 姓氏라면 이러한 경우, 대부분 譜系상 首先 인물을 ‘始祖’로 정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주오씨 修譜 선조님들께서는 吳淑珪 선조님 위로 훌륭한 명현달관 선조님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나 감히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밝혀진 인물만을 始祖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밝혀지지 아니한 선조님에 대한 예의가 남달랐던 것 같다.

● 우리 나주오씨 족보에서 譜系상 首先인 吳淑珪 선조님을 ‘中祖’로 정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타 姓氏에게 알릴 때 나주오씨 譜系상 首先 인물인 吳淑珪 선조님을 ‘始祖’로 칭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인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씨 소개 책자들은 중조 吳淑珪 선조님 또는 후손 1世 吳僊 선조님을 나주오씨 시조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成根·恒植 兩人的 주장처럼 나주오씨

는 시조를 알지 못하여 중조 吳淑珪 선조님을 譜系상 首先으로 한다고 소개한 책자는 한 권도 없다.

또한 나주오씨 족보의 문헌편에 실린 행장 및 묘갈명 등에 오숙규 선조님을 시조라고 한 문헌은 성근 씨 직계 선조님의 묘표(墓表) 외 12건이나 된다.

● 대종회가 〈한국성씨총감〉에 吳淑珪 선조님을 시조로 올리고 多憐君 시조 정립을 반대한다고 해서, 成根·恒植 兩人은 대종회가 三君吳氏의 도시조 瞻을 나주오씨 시조로 정립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증보판 후편 234쪽 게재)하거나, 종말들이 수수방관하였으면 나주오씨 시원은 간곳없이 해주오씨 시조 瞻의 후손으로 전락되었겠다 싶어 감회가 새롭다고 주장(증보판 후편 249면 게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나주오씨대종회는 참의공과 종중과 成根·恒植 兩人이 일방적으로 시조 정립하는 것처럼 대종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우리 대종회가 시조 정립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체 나주오씨 문중의 합의와 동의를 선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종회의 종무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중대사안인 것이다.

2005년 발행한 〈한국성씨총감〉에 나주오씨 始祖를 吳淑珪로 올린 것을 始祖를 왜곡하였다고 成根·恒植 兩人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成根·恒植 兩人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多憐君을 나주오씨 始祖로 예정하고 始祖碑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일 것이다.

● 中祖 吳淑珪 선조님은 나주오씨족보 譜系에 始譜之祖로서 首先이시므로, 대외적으로 羅州吳氏 始祖로 호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보학 이론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시 성씨총연합회 白某 회장과 〈한국성씨총감〉 책자의 편집 주관을 맡은 洪某 이사 등 한국 보학 권위자들도 동일한 의견을 주었다.

[註] 나주오씨의 본관에 대하여 : ‘첨부자료 1(본호 70~72면) 참고.

⑦ 금정 오용근 공적비 관련

● 1999.12.5. 창립한 대종회가 문중을 위해 한 일들입니다.

3. 2008.3. 0일 나성군신도비 이개수기설비를 철거 매몰하고 그 자리에 용근 씨 공적비를 귀부이수비(용머리 거북좌대)를 신도비 곁에 세워 신도비와 겨루고 있어 어떤 것이 신도비고, 공적비인지 잘 모릅니다. (증보판 전편 38면 게재)

※ 나성군신도비 이개수기실비를 철거한 자리에는 ‘나성군신도비 건립 연혁’을 새긴 석조물이 세워져 있다.

(諱穎達墓 追慕記)

羅城君은 兵曹參判 堂上官 從二品 贈吏曹判書(正二品) 벼슬을 하여 귀부이수비를 세운 것인데, 用根氏 區議員을 羅城君 官職과 同級으로 귀부이수비로 곁에 세워 관직을 겨루기라도 하듯이 立碑한 사람이 대종회장 根潼氏 종무원장 鍾滿氏 당사자 用根氏 三人입니다.

(증보판 전편 43면 게재)

※ 조선시대에 세운 나성군신도비는 당시 법도에 따라 2기 모두 갓머리 비석이다. 거북 받침대에 용머리(귀부이수) 비석은 국왕 비석에 해당된다. 현재는 비석 모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따라서 2006년에 세운 신도비 번역비는 귀부이수 모형으로 했고, 용근 씨 공적비도 현재의 관례에 따라 귀부이수 모형으로 했으나, 신도비 기단 아래에 규격이 작은 것으로 세워 나성군 선조님께 불경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주오씨대종회는 통치권을 가진 것처럼 小宗會(小派)를 통치하고 있다. 그 사례는 2005~2008년 나성군 소종중사 나성군신도비 이개수(移改豎)에 따른 제막식 사건과 기실비를 철거 매몰한 사건이다. (증보판 후편 237면 게재)

※ 나성군 선조님 15세손 故 용근 님은 헌성금 35,000,000원 외에도 여러 숭조사업을 하시었기에 종종 후손들은 그 분의 공적을 마땅히 기리어야 한다.

4. 오종만씨는:

2) 용근 씨가 헌성금으로 35,000,000원을 공사비를 지출한 일 이외는 달리 공훈(功勳)한 일이 없는데, 전 대종회장 근동씨를 부추겨 나성군신도비와 똑같은 모형 용머리 거북이 좌대로 신도비 곁에 공적비를 세웠다. (증보판 후편 249면 게재)

〈故 금정 오용근 님 숭조사업 공적사항〉

● 1855년경 맨 처음 세워진 구 신도비(李教寅 선생이 비문 지음)가 오랜 세월 풍우로 글씨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故 금정(錦亭) 용근(用根) 님은 그의 나이 35세인 1973년 10월

에 신도비 건립비 전액을 혼자 부담하여 다시 새로운 신도비를 개수(改豎)하신 바 있다.

그리고 3기(基)의 신·구 신도비(1913년 세워진 宋秉璿 선생이 비문을 지은 구 신도비 포함)가 인근 다른 장소에 각각 따로 세워져 있어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고, 모두 한문체의 비문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故 用根 님은 2006년 사업비 3,500여 만 원을 전액 부담하여 현 위치에 3기의 신·구 신도비를 이설(移設)함과 동시에 한글 번역비를 새로 건립하셨고, 羅城君宗中은 2006.4.13.(음 3.16) 나성군 시제일에 원당선영에서 15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시제 봉행 후 3기 신도비 이설(移設)과 한글 번역비를 새로 건립하는 제막식 행사를 하였다.

이어서 羅城君宗中은 2007.9.30. 산하 13개 문중의 대표들이 모여 “원당선영보수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문중에서 200만 원씩 각출하여 도합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祠堂(1952년 후손 만선(萬善)님 헌금 건립) 보수와 齋室 뒤 축대 再築 및 大門 보수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때, 故 用根 님이 또다시 祠堂 新築費 3,000만원 헌금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羅城君宗中은 2008.1.27. 제2차 宗中會議를 개최하여 사당 신축 위치를 현 위치로 결정하고, 그 부지공사 및 계단 설치 등 토목공사비는 羅城君宗中에서 부담하고 故 用根 님이 2008년 祠堂 重建費 3,000만원을 헌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故 用根 님의 계속된 羅城君 위선사업 헌성에 감복하고 이를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羅城君宗中에서 故 用根 님의 功績碑를 건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羅城君 祠堂 신축공사를 마치고, 2008.4.21.(음 3.16) 원당선영 시제일에 120여 명의 후손들이 모여 시제 봉행 후 “원당선영보수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吳根潼) 주관으로 羅城君 祠堂 신축준공과 더불어 錦亭 吳用根 功績碑 제막식 행사를 하였다.



- [1] 구 나성군 신도비(조선 철종 6년, 1855년 건립, 李敎寅先生 撰)
- [2] 구 나성군 신도비(1913년 11월 건립, 宋秉璿先生 撰)
- [3] 신 나성군 신도비(1973년 10월 개수, 李敎寅先生 撰)
- [4] 신 나성군 신도비 한글번역비(2006년 4월 13일 건립, 宋秉璿先生 撰)
- [5] 나성군 신도비 건립연혁비(2008년 4월 21일 건립)
- [6] 금정 오용근 공적비(2008년 4월 21일 건립)

위와 같이 故 用根 님은 평생을 羅城君 위선사업에 헌신한 분으로 훌륭한 숭조정신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羅州吳門의 귀감이 되신 분인데, 成根 · 恒植 兩人은 ‘功績碑가 神道碑와 겨루고 있다’, ‘官職을 겨루기라도 한다’, ‘부당한 공적비는 대중회가 자초한 것이다’ 등 故人和 대중회에 대한 度가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다.

● 당초 神道碑의 壇 위에 세웠던 紀實碑는 사실상 용근 씨의 공적비인데도 나성군 선조님의 신도비 기단 위에 세워 놓은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문장 내용도 잘못되어 용근 씨가 마땅치 않게 여겨서 나성군 종중 결의로 기실비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는 ‘나성군신도비 건립 연혁’을 새긴 표지석이 세워졌고, 공적비는 壇 아래에 별도로 羅城君宗中에서 사당 중건사업 공적까지 포함하여 세운 것이며, 功績碑의 규모도 羅城君神道碑보다 크기가 작고 설치 위치가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다.

또한, 1973년 새로운 神道碑 개수, 2006년 신·구 神道碑 3기 이설 및 한글번역비 건립, 2008년 사당신축공사 등 사업은 羅城君宗中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2008년 功績碑 立碑는 羅城君 後孫들이 소요경비를 각출해서 추진한 羅城君宗中 사업이다. 그런데도 成根·恒植 兩人은 이러한 羅城君 위선사업을 大宗會의 사업이라고 호도하면서 大宗會를 맹비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5) 三世 叅議公 諱穎達墓 追慕記 관련

① 元堂山 墓所 倒葬 관련

元堂山은 羅城君 幽宅地입니다. 처음으로 모신 시장조(始葬祖)의 墓所인데 묘소 위로 후손들이 도장(倒葬)하여 불쌍사나운데 그것도 부족한지 用根氏 공적비문에 ‘羅州吳氏世葬地’로 선대 묘소가 성역화(聖域化)되었다고 하는데, 도장한 후손의 묘들이 어떻게 先代의 묘소

이며 그것이 어떻게 聖域化란 말입니까?

羅城君宗中을 비웃는 웃음거리이고 識者들이 보면 조소거리 可笑롭다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중회는 改善할 氣味를 보이지 않으며 羅城君 後孫들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先祖님께 숨기지 않고 간신배처럼 고자질하였습니다.

(증보판 전편 44면 및 후편 239면 게재)

● 元堂山은 五世 나성군(諱自治, 생졸년 미상), 六世 나원군(諱世勳, 1459-1514), 七世 금양군(諱謙, 1496-1582) 등 三君이 모셔져 있어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주오씨세장지로, 이곳을 성역화하려는 송조의 마음을 담아 용근님 공적비 비문에 이렇게 새겨있는 것일진대, 나성군 종중을 비웃는 웃음거리이고 조소거리라고 하는 등 불손한 언어를 사용하여 현조님들께 불경하였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역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주장들이 있지만, 이미 300~400년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의 대중회가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역장(逆葬)은 도장(倒葬)이라고도 하는데,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전국적으로 사대부들이 거부감없이 역장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역장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출발하였지만 17세기 중반까지도 성리학의 이념을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유교의 생활화가 본격화되면서 조선과 조선인들은 하나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 종법 질서가 발전하여 장자 상속 등 가족과 직결된 여러 가지 생활문화는 17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정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부터 역장을 금기시하게 된 것은 풍수학적인 이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 후기 생활양식(유교사상=효친사상)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전에는 다른 명문 가문에서도 역장을 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원래 풍수서에는 역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조상의 체백(體魄)을 보다 평안하게 모실 수 있는 명당자리에 조상을 모시는 것이 최선의 장례라 하였다.

역장에 대해서 불경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된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다. 이는 성리학적 위계질서가 역장을 풍수학상의 금기사향으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지금은 역장 풍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후손들이 선조의 역장에 대하여쟁론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불경이라 할 것이다. 다만, 조상님의 묘와 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 기존 묘역 경내에 붙여 쓴 것은 조선 중기 이전 및 이후를 막론하고 금기를 어긴 것이다.

〈17세기 중엽 이전 여러 유명 인물들의 逆葬 사례〉

- ◆ 황희(黃喜, 1363~1452) 정승과 그 증손의 묘
- ◆ 한명회(韓明澮, 1415~1487)와 그 부인의 묘
- ◆ 허백당(虛白堂) 정난중(鄭蘭宗, 1433~1489)과 그 아들들 및 손자의 묘
- ◆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그 부모 및 조부모의 묘
- ◆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와 그 부모(이원수 · 신사임당)의 묘
- ◆ 예학의 거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그 선조(7대 조모, 6대 조부, 5대 조부)의 묘
- ◆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1517~1578)과 그 아들의 묘
- ◆ 대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과 그 부모(성수침)의 묘
- ◆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형과 충무공 부모의 묘
- ◆ 대문장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와 그 부모의 묘
- ◆ 대학자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 선생과 그 부친의 묘
- ◆ 김익겸(金益兼, 1615~1637)과 그 부모(김반金槃)의 묘
- ◆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그 부와 조부의 묘
- ◆ 반남박씨(潘南朴氏) 시조 박응주(朴應珠)와 그 손자(박상충朴尙衷 1332 ~1375)의 묘

※ 위와 같이 조선 중기 이전에는 도장을 금기시하는 장례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데에 비롯된 결과이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조상 묘의 앞에 묘를 쓰려면 반드시 문중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뒷편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앞에 묘를 쓰는 것보다 덜 미안하게 여겼다(금양군 유서 참조).

(6) 吳瞻都始祖說 관련

오문의 대종회는 위작한 吳氏三十世系圖를 맹신하고 吳瞻을 나주오씨 시조로 하여 해주, 동북, 보성오씨를 망라한 대동보를 하려고 하므로, 종말(成根·恒植)들은 나주오씨의 뿌리 본연의 정체성을 수호하려고 대종회 임원직을 동반사퇴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종회와 대립하였으며 시조비를 건립하고 〈羅州吳氏 上系 諱季眞派 世蹟 發刊〉을 終刊으로 하면서...(증보판 후편 232면 게재)

● 나주오씨대종회가 吳氏三十世系圖를 맹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허위 주장이다. 대종회가 三十世系圖를 나주오씨 선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대종회의 입장은 상계문제에 관한 한 5차 족보 수보에 이르기까지 선조님들이 남겨주신 족보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수차례 걸쳐서 표명하고 지켜온 것이 사실이다.

成根·恒植 兩人이 吳瞻을 나주오씨 시조로 하여 해주, 동북, 보성오씨를 망라한 대동보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해주오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주오씨 京派(吳仁裕系)는 吳瞻都始祖說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나주오씨의 경우에도 임원 및 종무위원 대부분은 족보상의 ‘오씨래동문적기’와 같이 吳瞻都始祖說을 여러 전설 중 하나로 여긴다. 대종회가 창립된 이후 대종회가 世系 논쟁으로 휩싸인 전후의 사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있었던 경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근원연구특별위원회(2000.12.02.~2002.09.08.)

대종회가 1999.12.05. 창립된 후, 2000.12.02. 근원연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당일 참석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및 인사를 하는 정도의 자리였고, 앞으로 위원회가 三十世系圖를 연구해보자는 정도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이후 더 이상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01.03. 위원장(오억근)이 인사말씀(증보판 후편 188~192면 참조)을 발송하여 世系再定立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2001.02.11. 춘계 종중회의에서 근원 연구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01.03.25.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는 나주오씨발현비, 나주오씨사적비, 30세계도에 관한 논의는 근원연구위원회에서하기로 하였고, 대동보(족보) 발간 및 대종회 기금조성에 관한 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억근 위원장은 2001.04.01. <나주오씨상고선조연구>라는 소책자를 발행·배포하였다. 2001.05.26. 대종회 임원회의에서는 당분간 족보발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2002.03.24.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에 오춘수 님이 추대되었고, 제3호 대종보에는 ‘특집’으로 <상계연구> “不事二君 諱卓眞祖 30世系圖”가 게재되었고, 오억근 위원장의 기고 글 ‘나주오씨 수난사’가 실렸다.

이 제3호 대종보로 인하여 대종회는 내용에 휩싸였다. 2002.05.17. 호남지역 임원연석회의에서는 ‘나주오씨 수난사’ 필자인 오억근 위원장의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 설명서가 낭독되었다.

2002.05.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소재 <금호식당>에서 계진조 후손 60여 명이 참석하여 ‘오씨30세계도’와 대종보 제3호에 게재된 ‘나주오씨 수난사’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계진조 후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① 오씨30세계도는 현재 그 작성자와 내용의 진위를 고증할 수 없으므로 이 자료에 의하여 나주오씨 상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한다. ② 나주오씨대종보 제3호에 게재된 ‘나주오씨 수난사’라는 제목의 글은 계진조를 위시한 조상님들의 행적을 지어내거나 왜곡 기술하여 그 인품을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이 종보를 그대로 방치하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 및 편집인 등의 사과와 게재취소 및 삭제하도록 모든 종친들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히 시정조치할 것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인 오억근 위원장은 2002.05.23. 서울지역 임원연석회의에서 해명서(‘수난사’ 글에 대한 설명서 : 제4호 대종보 103~104쪽 게재. 2002.09.08. 2차 종중회의에서 일부 종원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4호 대종보에 반영기로 결의하였음)를 낭독하고 사과하였다.

오근창 수석부회장과 오억근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2.09.08. 2차 종중회의에서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원연구특별위원회도 자동 해체되었다.

● 3대 오근동 대종회장 취임과 世系 논쟁 자제 당부

2004.03.28.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3대 오근동 회장이 취임하였다.

2005.09.25. 2005년도 제2차 종무회의에서 오근동 회장은, “최근 대종회의 안팎에서 제기된 世系 논쟁에 대하여, 모든 종원이 대종회의 화합 차원에서 나주오씨 족보에 수록된 세계와 다른 내용을 거론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그 후 대종회에서는 더 이상 世系 논쟁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성근·항식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침을 시조로 하는 나주오씨 보계 변경이 됐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이다.

(7) 나주오씨대종회 20년 발자취

● 成根·恒植 兩人은 대종회 창립 이후 20년 동안 대종회 운영에는 비협조적이면서, 자기 개인들의 목적을 위하여 대종회 운영에 불평·비난하고 대종회와는 무관한 일까지도 사사건건 대립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많은 글을 『增補版 羅州吳氏世蹟』에 게재하여 일가 간의 화목을 저해하려 함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오씨대종회는 2019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대종회는 20년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또 대종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했다고 본다.

이는 그동안 대종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협조하여 주신 종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종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宗事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종회는 창립 이후 각종 행사 개최, 대종보 발간,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회원명부 작성·배포, 장학금 지급, 효행상 수여, 장년회의 어버이날 행사, 오수산악회와 오성산악회의 산행 활동 등 많은 대종회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 대종회가 수행한 각종 행사와 구체적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종회 창립 20주년 / 사진으로 보는 대종회 20년사(화보)

☞ 2019년 3월, 제20호 대종보 18~40쪽 참조

● 나주오문의 자긍심, 꿈과 희망을 준 대종회 20년

☞ 2019년 3월, 제20호 대종보 41~57쪽 참조

[1] 매년 정기총회 개최

- 각 문중별로 돌아가면서 총회 주관(송조 애종의식 선양)
- 1999.12.05. 창립총회~ 2019년 정기총회<21회 개최>

[2] 매년 종무회의 개최

- 2000.03.12. 2000년 춘계종중회의~ 2019.02.10. 종무회의<31회 개최>

[3] 종사연구위원회 개최

- 2008.12.22. 발족 모임~2016.10.22. 위원회 회의<6회 개최>

[4] 매년 나주(금성)오씨대종보 발간

- 2000.05.28. 창간호~2019년 3월 제20호<20회 발간>

[5] 나주오씨족보 복사본 제작·배포(2005.12.16.)

— 경오보 10질, 임진보 11질, 신사보 37질, 신유보 70질

[6]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및 보존처리 후 국가에 기증

—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받아 보존처리전문업체(고창문화재보존)에서 약 2년간(2015.07.31.~2017. 07.27.) 보존처리를 완료한 후, 2017.11.16. 국가(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였다.

— 오자치초상 특별전시회: 2019.05.28.~2019.06.30.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

— 오자치초상 학술강연회: 2019.06.03.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7] 대중회 부동산 취득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현 대중회 사무실, 2000.07.20. 8,541만원)

— 전남 나주시 송월동 소재 임야 2,000평(2002.06.10. 5,631만원)

[8] 가족관계등록부 본관 정정(錦城 → 羅州) 추진(1999.12.28.~)

[9] 대중회 홈페이지 개설(2002.05.10.), 대중회 블로그(네이버) 개설(2019.09.29.)

— 전자족보시스템(DB) 구축, 신유보 서책 족보(5권) 열람 가능,

대중보 창간호부터 열람 가능, 대중회 각종 소식 등 열람 가능.

[10] 대중회, 나주시 주최 “2005 영산강문화축제” 제2회 팔도성씨박람회 참가(2005.10.13.~10.16.)

— 각 파문중에서 제출한 문중 자료를 근거로 나주오씨 가문의 유래 및 주요 인물정보가 판넬로 제작되어 전시관 부스 안에 게시·소개되었음.

[11] 나주오씨 회원명부 작성·배포(2005.03.27.)

— 2005.03.27. 현재 총 2,176명 수록

[12] 「한국의 명가-나주본관편」에 나주오문을 빛낸 인물 20인 소개(2006년)

— “2005년 영산강문화축제” 제2회 팔도성씨박람회에서 전시된 자료를 정리하여 족보학 전문연구소(소장 양권승)에서 「한국의 명가(나주본관편)」을 발행·배포하였음.

— 나주오씨 가문 유래 및 나성군 오자치 등 20인의 선조 수록

[13] 매년 장학금 지급(2019년~)

[14] 매년 효행상 수여(2005년~)

[15] 〈장년회〉 어버이날 행사 주관(2001년~2004년, 4회 실시)

[16] 〈오수산악회(서울)〉, 〈오성산악회(광주)〉 산행 활동

羅州吳氏의 本貫에 대하여

□ 고려시대의 本貫

●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시기에 있어서 本貫은 현재 居住地였다. 때문에 고려 초기에 있어 本貫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그들이 本貫에 居住한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하겠다.

고려 초기 本貫이 가지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당시 本貫의 기재양식이 당시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姓과의 결합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龍宮郡人(「金存中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인종 10년, 1132)
— 金存中 → 龍宮金氏의 始祖
- 耽津縣人(「崔思全墓誌銘」: 인종 18년, 1140)
— 崔思全 → 耽津崔氏의 始祖
- 興麗府人(「朴宗夏墓誌銘」: 인종 24년, 1146)
- 羅州光陽縣人(「金義元墓誌銘」: 의종 7년, 1153)
— 金義元 → 光山金氏

중앙귀족들을 중심으로 本貫과 姓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本貫제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 土姓의 개념은 本貫과 관련시켜 姓貫 혹은 姓氏를 이해하기 보다는 姓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토박이 姓, 토착 姓으로 해석되는 보다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 고려 초기와는 달리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 本貫과 姓이 병칭(竝稱)되어 사용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관에 본래 붙어다니던 州府郡縣 등 지방제도의 명칭이 사라지고, 두 글자로써의 姓과 함께 표현되게 된다.

● 家系기록에 나타나는 변화는 고려 후기의 중앙귀족이 本貫을 姓과 병칭하여 사용하면서 누구의 후손, 어떤 가문, 즉 문벌을 드러내고자 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려 후기에 오늘날 族譜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고려 의종대의 묘지명에서 家錄, 家譜, 譜 등 世譜를 언급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려묘지명(高麗墓誌銘)”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亡者가 거주하였거나 亡者의 선조 出身地인 특정 州府郡縣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려시대 여러 성씨들은 현재의 本貫과는 다르게 다음의 지명을 그들의 出身地로 자주 표기한 사례도 있다.

李氏 →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있던 縣인 농서(隴西)

鄭氏 → 중국 하남성(河南城)에 있던 縣인 영양(滎陽) 또는 형양(滎陽)

尹氏 → 중국 감숙성(甘肅省) 동부에 있는 지명인 천수(天水)

金氏 → 중국 섬서성(陝西省) 장안현 서북쪽에 있던 縣인 경조(京兆)

吳氏 → 중국 하북성(河北省)에 있던 縣인 복양(濮陽)

〈例 : 오연충(해주오씨), 오세재(고창오씨)〉

崔氏 → 경상북도 포항에 있던 지명인 청하(淸河)

蔡氏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지명인 제양(濟陽)

따라서 위 김수태 교수의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고려시대 여러 성씨들이 묘지명에 亡者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새긴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吳氏의 本貫은 지금처럼 해주·보성·동북·나주·함양·군위·고창 등 다수의 貫派로 分貫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羅州吳氏의 本貫

고려 중엽인 中祖 吳淑珪 선조님의 후손 가문인 “羅州吳氏”는 언제부터 ‘羅州’ 本貫을 사용했을까?

나주오씨족보를 근거로 이를 살펴보면 예빈시정공 계진파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3세(참의공 諱穎達) 1가구, 4세 3형제 3가구, 5세 4촌 형제 6가구, 6세 6촌 형제 10가구로 한 집안 규모 정도이었고,

조선 중기에는 7세 8촌 형제 20여 가구에서 8세 10촌 30여 명의 자손으로 늘어나면서부터 7세 금양군(諱謙, 1496-1582), 칠송공(諱訥, 1507-1559), 서윤공(諱諤, 1511-1590) 등 3형제가 각각 家牒 작성을 시작하셨다.

금양군 기록의 한 구절에, “처음 세대는 아주 오래되었고, 후예들은 쇠퇴하고 미약하여 吳姓을 시작한 先祖를 자상하게 알지 못한다. 중랑장공(諱偃)과 예빈시정공(諱季眞) 두 분 선조님의 묘소가 이곳(나주 삼가리) 평지지원(平地之原)에 안장되어있어 우리 오씨가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셨다.

(※이 기록은 고려 중엽인 吳淑珪 선조님 이하 경연, 양수, 광좌 등 네 분 선조님을 찾아 내기 전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예빈시정공 오계진 선조님 후손들이 世居地인 ‘羅州’를 貫鄉 즉 本貫으로 호칭하게 된 것은 관직에 나가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시작한 3세 참의공(諱穎達) 선조님 이후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

后妃列傳 莊和王后篇 1451년

莊和王后吳氏羅州人祖富他父多憐君世家州之木浦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生后后嘗夢浦龍來入腹中驚覺以語父母共奇之未幾太祖以水軍將軍出鎮羅州泊舟木浦望見川上有五色雲氣至則后浣布太祖召幸之以側微不欲有娠宣于寢席后即吸之遂有娠生子是為惠宗面有席紋世謂之攝主常以水濯寢席又以大瓶貯水洗臂不厭眞龍子也年七歲太祖知有繼統之德

신증동국여지승람

羅州牧 佛宇 興龍寺篇 1530년

佛宇興龍寺 在羅江津北高麗太祖莊和王后吳氏相富他父多憐君世家州之木浦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生后后嘗夢浦龍來入腹中驚覺以語父母共異之未幾太祖以水軍將軍出鎮羅州泊舟木浦望見川上有五色雲氣至則后浣布太祖召幸之以側微不欲有娠宣于寢席后即吸之遂有娠生子是為惠宗面有席紋世謂之攝主其地建大寺曰興龍寺前有泉名浣絲泉諺云即吳氏浣布之泉○無名氏詩即慶東呼龍臺地王是賢妃舊所居九世將軍經富處三轉太子誕生間○

나주오씨족보 정묘보

大經所錄 1747년(1999년 정묘보 重刊譜 24·25면)

幸之以側微不欲有娠宣于寢席后即吸之遂有娠生子是為惠宗面有席紋世謂之攝主常以水濯寢席又以大瓶貯水洗臂不厭眞龍子也
高麗朝以吳珪除職辭謝隱德終身云吳珪疑即吳淑珪也 高麗太祖莊和王后吳氏祖富他父多憐君世家羅州之木浦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生后
大王 右二書金
錦城山在海南邊太姒家邦五百年 古尹紹
右諸條出麗史及興覽而今尼山倅大經所錄

개성왕씨족보 제1권

高麗聖源錄 中 后妃列傳篇 1797년

后妃列傳 中 興龍寺
神惠王后柳氏貞州人三重大臣天弓之女也天弓家大富邑人稱為長者太祖王將軍引兵爲貞州息馬古柳下后立路旁用土爲之可憐問汝誰氏女對曰此邑長者家女也請暫憩繫腰太祖因止宿焉其家養一軍其意以后侍寢厥後絕不相聞后守節不變爲太祖聞之召以爲夫人舉義提中寶成大業太祖十六年後唐明宗遣大僕卿王瓊等封后爲河東郡夫人
莊和王后羅州吳氏祖富他父多憐君世家州之木浦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生后多憐君龍來入腹中驚覺以語父母共奇之未幾太祖以水軍將軍出鎮羅州泊舟木浦望見川上有五色雲氣至則后浣布太祖召幸之以側微不欲有娠宣于寢席后則就而之遂有娠生子是為

대중회 공지사항

“본관本貫을 나주羅州로 통일합시다!”

현재 나주오씨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본관이 ‘나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금성錦城’으로 되어 있는 종친도 있습니다. 이는 나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따라서 나주오씨대중회에서는 본관을 ‘나주’로 통일(2003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관 ‘금성’을 ‘나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관 정정 구비서류

1. 기본증명서 1통 (前 호적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前 호적등본)
3. 제적등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동의 및 확인서(※자녀들이 작성)－동의자(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
7. 인우보증서 (※본관이 羅州인 종친 2인 작성)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8. 본관확인서 1통 (나주오씨대중회 발급)
9. 나주오씨족보 사본 1통(족보 표지, 본인 등재면, 발행사항 기재면 발체)
－나주오씨대중회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본관 정정 절차

－나주오씨대중보 2019년/제20호, 131~139쪽 참조.

□ 문의처

- ☎대중회사무실 전화 02-2275-5574, 팩스 02-563-5574
-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전화 062-375-5575
- ☎서울지역(오맹렬 법무사) 휴대폰 010-5229-9139
- ☎호남지역(오영란 법무사) 사무실 062-222-1472-4. 휴대폰 010-3610-3160

기증·기탁 특별전

‘조선의 공신’ 강연회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학술강연회'가 국립고궁박물관 주관으로 2019년 6월 3일(월)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의 「조선 세조 공신 : 적개 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 및 신재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의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미술사학계 교수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대중회에서는 오근성 대종회장을 비롯한 임원, 종무위원, 종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1. 「조선 세조 공신 :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

—김인규_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

2.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신재근_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조선 세조의 공신

-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 -



- I. 공신(功臣)이란?
- II. 세조대의 공신
- III. 적개공신 오자치(吳自怡)

김인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I 공신이란?

5. 공신의 대우

- (1) 공신을 군(君)으로 책봉하여 우대 예) 오자치→나성군(羅城君)
- (2) 가족: 부모는 품계 승격, 후손은 용서로 관직 진출
후손 병역은 충의위, 충순위에 소속되어 왕실 근위 역할
- (3) 경제혜택: 면세 토지 및 노비 지급
구사(丘史, 말울 운영), 반당(山部唐) 지급
- (4) 기타: 각종 증빙서, 초상화, 사당 건립(불천위 제사)
반역죄가 아니면 형탈을 채우지 않음

I 공신이란?

- 1. 정의: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 또는 칭호를 받은 사람
- 2. 연혁: 고려 초기부터 상세한 기록 등장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의 개국공신부터 영조의 분무공신까지 28번의 공신이 임명(6개의 공신 상훈은 삭제)
- 3. 성격: 개국(開國), 전쟁 또는 외교적 현안 해결, 왕의 즉위 및 호종 반란 진압 등
- 4. 종류
 - (1) 정훈공신: 직접 공을 세운 공신으로 등급에 따라 경제 혜택 다름
- 조선시대 정훈공신: 945명(1등 152, 2등 269, 3등 401, 4등 123)
 - (2) 원종공신: 정훈공신의 자제, 사위 및 왕을 모셨던 인물(음서, 사면, 특별승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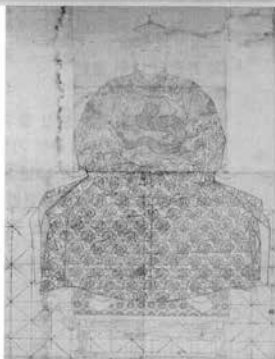
I 공신이란?

6. 임명 절차

- (1) 공신도감(임시기구)에서 대신과 상의하여 대상자 선정, 등급 결정
등급에 따른 포상(토지, 노비 등) 수준 결정
- (2) 공신에게 공신교서, 공신록권, 공신 초상화, 회맹록 등 하사(조선 중종 대까지 초상화 2부 제작하여 중종부에 1부 보관)
- (3) 공신회맹제
 - 왕과 신하가 짐승(소)을 잡아서 천지신명에게 제사하고 피를 마셔 단결 맹세
 -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서 실시(사방 20m, 높이 1m)
 -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불가

II 세조대의 공신

- 1. 정난공신: 단종 원년(1453)
 -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대신을 제거한 공로
 - 43명 책봉
 - 세조 집권 때 정치적인 실권 장악



III 적개공신 오자치

- 1. 오자치의 인물
 - (1) 본관이 나주 출신
 - (2) 관련 기록
 - 생몰연대, 무과 출신 등 기록은 없음
 - 조선왕조실록에 관련 기록이 19번 등장
 - 관련 자료는 세조 13년 5월 18일에 세조가 이시에 난 평정을 위해 출발하는 군대를 전송하는 기록에 처음 등장



II 세조대의 공신

- 2. 좌익공신: 세조 즉위년(1455)
 - 세조가 왕에 오르는데 공로가 있는 인물
 - 46명 책봉
 - 특징: 좌익공신의 주요 인물(15명)이 재 임명(문인이 대다수)
좌익공신보다 무인의 숫자가 감소
- 3. 적개공신: 세조 13년(1467)
 -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로
 - 45명 책봉
 - 특징: 중진 및 무인 증가

→ 세조 때 공신 책봉이 많았으며 정권 기반, 장기 집권

III 적개공신 오자치

- 1. 오자치의 인물
 - (3) 활동
 - 실록에 의하면 활을 잘 쓰고 술을 잘 마심
예) 성종 5년(1474)에 당상관 무인 20명 중 1등
1475년에는 3등으로 포상받음
 - 세조는 공신들과 467건의 술자리를 통하여 연대 유지
오자치도 이런 자리에 참석. 세조가 오자치에게 술조심 언급

III 적개공신 오자치

2. 이시애의 난(1467)

(1) 개요

- 이시애가 5월에 함경도 총사령관(강효문)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8월 12일에 처형당함
- 이시애는 함경도 길주의 호족 출신
- 경흥진 병마절제사(1458), 회령부사(1463) 역임

(2) 원인

- 세조의 중앙집권정책에 반발
- 당시 함경도는 1호(戶)에 수십 명으로 국역 부담이 적음
- 호패법으로 국역 부담 증가. 강효문이 함경도에서 횡포

III 적개공신 오자치

3. 오자치의 활동 및 평가

(1) 활동

- 평배(彭排) 부대를 이끌고 활약
- 평배: 태종 15년(1415)에 만들어진 병종(5,000명→1,000명 단위) 방패를 가진 정예병(특수 부대)

(2) 평가

- 적개공신 2등에 봉함
- 토벌군 지휘관 중 공신이 된 사람은 50%(33명→19명)
- 오자치가 속한 특수부대장 중 공신은 단 2명

➡ 오자치가 이시애 난 진압 과정에서 활약이 큼

III 적개공신 오자치

2. 이시애의 난(1467)

(3) 경과

- 이준(총사령관), 조속문(호조판서), 강순, 어유소, 남이 등이 43,0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어 함흥으로 진격
- 이시애는 6,000명의 병력으로 거산 부근에서 전투
- 패배하여 용산으로 이동 중 내부인에게 잡혀서 넘겨짐
- 토벌군이 이시애를 처형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1) 개요: 조선 건국 이후 6번째 공신(45명)

- 1등 공신: 이준(총사령관) 등 10명
- 2등 공신: 오자치 등 23명
- 3등 공신: 한계미 등 12명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2) 특징

- 종친 증가(3명) 예)이준(토벌군 총사령관)
- 문신이 정난공신(46.5%), 좌익공신(80.4%)보다 감소(11명, 24.4%)
- 문신의 평균 연령이 40세로 낮아짐
- 무신이 이전의 공신보다 증가

(3) 성격

- 세조는 종친 등을 통하여 왕권 강화 의도
- 문신은 세조대에 문과에 급제한 신진 세력으로 구 공신세력 견제
- 반란 진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공이 큰 무신 우대
- 문신 중심의 공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무신을 위로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5) 공신교서

- 오자치에게 하사한 공신 교서는 남아 있지 않음
- 세조 때의 공신 교서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적개공신 교서
- 적개공신 교서에는 공신 이름을 모두 적어서 유대감 강화
- 공신마다 교서에 공로에 대한 내용이 달리 기재
- 오자치의 공로 내용은 재략과 권용이 뛰어나며 반란 진압의 공이 큼
- 교서에는 발급 일년 전에 옥으로 만든 시명지보(壽命之寶)가 찍힘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4) 오자치에 대한 대우

- 반당 8명, 구사 5명, 토지 100결, 은 25냥, 옷 1벌, 내구마 1벌
- 관품 3급 제수, 초상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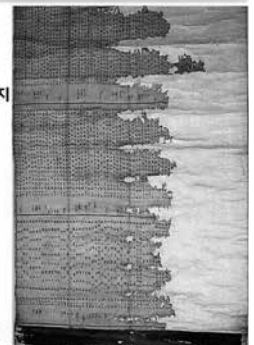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6) 회맹제

- 왕세자가 개국공신부터 적개공신까지 6공신 및 후손들을 데리고 1467년 10월 27일에 경복궁 복단에서 개최
- 예종 1년에 회맹록을 제작하여 참석자에게 줌
- 회맹록에 오자치의 둘째 아들인 오세익이 학생 신분으로 참석

장말은 유품(보물 제881-1호)



III 적개공신 오자치

4. 적개공신

(7) 국조공신록

- 개국공신부터 1728(영조 4)의 분무공신
까지 역대 공신 700여 명의 성명, 본관,
시호, 관직 등을 기록한 책
- 19세기 말 발행
- 오자치는 적장손으로 오운을 적시

宣 山	荳 原	牙 安	延 福	鷄 川	光 原	鐵 城	綾 陽
君沈	君具	君伊	君張	君孫	君金	君其	君金
君沈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具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伊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張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孫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金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其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君金 字子明 號子明 一子明 一子明

III 적개공신 오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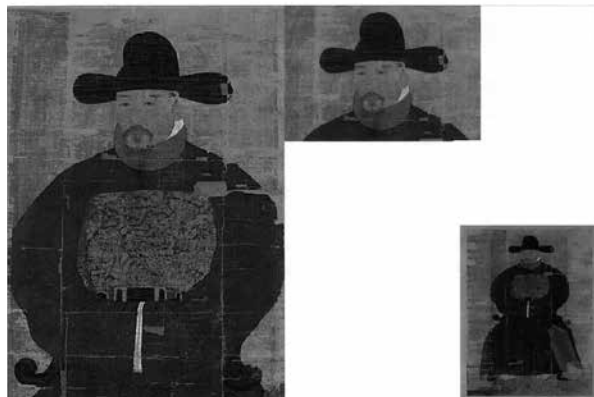
6. 오자치의 활동에 대한 평가

- (1)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병조참판까지 승진
(2) 당시 공신세력간의 정치적 갈등(남이, 강순 등 처단)에 휩싸이지 않고 성종대까지 성실히 활동하여 집안의 초석이 됨

III 적개공신 오자치

5. 공신 이후의 오자치의 주요 활동

- (1) 세조 13년(1467)에 태호군(중 3품의 5위 부지휘관)으로
홍성군 정준과 함께 평안도 군사 1,000명으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 함행
- 이시에 난과 건주위(여진족) 토벌 등으로 치안 불안하여 특별 임무
- (2) 성종 6년(1475) 평안도 국경 지역 안정을 위한 조전장 주천에
만장일치로 오자치 지명. 평안도 구령으로 파견
- (3) 성종 7년(1476)에 낙향하여 아버지 봉양한다 불금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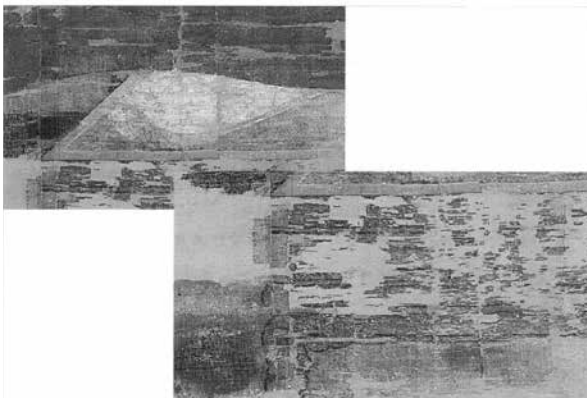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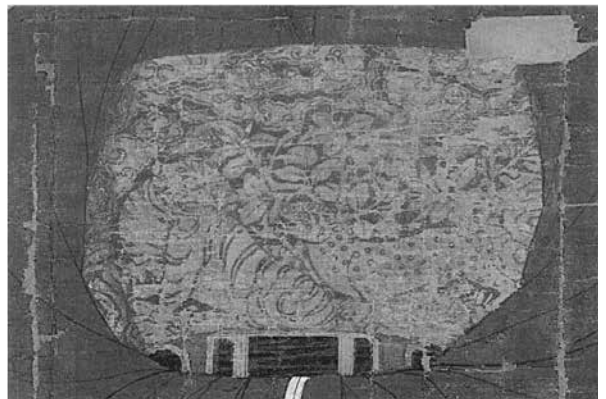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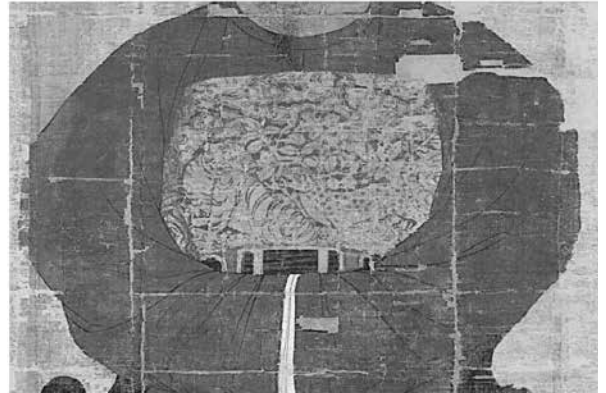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2019. 6. 3.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신재근



<오자치 초상>
1476년경, 비단에 채색,
238.2X127.0cm,
보물 제1190호



후원에 나아가 관사(觀射)하였다. 무신 당상관 허형손 등 20인이 과녁을
쏘았는데, 잘 쏜 오자치·조한신에게 각각 호피(虎皮) 1장을, 김진수에게
매를, 허형손·여의보에게 각각 화살[箭] 1부를 내려주었다.

- 『성종실록』 권45, 성종 5년(1474년) 7월 21일

후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많이 맞힌 자로서 조한신에게는
표피(豹皮) 1장, 조간에게는 호피(虎皮) 1장, 오자치에게는 늑피(鹿皮)
1장을 하사하였다.

-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1475년) 2월 5일



공신 호칭	연대	공적	인원수		
			1등	2등	3등
태무공신(태무공신)	1392년(태무 1년)	조선 개국	17	19	22
정미공신(정미공신)	1398년(정미 8월)	정미, 병진, 갑진 등 세지	12	17	-
의정공신(의정공신)	1400년(의정 1년)	의정, 신, 갑진 등 세지	9	9	12
정사공신(정사공신)	1405년(정사 1년)	정사, 갑진 등 세지	12	11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05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7	12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07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0	12	12
의정공신(의정공신)	1408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5	11	21
의정공신(의정공신)	1409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9	11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10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8	13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11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5	9	12
의정공신(의정공신)	1412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4	8	16
의정공신(의정공신)	1413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3	7	9
의정공신(의정공신)	1414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2	12	7
의정공신(의정공신)	1415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2	10	10
의정공신(의정공신)	1416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3	5	10
의정공신(의정공신)	1417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	2	2
의정공신(의정공신)	1418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0	17	10
의정공신(의정공신)	1419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5	15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20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2	5	4
의정공신(의정공신)	1421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2	12	10
의정공신(의정공신)	1422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0	15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23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3	9	20
의정공신(의정공신)	1424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	8	9
의정공신(의정공신)	1425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	5	6
의정공신(의정공신)	1426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4	2	1
의정공신(의정공신)	1427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2	4	2
의정공신(의정공신)	1428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	1	1
의정공신(의정공신)	1429년(의정 1년)	의정, 갑진 등 세지	1	7	7



<오자지 초상>



<정말은 초상>



<은소 초상>

立閣圖形 樹碑紀功

각을 세워 초상화를 그리고 비를 세워 그 공을 적는다



공신 초상화 제작

- 공신에 책록된 개인별로 초상화 2부 제작
- 1부는 당사자에게 주고 1부는 충훈부에서 보관
- 제작수량 예) 호성공신 총 86명 X 2부 = 172부
(1등: 2명, 2등: 31명, 3등: 53명)
- 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



전주 경기전



청덕궁 신선원전



<오자지 초상>
1476년경, 비단에 채색.
238.2X127.0cm,
보물 제1190호



<오자지 초상>, 1476년경, 적개공신



<이성운 초상>, 1613년경, 위성공신



15세기
<오자지 초상>

16세기
<이성운 초상>

18세기
<오재순 초상>

20세기
<최익현 초상>



적개공신
1467년

안우공신
1604년

보사공신
1680년

부우공신
17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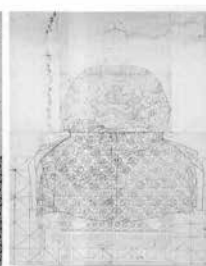
허조어전, 1872년
(모본 양식은 15세기 초 추정)



오자지 초상, 1476년경



1400년경



1469년 이전



1476년경



적개공신
1467년

안우공신
1604년

보사공신
1680년

부우공신
1728년

세조어전초본, 1935년
(모본 양식은 15세기 중엽 추정)



남평공南平公 오언후吳彦厚 선조님을 기리며

오종만_종사연구위원장



나주오씨 8세 오언후 선조님의 자字는 덕재德載이고, 아호 ‘남평’은 공
公께서 남평 고을 현감을 지내신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 4대봉군가문四代封君家門의 장손으로 태어나다

남평공의 고조부 오신중吳愼中 선조님은 진사進士로 증 이조참판 금
성군錦城君에 봉해지셨고,

증조부 오자치吳自治 선조님은 무과에 급제하여, 조선 세조 때에 이시
애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 병조참판 나성군
羅城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평襄平’공이시다.

조부 오세훈吳世勳 선조님은 진사에 급제하여 영천군수永川郡守 부
평부사富平府使 등을 역임하시고, 증 의정부 좌찬성 나원군羅原君에 봉
해지셨다.

부친 오겸吳謙 선조님은 문과에 급제하여 화려한 관직을 역임하셨으
니, 외직으로는 남원부사, 담양부사, 광주목사, 전주부윤, 경상도관찰사
를 역임하셨고, 중앙 요직으로는 사헌부 대사헌, 예조판서, 호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우찬성 및 좌찬성을 역임하고,
최종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정간貞簡’공이시다.

이렇듯 고조부부터 부친에 이르기까지 4대 봉군封君의 부귀한 가문에 장손으로 태어났음에도 가난하고 검소한 가문의 자제처럼 검약한 생활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정승 가문의 어진 자제”라고 칭송하였다.

□ 청렴 충직한 관리로 임지마다 공덕비가 세워지다

한편, 농부가 씨앗을 심어 가꾸듯이 학문을 배워 익히고 부녀자가 고운 베를 짜듯이 문장을 잘 지었음에도 과거에 응시할 뜻을 접고 음보蔭補로 벼슬길에 나아가 두루 산반散班을 거치면서 관직에 있을 때는 모든 직무에 전심전력하였다(種學績文 而屈於公車 以蔭調 周流散班 而皆盡職).

특히 사헌부司憲府에 재직시 호남어사湖南御史와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으로 재직시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옳고 그름을 잘 가리고 분석력이 뛰어났으며, 신중하고 올바르게 남을 공경하는 행실이 몸에 배어 모범 공직자로 평판이 자자하였다.

부친 우의정 금양군께서 은퇴하시어 나주羅州 광산廣山(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고향 마을로 돌아와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조宣祖 임금께서 평소 남평공의 효성을 알고 누차 지방 수령으로 발령하여 부친 금양군을 잘 봉양하도록 편리하게 해주었다.

이 때문에 남평공께서는 모든 임지마다 한결같이 청렴하고 충직한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직산현稷山縣(천안시 관내), 임피현臨陂縣(군산시 관내), 남평현南平縣(나주시 관내)에 모두 송덕비가 세워져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 온화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제가齊家의 본보기가 되다

남평현감 재직시 부친 금양군의 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친 이후로도 관직에 다시 나가지 않았으니 남평공이 4대 봉군 가문의 장손으로서 막중한 승중承重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인품이 후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고 올바른 뜻을 지녔기에 위로는 훌륭한 조상님들의 가훈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친족 간에 우애하여 가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무난하게 선처할 수 있었다.

특히 친동생(통사랑通仕郎 오언관吳彦寬)은 물론 10여 명이나 되는 4촌 동생들과 우애가 돈독하였다. 따라서 털끝 하나라도 형제간에 다투어 어그러짐이 있었다면 혹 비슷하게 남겨진 말이 전하여졌을 터인데도 그러한 형적形跡을 찾아 볼만한 것이 전혀 없다.

남평공께서는 경주설씨와 덕수이씨 두 분 배위配位 슬하에 5남 6녀를 두셨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넷째 따님이 백사白沙 영의정領議政 이항복李恒福의 제2배위로 출가出嫁하였는데, 총명하고 영매英邁하여 임진왜란시 병조판서인 남편의 군국대사軍國大事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훗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선생이 경연經筵에서 임금께 아뢴 기회가 있어 백사 이항복의 제2배위 나주오씨의 총명함과 훌륭한 내조, 정숙한 부덕婦德을 널리 알렸다.

오호라! 남평공 오언후 선조님은 온화하고 후덕하여 도량이 넓은 인품으로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의 한평생을 사셨으니, 요컨대 천명天命의 순리를 즐겁게 따를 줄 아는 군자이셨다.

다만, 돌아보건대 후손 이어움이 고단하고 가난하여 남평공 선조님의 유훈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본손本孫 만의 한탄이리오! 죄송할 따름이다.

2020년 6월 6일

11세손 종만鍾滿 삼가 쓰다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과 금정산성

오찬균吳燦均_금초가문錦樵家門 대표



1. 인연소기因緣所起

- 9세世 : 오희도吳希道, 명곡공明谷公, 인조仁祖 1년(1623년) 알성문
과謁聖文科 급제及第
- 10세 : —오이두吳以斗, 죽봉공竹峯公, 병자창의丙子倡義
—오이규吳以奎, 지천공支川公, 효종孝宗 원년元年(1650년)
증광문과增廣文科 급제
- 오이익吳以翼, 석문공石門公, 효종孝宗 3년(1652년) 증광문
과增廣文科 급제
- 오이정吳以井, 장계공藏溪公
- 11세 : 오기석吳祺錫, 옥헌공玉軒公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 12세 : 오대경吳大經, 만포공晩圃公, 노성현감魯城縣監
- 13세 : 오현주吳鉉胄, 헌납공獻納公, 영조英祖 42년(1766년) 정시문
과庭試文科 급제
- 14세 : 오정원吳鼎源, 대사간공大司諫公. 영조 42년(1766년) 정시문
과 급제. 오한원吳翰源, 참판공參判公, 영조 51년(1775년) 정
시문과 급제

① 명곡공明谷公의 부인 승평김씨昇平金氏는 도사 휘 부흥의 여식이
다. 공께서는 점잖고 정직하여 언소가 적고 서사를 통하여 대의를 알고

제자를 가르쳐 모두 군자유君子儒가 되었다.

장자의 휘는 이두以斗이니 생원으로 호가 죽봉이요 병자년에 창의를 하였다가 화의를 듣고 그쳤다. 차의 휘는 이규以奎이니 진사로 호는 지천이요 음직으로 판관이며 문과 급제로 정랑이 되었고 영사원종공훈록寧社原從功勳錄에 참여하여 고考에게 도승지都承旨를 증하게 되었다. 차의 휘는 이익以翼이니 호는 석문이며 진사로 문과 급제로 한원翰苑(翰林院)의 천薦에 오르고 현감을 지냈는데 청백리清白吏(德目:文 清 廉 儉 信)로 기록되었다. 차의 휘는 이정以井이니 생원으로 호는 장계요 일찍이 사마시 일등에 합격하고 위기학爲己學을 전심하여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은둔隱遯의 취미趣味로 종세終世하였다. 차의 휘는 이성以星이니 13세에 능히 문장文章을 지었으나 요절을 했다.

② 인조 1년 알성문과 급제한 오희도吳希道는 아들 오이규吳以奎와 오이익吳以翼이 증광문과 급제하였고, 오희도의 현손으로 영조 42년 정시문과 급제한 오현주吳鉉胄는 아들 오정원吳鼎源과 오한원吳翰源이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각각 삼부자三父子 문과급제文科及第의 영예를 누렸다.

2. 동래부사東萊府使 오한원吳翰源

1. 人品

자字는 공예公藝요, 호號는 산운관山雲館이다. 영조 51년(1775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했다.

공公은 어렸을 때부터 기량이 출중하여 학문을 배우면서도 번거롭게 가르치거나 독려督勵하지 않아도 혼자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여 십여 세때 경서經書(사서삼경四書三經 등)와 사기史記, 제자백가諸子百家(B.C 403~321년,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여러 사상가 학파의 글을 통달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순박淳朴하고 아름다워 거짓으로 꾸미기를 좋아하지 않고, 일찍이 가정교훈을 이어받아 부모에게 학문을 배웠다. 평상시 화려하거나 보기 좋은 물품物品은 일체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고(凡華采玩好之物), 60세 이전에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장식을 선조가 전한 방식方式을 이어받아 초가집에 살면서 말하기를, “조상께서 전해준 물건을 감히 잃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집에 있으면서 효도하며 근면公勤恭遜하였고, 관직에서는 정성스럽게 일을 주관하였으며, 처세는 장점을 내세우지 않았고 남들과 대면할 때는 차별을 가리지 않았다. 벼슬은 이경二卿(참판)에 이르렀다.

2.行蹟

● 1806년(순조純祖 6) 동래부사東萊府使

① 의정부議政府 추천으로 동래부사에 부임하여 무너진 금정산성을 보고 개탄하며 수천금을 내놓아 다시 축성을 하면서 견어肩輿(轎子)를 타고 직접 감독하고 관아의 종들까지 모두 부역에 동원하여 일년 만에 일을 마치고 성 안에 곡식 창고와 병기고兵器庫를 만들었으며 별장別將(武職)을 두어 지키게 하니 우뚝 솟은 해안의 진영이 되었다.

② 무사武士 500명을 선발하여 무예를 가르치고 상벌을 실시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였다.

③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통신사通信士를 외교 사절로 보내와 온갖 협박을 하였다. 공은 외교 사절과 마주앉아 말을 주고 받는 순간 한 왜인이 칼을 빼 공의 발끝에다 내던졌으나 공은 신기神氣(精神과 氣運)를 태연히 하고 통역관을 통하여 전하기를, “이웃나라와 외교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무례하게 하는가?” 하자 외교관이 두려워하며 나와서 소왜少倭의 목을 치고 사과함으로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 1810년(순조 10) 나주목사羅州牧使

① 나주는 넓고 큰고을이었으나 당시 모처럼 커다란 기근을 당하자 조정에서 공을 특별히 나주목사에 천거하였다. 공은 달랑 마차 한 대로 부임하여 기근饑饉 대책을 세웠다. 소 천 마리를 매입하여 육지와 섬 등 농가에 골고루 공급하여 시기에 맞는 경작을 하게 하였다.

② 백성들이 군량미를 매입한다는 허위장부 때문에 폐막弊癘(病弊)을 당하자 조정에 감액을 청구하는 상소上疏를 올려 인준받았고, 아전衙前이 횡령한 공금에 대하여서는 회수하여 장부와 일치되게 하였다

③ 나주는 본래 공의 관향으로 일가친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친들을 환대하였다. 옛날 범중엄范仲淹(989~1052, 북송北宋 참지정사參知政事)을 본받아 의장義庄(義田.門中共同田)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전답을 취득하고 종친들에게 맡기어 해마다 그 수입을 모아 가난하여 혼인과 장례를 치루지 못하거나 어렵게 과거 공부하는 종친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 1812년(순조 12) 의주부윤義州府尹, 1813년(순조 13)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① 해안지역에 기근이 심하고 더불어 군사문제까지 더해지자 상업이 침체되어 화폐가 유통되지 않았다. 공은 즉시 해안지대의 수고需庫와 국경지대의 관세를 폐지하여 무역 수입을 증대시켰다. 성채와 산성이 무너진 곳을 개축하고 유실된 군기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장병들이 출정할 때 쓸 수 있는 의회당義會堂을 만들어 위로하였다.

② 다음 해 영의정 김재찬金載瓚(1746~1827)이 경연經筵에서 공의 치적을 상주上奏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從二品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승직陞職되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제수되었다.

3. 금정산성金井山城(동래산성, 東萊山城)

금정산성(一名 東萊山城)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 정상부에 있는 조선시대 돌로 쌓은 산성으로 낙동강 하구와 동래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요충지要衝地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바다를 지키기 목적으로 다시 쌓았다. 성벽은 17킬로미터 정도인데 해발 801미터의 金井山 꼭대기에서 서남쪽으로 계곡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동서남북 4곳의 성문과 수구문 암문 등이 있다.

● 歷史的 變遷

① 1667년(현종顯宗 8) : 통제사.이지형李枝馨이 금정산의 보수를 건의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축성築城된 것으로 보인다.

②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래부지東萊府誌 : 1702년(숙종 28년) 경상감사 조태동趙泰東의 청에 의하여 금정산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1703년(숙종 29년) 동래부사 박태항朴泰恒이 준공(둘레 9011보, 높이 15척)하였다.

③ 1740년(영조英祖 16) 발간된 동래부지東萊府誌 관해 및 성곽조 : 1707년(숙종 33년) 동래부사 한배하韓配夏는 금정산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남북으로 두 구역을 구분하여 중성中城을 쌓았다.

④ 1808년(순조 8) : 동래부東萊府가 점령되더라도 영남을 지키는 튼튼한 성이 필요하다는 동래부사 오한원의 건의를 받아드려 중수하고 동문東門을 신축하였으며, 서문 남문 북문에 문루門樓를 만들고는 수비군守備軍을 배치하였다. 당시 성벽 길이는 32리였으며, 산성 수비는 동래부사가 맡았다.

4. 오한원청덕선정비吳翰源淸德善政碑

● 位置 : 조선 후기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

장춘로 157-67(온천동 산17-7)번지 금강공원
내의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으로 진입하
는 길 오른쪽에 있다.

●建立經緯 : 오한원은 1806년(순조 6) 2월
부터 1809년(순조 9) 2월까지 동래부사로 재
직하면서 대일 관계 문제의 처리와 금정산성
을 중수하고 설치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겼
다. 이를 기려 1818년(순조 18) 동래부 각 면
의 주민들이 함께 비를 세웠다.

이수螭首에는 보주형寶珠形의 꼭지가 달려
있고, 중앙에 연꽃무늬가 양각되어 있으며, 양
쪽에 좌우 대칭으로 나선형 장식이 2개씩 조
각되어 있다. 또한 음각된 비문 안에는 검은색
칠이 되어 있어 비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비신碑身의 표면도 매우 깨끗하다. 비의 크기
는 높이 163cm, 너비 49cm, 두께 19cm이다.



금강 공원 내의 동래부사 선정비군 20기 가운데 하나로 잘 보존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에서 관리한다.

●金石文 : 비의 앞면에는 ‘부사 오공한원 청덕선정비府使吳公翰源清德善政碑’라는 비제碑題
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무인년[1818, 순조 18] 8월 각 면에서 세움. 그리
고 좌수 신태정, 별감 송재희·문우해, 도감 신태만, 감관 이호, 색 구봉상崇禎紀元後四戊寅 八
月各面立 座首 辛台鼎 別監 宋載禧 文禹海 都監 辛宅晚 監官 李濩 色 具鳳祥”이라고 각자刻字
되어 있다. 오한원 청덕선정비는 동래부의 행정 구조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5. 釜山市記念物 第15號 白鹿洞天 金井山城復設碑

금정산성부설비는 조선 후기 금정산성을 보수한 내역을 기록한 비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전동 482 벽산블르밍아파트 2단지 어린이 공원에 있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15호로 지정되었다.



금정산성부설비는 1808년(순조 8) “동래부가 점령되더라도 영남을 지키는 튼튼한 성이 필요하다”는 당시 동래부사 오한원의 건의에 따라 금정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산성의 면모를 새롭게 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새겨져 있는 글은 모두 16행으로 금정산성을 처음 쌓은 때부터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까지의 경위와 부설공사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비바람에 마멸되어 관독하기는 어려우나 동역董役, 공사 감독 등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85cm, 너비 72cm, 두께 35cm이다. 재질은 화강석으로 귀부와 이수螭首 없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비의 좌대座臺인 너른바위에는 백록동천 정묘 시월白鹿洞天 丁卯

十月이라는 글귀와 81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백록동천은 소하신선蘇蝦神仙이 흰사슴을 타고 금귀선인金龜仙人 산다는 곳을 말함으로, 예전에 이곳은 금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의 경치가 좋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금정산성을 다시 축성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성곽 축성 및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큰 암반 위에 세워져 있어 처음 세워진 후 한 차례도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동래읍성에서 금정산성으로 가는 출입로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정산성 연구의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문화재이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동래부의 관할 지역은 동남쪽 바닷가에 걸쳐 있어 섬 오랑캐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니, 우리나라의 요충지이다. 임진년의 변란 때 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천곡泉谷 송상현 공이 죽으니, 드디어 왜적들이 대대적으로 몰아 들이닥쳐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 예닐곱 해가 되었었다. 만약 신종 황제神宗皇帝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오랑캐 복장을 하였을 것이다.

강화를 맺고 난 뒤 관수왜館守倭[조선 시대에 왜관을 관리하던 왜인]는 관사에 거처하게 하고, 사개使价는 예절로 접대하니, 이는 실로 성상聖上의 덕화가 먼 곳의 사람들을 회유하는 정책이지만, 원한을 품은 것도 또한 수백 년이 되었다. 이곳에 수령을 두는 데는 조정에서 정하되 전주鎭注를 거치지 않고, 군사 일을 따지는 데에는 진영을 설치하여 두 고을을 전결하게 하였다. 당초의 시설이 위엄 있고 엄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성곽과 못이 견고하지 못하여 지난날의 화를 면하지 못한 것이 통탄할 일이다.

동래부 북쪽의 금정산은 바다와 육지의 목에 들어 있고, 사방이 엄중하게 막혀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준 험준한 곳ियो,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다. 지난 계미년에 부사 이무李攄가 그 위에 처음으로 산성을 창건하였는데, 둘레가 9,200여 보이다. 시설과 규모가 우뚝하게 영남 바닷가의 방패가 되어, 변방의 백성들이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뒤 갑오년에 성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결국 산성을 폐지하고 만 것이 지금까지 95년이 되었다. 초루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성가퀴는 단지 형적만 남아 사람들이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지금 주상 6년 병인년[1806]에 내가 이 고을의 태수가 되어, 일찍이 한번 이 산에 올라 옛터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방황하며 차마 떠날 수 없었다. 아! 오늘날 동래부의 읍성은 7리[약 2.74km]에 불과한 작은 성곽인데, 믿을 만한 험준한 곳이 없으니, 만약 국경에 경계해야 할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어찌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는가?

옛적에 자양子襄은 영郢 땅에 성을 쌓을 것을 계획하였고, 무신巫臣은 전차戰車라는 것을 가르쳤으니, 이로 보면 성곽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그 땅을 적에게 주는 것이고, 병졸을 훈련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을 적에게 내어 주는 것임을 알 것이다. 대개 병력이란 평소에 양성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성곽은 험준한 곳에 웅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군대에는 하루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옛사람들이 원대한 근심을 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비가 내릴 때의 대비가 없음을 개탄하여 상소문을 지어 몇 가지 조목을 조정에 아뢰었다. 첫째는 변방의 금령을 엄중히 하는 것이요, 둘째는 군포를 덜어 주는 것이고, 셋째는 위병衛兵을 선발하는 것이며, 산성을 다시 쌓는 것이 그 네 번째이다. 소를 올리자 모두 좋

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만 산성을 쌓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에게 명령하여 충분히 의논하여 편의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 고을의 곡식 1만 섬을 옮겨 산성의 양식으로 삼고, 해마다 2,000냥씩의 돈을 20년 기한으로 한정해서 지급하여 세 군문軍門의 건물과 군기軍器 및 성을 지키는 물자를 조달하는 데 쓰도록 한 것은 도道에서 계획하여 품의한 것이고, 동문을 새로 짓고 성곽을 수리하는 것을 본 읍에서 전담하는 것은 내가 소청한 것이었다. 위병 500명을 먼저 선발하여 한 영營을 만들고, 활과 총 쏘는 것을 원장하며 임금을 섬길 것을 가르치니, 일 년이 채 못 되어 그 재능들이 쓸 만하였다.

정묘년 늦가을에 토목 공사를 잇달아 일으켜 한 달 만에 동문이 완성되었고, 다음 해 초봄에는 기둥과 들보를 100리[약 39.27km] 밖에서 옮겨 오고, 벼랑 끝에서 험준한 바위를 깎아 내어 지고 끌어당기기를 온 인부가 힘을 함께한 지 149일 만에 서남북의 초루譙樓가 완성되었다. 사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창고를 시설하여 물자 수송을 고르게 하였고, 여러 계곡의 물줄기를 이끌어 강과 바다로 통하게 하니, 성벽이 평탄한 곳에서 시작되어 산 정상에서 그치기를 가로로 32리[약 12.56km]에 다다른 것으로 공사를 끝내었다.

동래 사람으로 부역한 사람들이 이곳을 의지할 곳으로 여겨 즐거이 달려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데에는 마치 신의 도움이 있는 듯하니, 이 역사의 성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을 감독한 막료들과 여러 교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내 사양하지 못하고 그 전말을 이와 같이 간략히 쓴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무진년[1808], 통정대부 동래부사 금성 오한원 짓고 쓰다

[원문]

“萊之治 處東南海上 爲島夷路 東國之要衝 壬辰之變 城不守 泉谷宋公死之 遂長驅入域 搶攘殆六七年 若非神宗皇帝再造之恩 東土幾左衽矣 及其講和 守倭則以館而處 使价則以禮而享 此實聖化之綏遠 而含怨亦數百年 置守焉 廟刻而不用銓注 詰戎焉 設鎮而專制二邑 當初設施 非不威重 惟其城池之不固 未免有曩時之禍 可勝痛哉 府北之金井一山 據水陸咽喉 四面嚴阻 眞天設之險 必守之地也 在昔癸未 府使李公埜 始創山城於其上 周爲九千二百餘步 設施規

模 屹然爲嶺海捍蔽 邊民恃而不恐 逮甲午 有以闔大爲言者 城遂廢 今爲九十五年 譙廨已虛 而圯堞只有形址 人莫不爲之嗟惜 上之六年丙寅 余守是邦 蓋嘗一登 周覽舊墟 彷徨之久 不能去 噫 今之府城 不過七里短堞 無險可恃 苟疆場有警 寧不凜然 昔子襄謀城郭 巫臣訓乘車 是知城郭不修以其地與敵也・士卒不鍊以其民與敵也 夫兵不可以不素養 城不可以不據險 軍旅亦不可一日去食 余於是念前人之遠慮 慨陰雨之無備 遂以一疏條陳于朝 一嚴邊禁也 二鑄軍布也 三選衛兵也 山城復築 卽其四也既徹 俱蒙允可 而惟於築城條 特下道帥臣議久之以便宜聞 三邑穀萬石之移作山餉 歲劃二千緡之錢 限以二十年 助辦於三門廨廩及軍器守城之資者 道啓之所區劃也 東門之新建 城堞之修築 本邑專當者 賤臣之疏請也 衛兵五百 先已簡取 創爲一營 勸以射放 教以親上 未朞而材可用 及至丁卯季秋 土木繼興 一月東門成 翌年孟春 運柱樑於百里 斷巉巖於崖巔 擔曳如雲 萬夫齊力 計百四十有九日 西南北譙樓成 設倉廩於四達之達 以均轉輸 導衆谷之奔流 以通江海 城起于平夷 止于山頂 橫亘三十二里 而功告訖焉 萊人之赴之者 莫不視爲依歸之所・樂趨勇往 其就也 若有神助 可見是役之成 成於衆心也 董事之 幕佐諸吏校 咸曰 記實不可闕也 余不能辭 遂略書其顛末如右云爾 崇禎紀元後 四戊辰 通政大夫 東萊府使 錦城吳翰源 撰並書。”

6. 水營史蹟公園 釜山市記念物 第12號 25義勇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79번길42 수영동 수영공원에 있다.

임진왜란(1592.4)이 일어나자 당시 동남해안의 책임을 맡은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은 경상좌수영성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경상좌수영성을 점령한 왜군은 7년 동안이나 이곳에 주둔하여 약탈과 살육을 감행하였다.

이때 수영성의 수군과 성의 주민 25명은 성문 밖의 선서바위에 모여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구하여 산야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하고 피로 맹세한 후 바다와 육지에서 왜적을 상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왜군의 침략에 맞서 경상좌수영의 수군과 성민 25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7년간 유격전遊擊戰으로 왜군에게 대항하였는데, 25의용단은 그분들의 호국충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 쌓은 것이다. 1853년(철종哲宗 4년)에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장인식張仁植이 수영성 성문 근처에 이들 25인의 사적을 기리는 단비를 세워 의용단義勇團이라 이름 붙이고 재실을 지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향을 봉행하였다.

●정방록旌傍錄 작성 및 병역의무 면제

1609년(光海君 1년)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이 지방민의 청원에 따라 25명의 사적을 채록하여 정방록旌傍錄을 만들고 25인의 집 대문에 ‘의용義勇’이라는 두 글자를 쓴 목패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순조 때 동래부사 오한원(재임 1802년 6월~1809년 2월)은 25의용 후손들에게 부역을 면제하고 글을 지어 표창하였다. 금정산성을 새로 쌓아 국난에 대비한 오 부사로선 25의용의 충절을 당대에 재조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25의용 활약상을 담은 ‘정방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기록으로만 전한다. 왜에 대한 저항 기록이기에 일제강점기 멸실됐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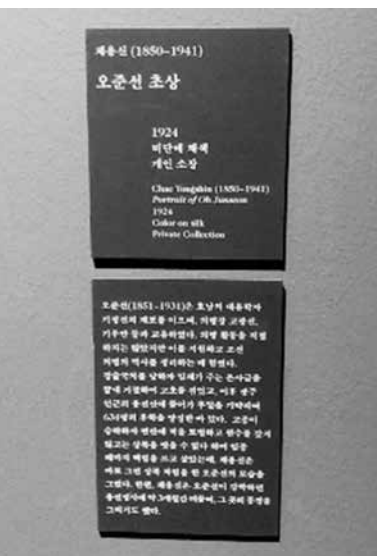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특별전 후석 오준선 《광장》전을 다녀와서

2019년 10월 22일, 가을의 오후였다. 먼 산의 나무들이 단풍물 든 옷으로 갈아 입고 내려오고 있다. 거리의 나무들은 아직 단풍 물들인 옷을 입기 싫은 것일까? 이미 내 마음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푸름을 한층 뽐내는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았다.

‘2019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곳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문을 연 지 50년을 기념하는 〈광장 The Square〉 전시이다. 《광장》 1부(미술과 사회, 1900~2019)는 1900~1950년의 시기를 다루는데, 19세기 말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격동하는 시대의 파고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켰던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유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후석공 오준선의 ‘영정’과 ‘용진정사지도’가 특별 초대 전시되고 있어, 대종회 오근성 회장님을 비롯 오양근 서울본부장, 오종만 종사연구위원장, 오기선·오공수·오맹근·오열·오동렬·오양균 부회장 등 10명이 특별전 관람을 위해 덕수궁 현대미술관을 찾았다.

일행이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아 간 전시실을 오래도록 후세에 기억되어야 할 올곧은 인물들의 유묵遺墨에서부터, 망국亡國의 시대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예술가들의 고민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장이었다.



“의로운 이들의 기록”관 전시실에서 후석공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었다. 그 전시실에는 채용신, 오세창, 안중식, 김용준, 김환기, 이쾌대 등 작가 80여 명 작품 130여 점과 자료 190여 점을 선보이고 있었다.

특히 후석공과 교류한 채용신은 을사늑약 체결 후 낙향하여 주로 의병 활동이나 항일투쟁의 의지를 표명한 우국지사들을 그렸는데, 그가 용진정사에 약 3개월간 머물면서 그린 후석공 ‘영정’과 ‘용진정사지도’ 앞에 멈춰섰다.

1924년 당시 77세인 채용신은 74세였던 오준선의 모습을 상복을 입고 백립을 쓰고, 고종 황제를 위해 거사를 하는 모습을 초상화로 ‘용진정사지도’와 함께 그렸다.

그렇다.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 1851~1931)은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분으로, 조선 후기 혼돈의 사회와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호남유림의 종장이자, 한말 호남의병의 사표로 일제를 거부하며 살다간 인물이다.

후석공은 고종이 승하하자, 문도들과 서울까지 올라가 인산에 곡하고, 고종 승하의 변란에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는 상복을 벗을 수 없다며 임종 때까지 백립을 쓰고 원수를 갚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온 분이다.

일제가 1909년을 전후하여 군대를 동원한 ‘남한대토벌작전’을 악랄하게 실시할 때, 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인 용진산, 석문산, 대명산, 어등산 등은 호남의병의 치열한 전투지역이었다.

후석공은 일제에 대한 강한 배일의식과 충·효·의리관을 강조하며 문하생을 가르쳤다. 특히 의병을 양성하고, 지원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참모본부 역할을 수행할 거점으로 용진동천 용진정사를 건립하였다.

후석공은 이곳에서 지속적인 항일 의지를 갖고 제자를 양성했는데, 문하생들은 오준선의 가르침을 받아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상렬·이기춘·오성술·전수용 등으로 의병장 등이다.

국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할 모의를 논의하면서, 원수 갚는 의리를 가슴 속에 한시도 잊지 않고, 용진산으로 들어간 오준선은 후일을 기약하며 의병들의 행적을 수집하여 찬술한 <의병전>은 독립운동사 의병항쟁사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제자와



의병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통을 교환하면서 의병 활동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후석공은 편히 지낼 수 있는 본가를 떠나 도림에서 석문으로, 다시 용진산으로 들어간 것은 의병 양성과 의병활동 지원 등 지속적인 국권 회복운동이었다.



이처럼 오준선의 삶은 호남 유림의 종장으로, 광산지역을 근거로 활발하게 무장투쟁을 벌인 의병들의 스승으로, 의병 대열의 선두에서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일제에 항거하며 조선 백성 이기를 고집하면서 의병들과 문도들의 정신적 지도자의 삶을 사신 선조님이다.

전시실을 나와 덕수궁 뜰을 걸을 때 많은 생각에 잠겼다.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까지를 다룬 광장 1부는 잊고 살았던 것들이 생각나고 죽어있던 것들이 차츰 살아났다.

고종이 승하한 후, 임종 때까지 상복과 백립을 입고 산 후석 오준선의 올곧은 신념과 조국에 대한 충성은 화가 채용신의 의해 결국 후대에 그림으로 역사로 남았다.

영혼이 담긴 듯한 후석공의 영정이 한동안 나를 지배했다. 슬픈 듯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은 무엇일까?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후석공은 무슨 고뇌를 했기에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림을 남긴 채용신은 후석공의 표정을 보며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아득했다.

대중회 어르신들과 저녁을 함께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내내 가슴에는 나주 오씨 후손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묵직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온몸에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한동안 온 몸을 휘감았다.

*〈대중보〉 제13호(2012) 17쪽,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참조. 〈글·사진_오종문 홍보부장〉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2015년, 통계청)

	본 관 별	인구 수	구성비(%)	비 고
01	해주 海州	462,704	60.62	
02	동북 同福	72,394	9.48	
03	보성 寶城	71,162	9.32	
04	함양 咸陽	35,846	4.70	
05	나주 羅州	32,610	4.27	나주 羅州 18,152 금성 錦城 14,458
06	군위 軍威	26,949	3.53	
07	고창 高敞	18,856	2.47	
08	낙안 樂安	11,562	1.51	
09	장흥 長興	4,132	0.54	
10	화순 和順	3,952	0.52	
11	함평 咸平	3,164	0.42	
12	울산 蔚山	3,015	0.40	
13	흥양 興陽	2,805	0.37	
14	평해 平海	1,816	0.24	
	기타 (199)	12,314	1.61	인구 5인 미만 4,223명 포함. (본관 수는 미포함)
	합 계 (213)	763,281	100.00	

[註] 1. () 안은 본관 수

2. '나주羅州' 본관 인구 수에는 '금성錦城' 관 인구 수를 합산하였음.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2호 원고모집 안내

“대종회에서 2021년 3월 정기총회 시 배포할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2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종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나주(금성)오씨대종보》는 2000년 5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2020년 8월 31일 통권 제2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대종보大宗報는 종원 간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장입니다. 종친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상과 자손의 역사를 잇기 위하여 나주오문羅州吳門의 문화, 인물 소개 및 유적지 탐방, 각종 제례행사 등의 내용을 담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알찬 대종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 내용

- ① 선조의 위업을 소개하는 글
- ② 씨족사氏族史에 관한 연구 논문
- ③ 종친 간 친목 증진을 도모하는 글
- ④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글
(충절·효열·예절·선행·학문 연구 등에 빛을 남긴 인물 소개. 특히 나주오문을 빛낸 청년층·장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재주·숨씨·소질 등)
- ⑤ 나주오문 집성촌集姓村을 소개하는 글
- ⑥ 각종 사적事蹟·사우·재실·비·묘 등을 소개하는 글
- ⑦ 각 문중의 위선사업爲先事業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글
- ⑧ 지역 종친회, 문중별 종친회의, 각종 모임 및 친목행사와 시제時祭 행사 소개글
- ⑨ 시·수필·답사기(기행문), 기타 종원 모두에게 유익한 상식·미담 등
(단,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 원고 마감일: 2021년 1월 31일까지
- ☛ 원고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 나주오씨대종회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홈페이지: www.najuoh.co.kr | 전화: 02-2275-5574, 팩스: 02-563-5574
홍보부장 오종문 전화: 010-3214-7068, 전자우편: ibook99@naver.com

오동근東根 대종회 감사, 광산문화원 제9대 원장 취임



오동근東根 대종회 감사(금양군중중)가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산문화원 원장 이·취임식’에서 제9대 원장에 취임했다.

광산문화원 원장 이·취임식에는 류복현 3~6대 원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동철 국회의원,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위원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정·관계 인사와 선병희 광산발전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전선영 광산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김호상 광주축협조합장, 오근성 나주오씨대종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생가터를 9대째 약 200여 년 동안 보존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광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나주오씨대종회 감사 및 금양군중중 회장,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우림교통(유)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감사를 맡고 있다.

오종선鍾善 대종회 재무부장, 방송통신대 제21대 서울총동문회장 취임



오종선鍾善(1964년생, 장탄문중) 대종회 재무부장이 2019년 11월 23일(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락성결교회' 2층 강당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1대 서울총동문회 회장에 취임했다. 2020년 1월부터 2년간 42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서울총동문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오종선 회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오 회장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와 일본학과를 수료하였으며, 현재 일본학과 회장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대종회 청장년부장 2년(2011~2012년), 재무부장 7년(2013년~현재), 오수산악회 총무 8년(2012년~현재) 동안 맡은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대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종회 회원간 친목 도모, 유대 강화, 조직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특히 오 회장의 부친 재남在南(1935년생)님은 대종회 고문으로, 형 종석宗錫(1960년생)님은 대종회 종무위원으로 삼부자가 대종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있다.

오혜림慧琳 종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임용



오혜림 검사는 참의공 문중 길렬桔烈(1961년, 건보공단 근무,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수동 거주) 종친의 1남 2녀 중 차녀로서 1992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오 검사는 고창남초등학교, 고창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2019년 4월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5월 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큰 화제를 낳은 훌륭한 재원이다.

오 검사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이 검사라고 적힐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만큼 평소에도 체력단련과 인간관계 법도를 틈틈이 익혔다.

따라서 중학교 시절에 육상과 축구를 매우 좋아하기도 하였지만, 부모님의 만류로 공부에 열중하면서 고창여중·고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학구파이기도 하다.

아버지 길렬 씨는 “그동안 고생과 애타는 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딸이 마냥 자랑스럽다”며 “고창여중·고 선생님과 나주오씨 종친들께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오 검사는 우리 나주오문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주오씨대중회 회원 모두는 오 검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

오교철敎哲 前 종무원장, 목사 안수·임직



오교철(칠송공 문중) 전 종무원장이 2020년 1월 11일 오전 10시 하나교회(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충청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목사 안수를 축하하는 오근성 대총회장과 오홍구 부회장(전 장년회장)의 축하 화환이 전달됐고, 대총회에서 오근태·오홍구 부회장, 오민선 종무위원, 오형근 총무부회장이 참석하여 오 목사의 목사 안수 및 임직의 기쁨을 같이했습니다.



오종문鍾文 대중회 홍보부장, “한국시조대상” 수상 및 가사시집 『명옥헌원림 별사』 발행



□ 제9회 한국시조대상 수상

오종문鍾文(참판공문중, 1960)이 2019년 3월 9일 “제9회 한국시조대상”을 수상했다. 오 시인은 대중회 영교榮敎(1935) 고문의 셋째아들로, 대중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다. 오 시인은 현재 문단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하면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다. 시집으로 『오월은 섹스를 한다』, 『지상의 한 집에 들다』 등이 있고, 저서로 『이야기 고사성어』 전 3권, 『시조로 읽는 삶의 풍경들』 외 다수가 있다. 중앙시조대상, 오늘의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 상을 운영하는〈시조시학사〉는 한국시조대상 제9회 수상자로 오종문 시인의 「아버지의 자전거」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시조대상은 좋은 시조 작품을 창작해 시조 발전에 기여한 시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 김제현 시인은 수상작 「아버지의 자전거」를 “중년기에 겪게 된 신산한 삶과 절망적

이었던 삶을 체험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자아 성찰의 시조”라고 설명하며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싣고 달려오는 자전거가 시적 메타포로 작용하면서 한 폭의 풍경화를, 아니 아프디 아픈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평했으며, 심사위원 이근배 시인은 “여러 작품이 고르게 품격을 갖추었거니와 그 가운데서도 저 거칠고 바람 찬 시대의 들녘을 지나온 아버지들의 삶의 궤적이 머리와 가슴 속 깊이 박혀있듯이 따뜻한 물살로 번져오는 것이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2019년 3월 9일 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상패와 상금·문인화 한 점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 가사시집 『명옥헌원림 별사』 발행

담양군 가사문학관에서 기획한 ‘한국가사시 100인선’ 시리즈 중 9번째로 오종문 가사시집 『명옥헌원림 별사』가 2019년 12월 20일(고요아침, 양장본, 120쪽) 발행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가사시집에는 24편의 주옥같은 가사시가 실려 있다.

이 가사시집은 ‘제1부 그곳, 담양’ 편에는 명옥헌원림 사계를 노래한 「겨울 끝에서 초봄을 보다-봄, 명옥헌 원림」, 「배롱나무 그늘까지 봄다-여름, 명옥헌 원림」, 「붉은 꽃 밟으면서 가을 오시는 길-가을, 명옥헌 원림」, 「먼 주인은 종일 책을 읽고-겨울, 명옥헌 원림」을 비롯해 담양 정자의 주인들의 삶을 노래한 「호탕정회- 면양정」, 「격탁양청- 송강정」, 「광풍제월-소쇄원」, 「외영오적- 식영정」, 「누정별곡」, 「그곳, 담양」 등의 가사시가 실려 있다.

‘제2부 명옥헌원림 별사’ 편에서는 1623(인조 1년)에 알성문과에 급제한 명곡공 오희도(1583~1642)의 삶과 명옥헌의 풍광을 가사로 풀어쓴 「명옥헌 난간에 기대어 앉아」, 「알성시에 급제하다」, 「망재에서 밤을 새우며」, 「배롱나무 너를 두고」, 「인조대왕 계마행수」, 「다시 망재에서의 하룻밤」, 「객지에서 띄우는 편지」, 「명곡만사」, 「명옥헌원림 가는 길」, 「가사로 쓴 명옥헌원림기」 등 10편의 가사시, 그리고 ‘제3부 가사로 쓴 우리말 사설’ 편에서는 순우리말을 가사로 풀어쓴 「가사로 쓴 우리말 걸음새 사설」, 「가사로 쓴 우리말 구름 사설」, 「가사로 쓴 우리말 웃음 사설」, 「가사로 쓴 우리말 바람 사설」 등이 실려 있다.



나주오씨 항렬자行列子 정규定規

‘항렬자 정규’에 있어서 임진보(1892년)에는 수(洙, 19世)부터 순(淳, 29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고, <신사보>(1941년) 및 <신유보>(1981년)에는 렬(烈, 21世)부터 화(和, 50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다.

세수	항렬자
21세	烈(렬)
22세	均/敎(균/교)
23세	鍾(종)
24세	泳(영)
25세	秉(병)
26세	熙(희)
27세	載(재)
28세	鎬(호)
29세	淳(순)
30세	植(식)

○熹○喜忠○ ○鐵○泰○利○ ○默○孝○鎭○温○和○	○榮○吉志○ ○金○清○秀○ ○光○幸○錄○浩○權○	○烈○均敎○ ○鍾○泳○秉○ ○熙○載○鎬○淳○植○	行列字定規
----------------------------------	----------------------------------	----------------------------------	-------

이름에 담긴 가치

고서나 족보를 보다 보면 이름 위에 비단 천 조각이 붙어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는 조상의 이름을 보기조차 황송하여 가린 조치였으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은 더욱 삼갈 일이었을 터이다.

또한 고서점에서는 장서인藏書印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거나 아예 도려내진 옛 책을 간혹 발견하는데, 후손들이 집안 어른의 이름이 남에게 함부로 읽히거나 불림을 꺼려한 조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름은 개인을 나타내는 상징어이자 언어부호이다. 여기에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을 비롯한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이 녹아 있다. 예컨대 가족, 종족, 종교, 국가 등 다양한 문화가치를 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수명천고垂名千古’, ‘만고유명萬古留名’ 등의 어구를 만들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즉 이름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뿐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공과功過가 오랜 시간 역사로 남는다는 교훈이라 하겠다.

인장

존재를 증명하는 새김

이와 반대로 ‘취명소저臭名昭著’, ‘실패명렬身敗名裂’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성어도 있는데,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는 훈계가 담겨있다.

또한 전근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입신양명 이현부 모立身揚名 以顯父母’는 자신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나 가문을 드러내는 일을 효의 궁극적 가치로 보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살아 있는 동안의 영예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이름이 길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더욱 바랐다. 훌륭한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일을 개인사 최고의 이상이자 효도의 최고 순위로 여겼던 인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생애 최초의 이름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사망 때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전근대의 이름은 생애의 여러 주기마다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 관례였다.

태어나면서 아명兒名을 지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관명冠名이 주어졌다. 이름을 존중한 동양문화의 관념으로 자字를 두어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러 별칭을 써서 사람의 인격을 대신했는데, 아호雅號·당호堂



인장은 개인과 집단의 표식으로 삼기 위해 단단한 물체에 문자를 새겨 증명하는 도구이다. 금, 은, 옥, 수정 및 돌, 나무, 뿔(角), 뼈(骨) 등의 인쇄印材에 글씨, 그림, 문양 등을 조각하여 인주, 잉크 등을 발라 찍음으로써 개인,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물이다.

號·별호別號·택호宅號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사후에는 시호諡號를 두어 죽은 이에게 인격과 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인장,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

인장印章은 ‘개인과 집단의 표식으로 삼기 위해 단단한 물체에 문자를 새겨 증명하는 도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인장은 같은 의미를 갖는 ‘인印’과 ‘장章’이 결합된 합성어로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두 글자 모두 오랜 시간을 통해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착했다. 문자가 생겨난 이래 여러 기록 매체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인장의 가치와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또한 서명署名과 함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

진다.

인장은 문자를 역상逆像으로 제작하여 찍어낸다는 측면에서 활자와 유사하지만 기원은 활자보다 앞선다. 인쇄술이 탁본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표면에 안료를 바르고 압력을 이용해 찍어내는 방식이나, 문자를 거꾸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인장이 좀 더 유력한 모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장의 제작과 사용은 인쇄술의 기원보다 앞선다 하겠다.

인장의 기원은 기원전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둥근 인장의 몸통에 무늬를 새기고, 이를 진흙에 굴려 요철을 만든 방식이 시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원통형 인장 이후로도 인장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의 풍뎡이 모양 인장, 고대 인도의 모헨조다로에서 출토된 인장, 그리스·

로마에 이은 유럽의 반지형 인장, 태국의 상아로 만든 불탑 인장, 이란에서 발견한 페르시아 제국의 원통형 인장 등 전 세계적으로 각양각색의 인장문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인장사의 출발점에 있는 중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인장의 밑면에 새겨 찍는 방식만이 나타난다. 또한 현재까지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인장이 문서나 서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각(篆刻)이라는 독립적 예술 및 학문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중국·일본 등에 불

과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우리 시대와 직·간접적 영향이 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이름 외에도 여러 용도의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성명은 물론 자字, 호號, 관향貫鄉 등을 새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구절이나 시구를 새겨 인장으로 쓰기도 했다. 또한 서책이나 서화에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수장인收藏印이 있고, 편지봉투에 봉함의 목적으로 쓴 봉함인封緘印도 모두 우리 선조들이 곁에 두고 애용했던 인장들이다.

※이 글은 〈문화재사랑(2018.9월호, 통권 제166호)〉에 기고한 성인근(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글을 발췌. 정리한 것임.



대한제국 황제의 인장(좌), 1798년 정조가 좌상에게 보낸 편지의 봉함인(우상), 백범 김구 인장(우하)

나주오씨 홈페이지 전자족보 등록 안내

(<http://najuoh.or.kr>)

1. 대종회 홈페이지 전자족보 소개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는 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나주오씨대종회는 1964년 ‘재경나주오씨화수회’로 출발한 이후 1981년 ‘나주오씨서울총친회’, 1994년 ‘나주오씨중앙총친회’로 개칭되어 1999년 ‘나주오씨대종회’로 정식 창립된 이후 나주오문을 빛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00년《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창간하고, 2002년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기존의 종이책 족보를 전자족보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전자족보 기본사항(인적사항)’ 입력추진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발행된《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열람할 수 있고, 1981년에 발간된《나주오씨대동보(족보=신유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원들의 전자족보 등록 및 등록된 종원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전자족보 등록/검색’란이 있습니다.

(1) 〈전자족보〉 신규 등록

□ 생존자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규등록 신청함을 원칙
② 1981년 이전 출생자 중 〈신유보〉 누락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③ 198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 망인(亡人)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표시자)	대중회에서 향후 일괄적으로 신규 등록을 전산 입력 처리할 계획임. ■ 대중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건임.
②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이나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중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③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후 사망자 로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위 와 같 음
④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현재 사망자로 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과 등록변경신청(사망 관련 항목 입력)을 동시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중회에서 생· 졸년월일 또는 생· 졸년간지 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2) 전자족보 등록 변경

전자족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결혼·출생·사망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등록사항에 오류(오자·탈자·누락 등)가 있거나, 등록 이후 변경(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등록 변경 신청 절차
① 본인 혼인 시 (배우자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인적사항(한글 이름, 한자 이름, 생년월일, 성관姓貫)을 추가 입력한다.
② 자녀 출생 시 (자녀 등록)	부父 또는 가족이 ① 신규등록신청 화면에서 출생자 신규등록신청을 완료한 다음, ② 출생자의 부父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자녀 이름 란에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생년을 추가 입력한다.
③ 본인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가족이 망인亡人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년월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 묘소 위치는 본인 특기란에 입력한다.
④ 배우자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망인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년월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 묘소 위치는 배우자 특기란에 입력한다.
⑤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췌 항목에 해당)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⑥ 등록사항 사후 변경 시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근무처 등 변경)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변동) 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란, 인터넷의 성장으로 발달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한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정보기술산업은 통신 분야를 포함하게 되어 현재 'IT'라고 하면 정보기술에 통신을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회를 바꾸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요즘의 휴대전화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어 휴대전화 한 대로 음악, TV, 사진, 인터넷, 교통카드, 교통 안내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메모리,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카메라, MP3 플레이어, 방송수신, 영상통화, 무선인터넷,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쉽게 결합하게 되고, 휴대전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다른 기능들이 디지털에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 스마트폰이란?

- 휴대전화에 인터넷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면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결합된 형태이다.
- 일정관리·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메일·웹브라우징·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이 가능하다.

- TV와 라디오 시청취 등의 방송 서비스와 카메라, 캠코더, MP3 기능, 무전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 WiFi(와이파이) 기능을 활용해 음성패킷망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
-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전화와는 달리 수백 여 종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스마트폰의 역사

-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2년 IBM이 개발한 ‘사이먼 Simon’으로 1993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 1996년 노키아에서 휴대전화 상품에 휴렛팩커드의 PDA를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너무 비싼 가격 등을 이유로 대중화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 이후 스마트폰을 위한 여러 전용 운영체제가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 와서는 RIM사의 ‘블랙베리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터치 스크린 기술이 결합되면서 스마트폰이 PDA를 대체함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 국내에서는 2009년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삼성 갤럭시·LG 옵티머스·SKY 베가·구글 넥서스원 등 많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 용어 설명

● 컴퓨터(Computer)

- 컴퓨터는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만능기계로서, 1944년 최초 전자계산기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만들었으며, 1945년 펜실베이

아대학에서 에니악(ENIAC)으로 최초의 진공관을 사용한 컴퓨터를 만든 것이 시초이며,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 컴퓨터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양하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다. 이 사이트에서 SNS를 할 수 있는 것이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멜론>, <인스타그램>, <위챗> 등 너무 많이 있다.

● 인터넷(Internet)

-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부의 고등계획에 따라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하여 개발한 인터넷 모체로, 아르파넷(ARPANET)가 인터넷의 시초이다. 처음에는 미국 각지에 분산되어있는 연구소와 대학 간의 교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통신망이 되었다.

● 포털사이트(portal site)

- 포털(portal)은 입구·관문이며, 사이트(site)는 장소라는 뜻이다. 컴퓨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이다.

● SNS (Social Network Service)

- S는 social(소셜), N은 network(네트워크), S는 service(서비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다. 사회적 조직망을 위한 서비스, 사회적 인맥 관계 유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인과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 네이버(Naver)

• 1997년 2월 26일 이해진 등으로 구성된 삼성 SDS의 사내 벤처에서 ‘웹글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98년 1월에 분리된 네이버컴(주)에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주)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항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2019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내 검색 점유율 58.8%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이다.

● 다음(Daum)

• 1995년 2월 박건희와 이재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동 설립하여 ‘한메일’(현재의 다음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웹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밖에도 ‘다음카페’, ‘다음뉴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운영업체는 본래 다음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현재는 (주)카카오이다.

● 이메일(E-mail)

• e는 electronic(일렉트로닉), 전자라는 뜻이다. mail(메일) 우편(전자우편), 즉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컴퓨터 사용자 간의 편지나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개인의 통신방법을 말한다.

● 앱(Application) 또는 어플

• 앱은 응용 소프트웨어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다. 소프트웨어(software), 즉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화면에 하나하나의 아이콘(모양 속이나 밑에 제목이 쓰인 것)을 애플리케이션(앱)이라 한다.

● 블로그(blog)

• 블로그라는 말은 웹(web)과 로그(log, 기록)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일기처럼 차곡차곡 적어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처음에 나왔던 블로그에는 단순히 텍스트인 글을 올리고 읽는 기능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진·음악·플래시·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 트위터(Twitter)

• 트위터는 2003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반윌리엄스·비즈스톤·잭도시 3명이 공동대표로 설립한 회사이다. 트위터란 말은 ‘지저귀다, 재잘거리다’라는 뜻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단문으로 만들어서 발송이 가능하다.

● 페이스북(facebook)

• 페이스북은 face(페이스 : 얼굴) book(북 : 책)이란 뜻으로, 얼굴책·사진첩 또는 앨범이란 뜻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여기에는 대부분 사람들 인물 중심으로 서로 간의 의사전

달을 한다. 페이스북 창시자는 미국의 마크주커버그이다. 페이스북은 개인의 의견은 물론 상대방과 문자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까지 접수 및 발송이 가능하다.

● 유튜브(YouTube)

•유튜브는 2005년 2월 미국의 채드헐리·스티브첸·자워드카림이 공동으로 창립했고, 2006년 10월 구글이 인수했다. 유튜브는 미국의 인기 있는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이며, 매일 1억 개의 비디오 조회 수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음악, 유머, TV, 오락, 영화 등을 보는 사이트이다.

● 구글(Google)

•구글은 1998년 7월 레리페이지·세르게이브린 두 사람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10의 100승”이란 의미를 뜻하는 수 학용어 구골(Googol)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만들었다. 구글은 전세계적인 기업이며, 이미지·지도·항공사진 및 외국어 번역 등 너무 광범위하며, 특히 ‘구글번역기’는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역할을 한다.

● 카카오톡(Kakao Talk)

•카카오톡은 (주)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카카오톡

을 줄여서 ‘카톡’이라 한다. 카카오톡은 상대방과 단순한 대화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톡의 주 기능으로는 상대방에게 메시지·사진·동영상·음성 그리고 연락처 등을 전송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계정을 이용해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다.

●팔로우(follow)·팔로잉(following)·팔로워(follower)

SNS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팔로우, 팔로잉, 팔로워에 대해 알아본다.

① ‘팔로우’는 누군가를 따른다는 뜻으로, ‘팔로잉’과 같은 의미이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하여 ‘팔로우’할 상대방을 찾아서 내가 상대방을 등록하면 상대방은 내 ‘팔로잉’이 된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면, 내 계정에서 상대방은 <팔로잉>으로 표시된다. (★내가 등록한 상대방은 <팔로잉>이다)

②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내 계정에서 그 사람은 <팔로워>로 표시된다. (★나를 등록한 상대방은 <팔로워>이다)

③ 내 계정에서 <팔로워>의 아이디 옆에는 “맞팔로우(필로잉)”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여기서 맞팔을 하여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된다.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세수 世數	휘 諱	시제일	묘 소	비 고
1세	언偃	음 3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평가산	중랑장공
	2세 계진季眞, 4세 신고愼交 : 府使公, 5세 경친敬親			중랑장공과 같은 날 봉사
1세	제(提)	음 10월 15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사정공
	2세 경진敬眞, 3세 귀종貴宗, 4세 효존孝存, 5세 익사益師 6세 말남末男, 7세 숭수崇秀, 8세 득린得鄰, 9세 준헌俊獻 10세 석현碩賢, 11세 이후以厚			사정공과 같은 날 봉사
2세	탁진卓眞	음 10월 15일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백련산	송은당공
	3세 중달仲達, 4세 숙손叔孫, 5세 세상世相, 6세 언국彦國 7세 천수天壽, 8세 익남益男, 9세 운창運昌			송은당공과 같은 날 봉사
3세	영달穎達	음 10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북성산	참의공
	10세 이구以久 : 道林, 묘소 : 광산구 명도동 장탄산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중愼中	음 3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와동	금성군
	7세 원諫 : 庶尹公			금성군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의愼儀	음 3월 13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산 11	내금위공
	5세 첩牒, 6세 명복命福			내금위공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치自治	음 3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나성군
	6세 세훈世勳 : 羅原君, 7세 겸謙 : 錦陽君 ※ 부조묘 제사 나성군 음 6월 3일, 정부인(여씨) 음 3월 19일			나성군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형自溍	양 10월 첫째 일요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41-4	정언공
	6세 세우世佑 외 15위			정언공과 같은 날 봉사
6세	세익世翊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상호군공

7世	인(訥)	음 3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칠송공
	8世 언호彦虎, 9世 극의克義, 10世 이건以健, 11世 준표俊標			칠송공과 같은 날 봉사
8世	언관彦寬	음 3월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복룡산	파성공
	9世 준신俊臣, 10世 이항以亢			파성공과 같은 날 봉사
8世	언린彦麟	음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참판공
	9世 희철希哲, 10世 이경以敬, 11世 문석文錫			참판공과 같은 날 봉사
8世	언표彦彪	음 3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곡척등	참봉공
	9世 희일希一, 11世 효석孝錫			참봉공과 같은 날 봉사
8世	언인彦仁	양 4월 첫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백양동	송계공
	9世 희중希中, 10世 이해(以海)			송계공과 같은 날 봉사
8世	언지彦智	약 3월 20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지봉공
8世	언예彦禮	음 4월 8일	전북 정읍시 공음면 군유리	난봉공
8世	명한命漢	음 10월 첫째 일요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송조당)	참의공(송은당공파)
	9世 계선繼善, 10世 정익廷益, 11世 필신必信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世	희량希亮	음 3월 20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영성산	참의공
	10世 이인以仁, 이신以信, 이공以恭, 이검以儉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世	희길希吉	음 10월 10일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고례	도암공
	10世 이정以精, 11世 홍석洪錫			도암공과 같은 날 봉사
9世	희도希道	음 10월 9일	전남 화순군 북면 수리 토지등	명곡공
	10世 이두以斗, 이규以奎			명곡공과 같은 날 봉사
10世	이익以翼	양 11월 첫째 일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석문산	석문공
	9世 희유希有 묘소 : 본량 왕동 원당 남산, 11世 봉석朋錫			석문공과 같은 날 봉사

나주오씨 선조의 사당祠堂 제향일祭享日

사당	호	휘諱	제향일	주관	장 소	비고
백련사 白蓮祠	송은당 松隱堂 서파西坡 연강蓮江 연호蓮湖 오재梧齋 백련당 白蓮堂 연정蓮汀	탁진卓眞 명수命壽 정남挺男 익남益男 석남碩男 운창運昌 승환勝換	3월 27일	후손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성지마을	
원당영각 元堂影閣	나성군 羅城君	자치自治 (시호: 양평襄平)	음 9월 15일	후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415-1	
광산사 廣山祠	금양군 錦陽君	겸謙 (시호: 정간貞簡)	음 9월 9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77번지	
금암사 琴巖祠	도암韜庵	희길希吉	음 9월 18일	유림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마명마을	
대명사 大明祠	우암尤菴 생로당 生老堂	송시열宋時烈 효석孝錫	음 3월 12일	후손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507 영사재	
도림사 道林祠	노사蘆沙 후석後石 난와難窩	기정진奇正鎭 준선俊善 계수繼洙	4월 넷째 주 일요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도림	
용진영당 湧珍影堂	후석後石 북파北坡 도호道湖	준선俊善 헌수憲洙 동수東洙	음 3월 10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결혼을 축하합니다



- 2019. 04. 06. 오교웅 종무위원(장탄 문중) 장남 종관 군 결혼
- 2019. 07. 06. 오형근 총무부회장(내금위공 문중) 차녀 영옥 양 결혼
- 2020. 06. 06. 오규열 종무위원(장탄 문중) 딸 상미 양 결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9. 03. 19. 오청근 부회장(내금위공 문중) 모친 별세
- 2019. 03. 30. 오철수 고문(송은당공 문중) 별세
- 2019. 03.00. 오사진 전 상임고문(송은당공 문중) 별세
- 2019. 09. 23. 오재협 고문(지봉공 문중) 별세
- 2019. 12. 11. 오신근 종무위원(내금위공 문중) 모친 별세
- 2020. 07. 02. 오동식 고문(사정공 문중) 별세

나주오씨대종회 조직기구표



* [註] : 2019.03.24. 개정(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시행)된 대종회 회칙에 따름.

2020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회의 안건

- 2019 회기 감사보고 -----122
- 제1호 안건 : 2019년도 사업집행 및 2019 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1. 2019년도 주요사업집행 보고 -----123
 - 2. 2019년도 사업계획안 -----125
- 제2호 안건 : 2019 회기 결산 및 2019 회기 예산에 관한 건
 - 1. 2019 회기 결산(총괄) 보고 -----127
 - [첨부자료] 2019 회기 회비·협찬금 입금내역 -----130~132
 - 2. 2020 회기 예산안 -----133

□ 공지 및 협조요청 사항

- 1. 신유보(子孫錄) 전산화에 따른 〈전자족보〉 신규·변경 등록
-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본관 정정) 신청 추진

나주오씨대종회

2019 회기 감사보고

1. 감사일시 : 2020. 1. 27
2. 감사장소 : (서울) 대종회 사무실, (광주)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3. 감사기준일 : 2019. 1. 1 ~ 2019. 12. 31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종무사항

대종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건(보첩, 회원명부, 대종보,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잘 관리·정리·보관하고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2) 회계사항

- 2018년도 이월금 97,525,079원과 당기 회비 및 협찬금 수입 등 39,944,764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137,469,843원으로, 전년 대비 8,275,00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총지출액은 34,256,020원이며,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후 103,213,823원이 2020년도 회기로 이월되었습니다.
- 차기이월금 103,213,823원 중 80,579,795원은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이며, 서울 DB저축은행에 45,578,702원을, 광주 동양저축은행에 35,001,093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이월금 중 나머지 22,634,028원은 서울본부에서 9,614,810원을, 호남본부에서 13,019,218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항목별 지출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며 회계처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3) 제안사항

- 임원 종무위원 등 종친들의 회비 납부율이 담보상태인 점에 대한 대책과 대종회의 자금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 대종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나주오문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특별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2020년 2월 일

나주오씨대종회 감사 오 동 근



감사 오 승 기



2019년도 주요 사업 집행 보고

사 업 명	추진 결과	비 고
1. 종무회의 개최	• 일자: 2019.02.10. • 장소: 대전,孝문화마을 대강당	• 대종회 회칙 개정 - 대종회 '사업' 추가 - 종무원장 제도 폐지 및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도입
2. 정기총회 개최	• 일자: 2019. 03. 24. • 장소: 동강초등학교 백련관 - 송은당공 문중 주관 ※대종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3. 임원회의 개최	• 서울: 2019.01.16. • 호남: 2019.01.30.	”
4. 제20호 대중보 발간	• 2019.03.24. 정기총회일에 발간 -배포 수량 : 1,000부	
5. 2019년도 대종상 표창 및 장학금 수여 등 (2019.03.24. 정기총 회 시)	• 대종상(효자상): 오종렬(송은당공 19대손, 1937년생), 故나경자 (송은당공 17대손 오찬수의 처, 1925년생) • 장학금 수여: 오수빈(송은당공 18대손, 1997년생, 목포대 전자상거래학과 3년) • 공로패 수여 -오의곤(영남지역본부장), -오양근(서울경기지역본부장) -오현교(재무 부회장)	
6. 오자치 초상 초상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 -행사일시 : 2019.06.03.(월) 오후2시 -행사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 오자치 초상 특별전시 -전시기간 : 2019.05.28. ~ 06.30.(34일간) -전시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	• 학술강연회 행사 당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오자치 초상 복제본 1점을 인수함.
7. 본관정정 추진 (계속사업)	• 2019년 본인확인서 발급 : 15건 (본관 정정 완료 인원수 : 55명)	

사 업 명	추진 결과	비 고
8. 원당 시제 참제	• 2019.04.20.(음3.16.) 나성군(諱自治), 나원군(諱世勳), 금양군(諱謙)	
9. 금양군 정향제 참제	• 2019.10.07.(음9.9.) 광산사廣山祠 금양군(諱謙) 정향제	
10. 나성군 정향제 참제	• 2019.10.13.(음9.15.) 시기재始基齋 나성군(諱自治) 정향제	
11. 고창군오씨대동종친회, 원당 나성군 유적지 및 담양 명옥헌 방문	• 22019. 11. 04. 고창군오씨대동종친회 종원 80여 명이 광산구 왕동(원당) 소재 나성군 유적지 및 담양 소재 명옥헌 방문	• 원당 나성군 신도비 앞에서 오현교 부회장 사회로 참석, 종친 소개와 환영 행사를 갖고, 기념품과 양평공(나성군)종중에서 준비한 '나주오문의 4대 봉군' 유인물, 오자치초상 학술강연회 자료 등을 전달함.
12. 전자족보DB 구축 및 운영	• 자손록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추진 • 신유보 자손록(20개 파별) PDF파일 업로드	
13. 대중회 공식 블로그 개설(네이버 블로그)	• 22019. 09. 29. 대중회 블로그 개설 (najuohorkr.blog.me) - 나주오씨 뿌리에 관한 정보 제공 - 대중회 연혁, 행사소식 등 각종 정보 제공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있는 전자족보를 제외한 대중회 홈페이지의 대부분 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14. 추계 임원·종무위원 단합대회 실시	• 서울지역본부 2019.10.12. 양재 문화예술공원	
15. 정기예금 재예치 (완료)	• 서울 DB저축은행 재예치 원금 45,578,702원(이자 포함) (처리일: 2019. 06. 04.) • 광주 동양저축은행 재예치 원금 35,001,093원(이자 포함/ 300만원 추가하여 예금) (처리일: 2019. 10. 07.)	

2020년도 사업계획안

사업명	추진계획	비고
1. 중조中祖(諱淑珪) 이하묘소실전선조의 단소壇所조성과 제단祭壇·비碑 설치	• 종사연구위원회에서 사업 사전 검토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수립 (단소 설치장소 선정, 비문 제정, 설치비용 재원확보 방안 등)	
2. <나주오씨의 뿌리 바로알기> 소책자 제작·배포	• 편집위원회 구성 • 기존 작업 내용을 검토·수정·보완하여 「소책자 편집안」 마련 • 「소책자 편집안」 종사연구위원회 심의 • 「소책자 편집안」 종무회의 심의·의결 • 소책자 제작·배포	
3. 대중회 휘장徽章 (symbol mark) 제정 및 종기宗旗 제작	• 응모 건을 대상으로 대중회 휘장 제정한 후, 종기 제작	• 휘장 응모 건수 : 5건.
4. 장학기금 조성을 위 한 장학회 설립	•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 「나주오씨장학회 규정」 제정 • 임원진(운영위원회) 구성 • 장학기금 조성 추진	• 장학재단 법인설립 전까 지 <나주오씨장학회> 잠 정 운영 • ‘20.02.09. 종무회의 직 후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하여 장학회 규정 제정
5. 본관정정 추진 (계속사업)	• 문중별 추진간사 지정하여 적극 추진	
6. 대중회 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 • 홈페이지 개선방안 수립·시행	-2002.05.10. 대중회 홈페 이지(najuoh.or.kr) 개설
7. 전자족보 DB 구축	• 전자족보운영위원 구성 • 「전자족보 운영규정」 제정 • 신유보 자손록 입력 추진	-2010.09.10. 전자족보DB 개발 완료하고, <u>신유보 보계譜系에 따라</u> 생존 종원 중심으로 자손 록을 입력 중에 있음.

8. 종무회의 개최	• 2020.02.09. 대전시孝문화마을	-호남지역본부 유사
9. 정기총회 개최	• 2020. 03.22. 광주 삼도초등학교	-석문공 문중 주관
10. 임원회의 개최	• 2020. 01. . 중순 및 수시	-지역본부별 개최
11. 제21호 대종보 발간	• 2020.03.22. 정기총회 시 배포 (1000부 발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대종회 홈페이지 접속하 여 열람 가능
12. 2020년도 대종상 표창 및 장학금 수여	• 2020.03.22. 정기총회 시 실시	-석문공 문중과 협조
13. 정기에금 재예치 (예정)	• 서울 DB저축은행 원금 45,578,702원 + 이자 (만기일) 2020. 06. 04. • 광주 동양저축은행 원금 35,001,093원 + 이자 (만기일) 2020. 10. 07.	

2019 회기 결산(총괄)

(기간 : 2019. 01. 01~2019.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서울경기	호남	계		서울경기	호남	계
2018년 이월금	85,842,109	11,682,970	97,525,079	정기총회비	3,230,200	3,130,000	6,360,200
회비 수입	18,200,000	14,140,000	32,340,000	중무회의비	2,555,730	245,500	2,801,230
정기예금 추가(호남)	3,000,000		3,000,000	중보발간비	6,200,000		6,200,000
정기예금 이자 등	1,602,476	1,888	1,604,364	장학금		1,000,000	1,000,000
잡이익	400		400	임원회의 단합대회	876,600	500,000	1,376,600
지역간 이체(호남)	3,000,000		3,000,000	홈페이지 유지비	264,000		264,000
				지역간 이체(서울)		3,000,000	3,000,000
				사무실 관리비	2,177,610	237,000	2,414,610
				사무실 유지비	1,277,700		1,277,700
				교통, 출장, 활동	2,300,500	80,000	2,380,500
				통신비	618,980	167,100	786,080
				잡손실	3,520		3,520
				UMS 수수료		820	820
				세금(재산세 등)	399,540	220	399,760
				정기예금 추가(서울)		3,000,000	3,000,000
				경조사비	1,135,000	145,000	1,280,000
				초상기증 행사경비	411,000	1,300,000	1,711,000
2019년 수입 계	25,802,876	14,141,888	39,944,764	2019년 지출 계	21,450,380	12,805,640	34,256,020
				차기이월금	90,194,605	13,019,218	103,213,823
				(정기예금)	(80,579,795)	(0)	(80,579,795)
				(현예금이월)	(9,614,810)	(13,019,218)	(22,634,028)
합 계	111,644,985	25,824,858	137,469,843	합 계	111,644,985	25,824,858	137,469,843

* 차기이월금 103,213,823원에는 정기예금 80,579,795원이 포함됨.

(정기예금내역: <서울> DB저축은행 45,578,702원 + <광주> 동양저축은행 35,001,093원)

□대중회 부동산 소유 현황 (2019. 12. 31. 현재)

부동산 구분	소재지	지목/건물용도	토지/건물면적	취득가	취득일자	소유권이전 등기
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대중회 사무실 (테헤란오피스 빌딩 6층 608호)	건물 전유면적 24.12㎡(7.3평)	취득가액 8,000만원 이전비용 등 541만원 합계 8,541만원	2000. 07. 20.	2000.07.20.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임야	전남 나주시 송월동 산 6-3	임야	토지면적 6,614㎡(2,000평)	취득가액 5,500만원 이전비용 등 131만원 합계 5,631만원	2002. 06. 10	2003.12.11.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註] 나주시 송월동 임야는 2015.10.08.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음.

(가) 2019 회기 결산(서울·경기지역본부)

(기간 : 2019. 01. 01~2019.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2018년 이월금	85,842,109	정기총회비	3,230,200
회비 및 협찬금	18,200,000	종무회의비	2,555,730
이자·기타 수입	1,602,476	종보발간비	6,200,000
지역간 이체(호남)	3,000,000	홈페이지 유지비	264,000
정기예금 추가(호남)	3,000,000	임원회의. 단합대회	876,600
잡이익	400	사무실관리비	2,177,610
		사무실유지비	1,277,700
		통신비(전화, 인터넷)	618,980
		활동·교통비	2,300,500
		경조사비	1,135,000
		세금(재산세 등)	399,540
		초상기증식 행사경비	411,000
		잡손실	3,520
2019년 수입 계	25,802,876	2019년 지출 계	21,450,380
		차기이월금	90,194,605
		(정기예금)	(80,579,795)
		(현예금이월)	(9,614,810)
합 계	111,644,985	합 계	111,644,985

※ 차기이월금 90,194,605원에는 정기예금 80,579,795원이 포함되어있음.

(정기예금내역: <서울> DB저축은행 45,578,702원 + <광주> 동양저축은행 35,001,093원)

(나) 2019 회기 결산(호남지역본부)

(기간 : 2019. 01. 01~2019. 12. 31.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2018년 이월금	11,682,970	총회 지원금	3,130,000
회비 및 협찬금	14,140,000	종무회의비	245,500
이자 수입	1,888	정기예금 추가(서울)	3,000,000
		임원회의비(4회)	500,000
		장학금	1,000,000
		사무실관리비	237,000
		출장 및 교통비	80,000
		통신비	167,100
		경조사비	145,000
		세금	220
		지역간 이체(서울)	3,000,000
		초상기증식 행사시 경비	1,300,000
		UMS 수수료	820
2019년 수입 계	14,141,888	2019년 지출 계	12,805,640
		차기 이월금	13,019,218
		(정기예금)	(0)
		(현예금이월)	(13,019,218)
합 계	25,824,858	합 계	25,824,858

[첨부자료]

2019 회기 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

(기간:2019. 01. 01~2019. 12. 31/ 단위:원)

□ 서울·경기지역본부 : 18,200,000원

◆ 집행부 임원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회장	오근성	석문공	5,000,000	서울경기본부장	오양근	장탄	300,000
종사연구위원장	오종만(洙)	금양군	200,000	영남본부장	오익곤(洙)	송은당공	300,000
부회장	오기선	금양군	200,000	부회장	오공수	송은당공	200,000
	오관수	송은당공(19)	200,000		오학수	송은당공(18,19)	300,000
	오근신	송은당공	200,000		오맹근	내금위공	200,000
	오두성(根)	송은당공	200,000		오근태	내금위공	200,000
	오근국	송계공	200,000		오경근	장탄	200,000
총무부회장	오형근	내금위공	200,000		오채근	내금위공	200,000
부회장	오 열	장탄	200,000		오진열	명곡공	200,000
	오강렬	난봉공	200,000		오동렬	장탄	200,000
	오정열	장탄(18, 19)	400,000		오남렬	장탄	200,000
	오상기(烈)	참의공	500,000		오전열	석문공	200,000
	오재열	부사공	200,000		오경남(烈)	부사공	200,000
	오운열	석문공	200,000		오동(烈)	장탄	200,000
	오교철	칠송공	200,000		오양균	명곡공	200,000
	오대균	명곡공	200,000		오백교	장탄	200,000
	오창교	장탄	200,000	감사	오승기(泳)	명곡공(18,19)	400,000
조직부장	오건열	석문공	100,000	홍보부장	오종문	참판공	200,000
여성부장	오정숙	장탄	100,000	소 계	(37명)		13,000,000

▶ 2020.01.01. 이후 입금분 : 오관수 부회장(송은당) 200,000(20), 오남렬 부회장(장탄) 200,000(20)
오대균 부회장(명곡공) 200,000(20), 오종선 재무부장(장탄) 200,000 (19, 2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민선	송은당공	100,000	종무위원	오대규(洙)	금양군	100,000
	오신근	내금위공	100,000		오기근	송계공	100,000
	오근용	송계공	100,000		오창근	석문공(18,19)	200,000
	오병렬	내금위(18,19)	200,000		오민열	장탄	100,000
	오초섭	장탄	100,000		오재열	석문공	100,000
	오형교	장탄	100,000		오송균	칠송공	100,000
	오봉균	송계공	100,000		오영오(敎)	장탄(18,19)	200,000
	오정균	장탄(18,19)	200,000		오대수(泳)	칠송공	100,000
	오명수(泳)	칠송공	100,000		오윤수(泳)	칠송공	100,000
				소 계	(18명)		2,200,000

▶ 2020.01.01. 이후 입금분 : 오성근(석문공) 100,000(20), 오윤근(상호군공) 100,000(20), 오채열(장탄) 100,000(20), 오재열(칠송공) 100,000(20)

◆ 고문·기타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고문	오승설(춘근)	참의공	1,000,000	단체	영남중친회	송은당공	300,000
	오재남(敎)	장탄	100,000	총무부회장	오기주	송계공	1,000,000
	오세교	장탄	200,000	회원	오유근	장탄	100,000
	오교한	칠송공	100,000	회원	오사근	내금위공	200,000
				소계	(8명)		3,000,000

▶ 2020.01.01. 이후 입금분 : 오수산악회 300,000, 오재교 회원(송계공) 200,000

□ 호남지역본부 : 14,140,000원

◆ 집행부 임원

(단위 : 원)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총무원장	오정균	장탄	450,000	부회장	오인선	송은당공	200,000
호남본부장	오무송(洙)	금양군	250,000		오판수	송은당공	310,000
부회장	오길빈(洙)	석문공	200,000		오성수	금양군	270,000
	오곤수	석문공	250,000		오병엽(洙)	사정공	200,000
	오행근	석문공	220,000		오헌상(根)	송은당공	200,000
	오인국(根)	송계공	200,000	총무부회장	오기주(根)	송계공	200,000
감사	오동근	금양군	350,000	부회장	오희성(根)	석문공	200,000
부회장	오희석	송계공	200,000		오영근(烈)	장탄	200,000
	오은열	석문공	450,000		오창희(烈)	석문공	200,000
	오필렬	칠송공	210,000		오수열	부사공	200,000
	오종순(烈)	사정공	2,000,000		오광교(면장)	장탄	200,000
	오성교	장탄	200,000		오광교	장탄	200,000
	오병균	칠송공	200,000		오찬균	칠송공	220,000
재무부회장	오현교	칠송공	250,000		오낙균	명곡공	200,000
여성부장	오영란(烈)	석문공	100,000	소계	(29명)		8,530,00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영택(洙)	정언공	100,000	종무위원	오금수	송은당공	110,000
	오경수	석문공	100,000		오연수(나주)	송은당공	100,000
	오홍교(根)	사정공	100,000		오병근	송은당공	100,000
	오오근	내금위공	100,000		오기영(根)	사정공	100,000

	오현근	송은당공	100,000		오안모(根)	금양군	100,000
	오도근	석문공	180,000		오동석(根)	장탄	100,000
	오현근	송계공	100,000		오성환(根)	송은당공	110,000
	오형근	상호군공	100,000		오기섭	부사공(광천동)	100,000
	오관섭(烈)	부사공	100,000		오영현(烈)	석문공	110,000
	오기섭(烈)	정언공	100,000		오송렬	송계공	100,000
	오금렬	송계공	100,000		오택렬	장탄	100,000
	오왕렬	장탄	100,000		오천년(敎)	칠송공	100,000
	오경교	참판공	110,000		오건교	칠송공	100,000
	오순교	장탄	100,000		오찬교	장탄	100,000
	오교웅	장탄	100,000		오종선	부사공	100,000
	오상운(鍾)	칠송공	100,000		오영일(鍾)	칠송공	100,000
				소 계	(32명)		3,320,000

◆ 고문 · 기타

상임고문	오인수	송은당공	250,000	회장	오근성	석문공	300,000
고문	오효근	석문공	200,000		양평공 문회		200,000
	오광섭	장탄	30,000		오성산약회		200,000
	오중섭	장탄	150,000		명곡공 문중		200,000
	오희열	장탄	110,000		장탄문중		200,000
	오영교	참판공	200,000		칠송공문중		100,000
	오종원	장탄	100,000				
	오정섭	장탄	50,000	소 계	(14명)		2,290,000

2020 회기 예산안

(서울경기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총괄)

(기간 : 2020.01.01~2020.12.31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비 및 협찬금	30,000,000	정기총회비	6,200,000
광고비	2,500,000	종무회의비	4,000,000
기타수입	1,500,000	임원회의비	1,500,000
		증보발간비	6,200,000
		사무실유지비	3,800,000
		장학금	1,000,000
		중사연구위원회 운영비	1,200,000
		경조사비용	1,5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500,000
		전기. 통신비	1,600,000
		예비비	3,500,000
합 계	34,000,000	합 계	34,000,000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정	1999. 12. 05	일부개정	2009. 03. 22
일부개정	2000. 09. 24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02. 02. 17	일부개정	2015. 03. 29
일부개정	2002. 09. 08	일부개정	2017. 03. 26
일부개정	2003. 02. 09	일부개정	2018. 03. 25
일부개정	2006. 03. 26	일부개정	2019. 0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나주오씨대종회(羅州吳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 (회원)

본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관계등록법)상 본관(本貫)이 나주(羅州) 또는 금성(錦城)으로 되어있는 오씨 후손으로서 국내외 거주하는 성년자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나주(금성)오씨 종원의 구심체로서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숭조사업을 수행하며, 종원 상호 간의 화목 단결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종문의 발전에 힘쓰고, 육영정신으로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조(휘 숙규) 이하 묘소 실전 선조의 단소(壇所) 조성 및 제단·비 설치 및 보존 관리
2. 중조 이하 묘소 실전 선조 및 기세조의 향사 봉행 또는 지원
3. 선조의 유덕 현양 및 선조의 유적·유물의 보존 관리
4. 족보·문집·지장 등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5. 족보 편찬, 종보·간행물 발간, 전자족보·홈페이지 운영

6.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장학사업 및 경로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역본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편의에 따라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서울·경기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과 특별임원을 둔다.

① 임원

1. 회장 1인
2. 종무원장 1인
3.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호남지역본부장, 영남지역본부장(당연직 부회장) 각 1인
4. 부회장 20인 내외
5. 감사 2인
6. 상임고문 약간 명
7. 총무·재무·조직·홍보·청장년·여성 등 각 부장 약간 명

② 특별임원

1. 고문 약간 명
2. 종사연구위원장
3. 종무원 100인 내외(당연직 제외)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과 특별임원을 둔다.

1. 임원

가. 상임고문 약간 명

나. 회장 1인

다. 수석부회장 1인

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호남지역본부장, 영남지역본부장(당연직 부회장) 각 1인

마. 부회장 20인 내외

바. 감사 2인

사. 사무국장(당연직 부회장) 1인

아. 총무·재무·조직·홍보·청장년·여성·장학사업 등 각 부장 약간 명

2. 특별임원

가. 고문 약간 명

나. 종사연구위원장 1인

다. 종무위원 100인 내외(당연직 제외)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제6조 (임원 선출)

① 회장·종무원장·부회장·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안배한다.

② 상임고문은 전임 종친회 및 대종회 회장(직무대행 포함)을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과 각 부 부장은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원(고문·종무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 및 선출한다.

제6조 (임원 선출)

①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안배한다.

② 상임고문은 전임 회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지역의 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부의 부장은 사무

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원 중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종무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종사연구위원장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선출·임명한다.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2월 종무회의일]

제7조 (임원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종무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대종회 실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부회장과 협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간의 친목·화합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④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대종회 운영에 반영한다. 부회장은 각 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⑥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각종 회의 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⑦ 재무부장은 제 회비·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⑧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가입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시 참석 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각파 소문중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소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무원장에게 보고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 명부·종보 등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⑩ 청장년부장은 청년 회원 및 장년 회원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 ⑪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 명단을 작성·관리하고, 미가입 여성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⑫ 고문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고문회의를 소집 자문을 구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는 이를 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등 임무)

- ①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부회장과 협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간의 친목·화합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 ⑤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대종회 운영에 반영한다. 부회장은 각 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 ⑦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종회 종무를 관장한다.
- ⑧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각종 회의 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⑨ 재무부장은 제 회비·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다만, 나주오씨장학회의 장학기금 출납과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 ⑩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가입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시 참석 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각파 소문중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소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무원장에게 보고한다.
- ⑪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 명부·종보 등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⑫ 청장년부장은 청년 회원 및 장년 회원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⑬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 명단을 작성·관리하고, 미가입 여성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⑭ 장학사업부장은 본회가 별도 설립·운영하는 나주오씨장학회의 기금모금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제8조의 2 (임원의 자격정지)

① 본회의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임원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조의대종회 목적 사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나주오문의 씨족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등 종원간의 화합과 단결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출판물에 의하여 나주오씨 선조님, 문중 또는 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3.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여 본회로부터 회칙 위배사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당 임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3 (임원의 보수 등)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무에 봉사한다. 다만, 회무의 성격상 실비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종무회의·고문회의 등을 둔다.

제1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양력 3월 4번째 일요일 12시에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 인준한다.

1. 임원 구성
2. 회칙 개정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회무

② 정기총회는 전국의 나주오씨 집성촌을 순회하며 개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종무회의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문 추대
2. 종무위원 선출
3. 각종 회비 규모
4. 포상에 관한 사항
5. <대중회보> 편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승인
7. 기타

제12조 (종무회의)

① 종무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당연직 종무위원)과 10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무회의는 연 1회 양력 2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종무원장·부회장·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9. 기타

제12조 (종무회의)

① 종무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당연직 종무위원)과 10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무회의는 연 1회 양력 2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9. 기타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2월 종무회의일]

제1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회한다.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1/3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성회 요건 충족에만 유효하다.

제14조 (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종무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4조 (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사무국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본조 개정일: 2019.03.24./시행일:2020년 3월 정기총회일 이후]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비
2. 임원회비
3. 특별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단, 1호와 2호의 회비 규모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재산관리)

-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구청에 등록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284113-1126010) 및 등록명칭(나주오씨대종회)으로 등기한다.
- ② 본회의 금융자산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457-80-00409)에 따라 단체명(나주오씨대종회)으로 예치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별로 경비지출 거래용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간행물·포상·예절

제18조 (대종회보 발간)

본회는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대종회보>를 발간, 전국 종원에게 배포한다.

제19조 (간행물 등 사전승인)

나주오씨 씨족 관련 연구물과 저작물을 간행하고자 하거나 기세조(起世祖)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설단을 포함한 제례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나주오씨대종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포상 및 장학금)

-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남겼거나 평소 숭조효친(崇祖孝親)에 남다른 면을 보인 종원에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大宗賞) '효행상·덕행상·공로상' 등을 시상한다.
- ② 숭조사상이 투철하고 종문을 빛낼 유능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참배)

본회 회원 특히 임원은 1년에 한 번 도선묘(都先墓,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신정마을 평가산 소재)에 참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제일(時祭日, 時享日)은 음력 3월 9일이다.

제22조 (종친간 예절)

종원 간에 향렬이 높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향렬이 높더라도 향렬이 낮은 분의 생년월일이 1년 이상 빠르면 종원 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 양존한다. 단, 파 문중 안에서는 파 문중 관습에 따른다.

제6장 위원회

제23조 (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1999. 12. 5)

본 회칙은 1999년 12월 5일 창립총회 결성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부칙(2000. 9. 24)

본 회칙은 2000년 9월 24일 제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7)

본 회칙은 2002년 2월 17일 제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9월 8일 제3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종회원장과 종회의원 및 각 간사는 개정 회칙에 의해서 종무원장과 종무위원 그리고 각 부장으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2003. 2. 9)

본 회칙은 2003년 2월 9일 제4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6)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 제5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2)

본 회칙은 2009년 3월 22일 제6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5)

본 회칙은 2012년 3월 25일 제7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9)

본 회칙은 2015년 3월 29일 제8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6)

본 회칙은 2017년 3월 26일 제9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5)

본 회칙은 2018년 3월 25일 제10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4)

이 회칙은 2019년 3월 24일 제1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임원 선출) · 제12조(종무회의)는 2020년 2월 종무회의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임원) · 제8조(임원임무) · 제8조의3(임원의 보수 등) · 제14(회의록)는 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시행한다.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제 정 2008. 09. 21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17. 03. 26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와 각종 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씨족사를 정립한다.

2. 제반 종사 문제에 관하여 전체 문중 간의 합의 도출 또는 동의 등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총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총회의 산하에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서울과 호남지역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호남지역에 간사를 둔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선출 등)

- ① 위원은 대총회의 임원 또는 각 문종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 ③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및 제8조의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2. 03. 25 개정)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물, 저작물 간행에 관한 사항

3. 선조에 대한 제례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왜곡 서술된 씨족사 자료의 발굴 및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종무회의에 보고하고, 종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회 고유 심의사항 이외에 임원회의에서 별도 심의 요청한 사항이 있을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임원회의에 회부한다.(2012. 03. 25. 본조 개정)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총회 회칙 제19조(간행물 등 사전 승인) 규정에 해당되어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오씨대중회 임원 명부

■임원 주소록 정비 안내

임원 명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변경된 경우
대중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중회 사무실 연락처 ☎ 02-2275-5574

□ 상임고문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상임고문	오인수 吳仁洙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102동 703호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062-224-1785	1938 (수)	나주 동강 61629
		전 대중회 회장(7, 8대)전 초등학교 교장 (號 松齋) (송은당공)	010-2684-1785		

□ 고문

고 문	오경호 吳慶浩	울산광역시 중구 명정11길 31(태화동)	052-297-6109	1936 (신)	울산 44435
		(송은당공)	010-8503-6109		
	오몽룡 吳夢龍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10, 203동 802호(우정동, 선경2차A)	052-246-2718	1937 (신)	울산 44465
		(송은당공)	010-9611-2718		
	오문곤 吳文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11번길 36(부곡동)	051-515-0028	1937 (수)	경남 양산 46302
		(송은당공)	010-4130-0028		
	오춘근 吳春根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5, B동 1502호(호계동, 아크로리버)	070-4086-0150	1930 (근)	고창 대산 14121
		명성양행 사장 (참의공)	010-4758-0050		
	오효근 吳馨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43-1(도덕동)	062-943-7300	1938 (근)	광산 도림 62406
		전 공무원 (석문공)	010-2684-7303		
	오윤근 吳潤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13-75(송산동)	062-943-7405	1938 (근)	광산 내동 62406
		(금양군)	010-5643-7405		
	오광섭 吳光燮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112(명도동)	062-943-7507	1930 (열)	광산 가마 62404
		(장탄)			
	오헌열 吳憲烈	인천시 동구 송현로 50, 113동 405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A)	070-4114-3109	1935 (열)	광산 본량 22547
		전 우체국장 (장탄)	010-9668-3108		
	오수열 吳守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양림길 4(도덕동)	062-943-7562	1935 (열)	광산 양림 62406
		(석문공)			
	오형희 吳煥熙	경기 의왕시 오전로 63, 104동 104호(오전동, 무궁화아파트)	031-457-0279	1937 (열)	광산 양촌 16057
		전 대중회 종무원장 (석문공)	010-5349-0279		
	오관열 吳寬烈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7번길 14-5(철산동)	02-2684-8201	1937 (열)	광산 본량 14250
		(참판공)	010-9123-8201		

직책	성명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생년 (한월)	출생지 우편번호
		직장 (파명)	직장 전화		
고문	오중섭 吳重燮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17번길 94(두암동) 전 중등학교 교장 (장탄)	062-224-7879 010-6721-2875	1937 (월)	광산 예림 61199
	오희열 吳熙烈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40, 101동 106호(문흥동, 모아아파트) 전 중등학교 교장 (장탄)	062-267-7255 010-8709-7255	1938 (월)	광산 명도 61128
	오계열 吳桂烈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86, 207동 1102호(봉천동, 두산아파트) 대명회 회장 (장탄)	02-3285-6622 010-6257-2354	1940 (월)	광산 명곡 08751
	오재남 吳在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66, 105동 2502호(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A) (장탄)	02-833-9738 010-5291-4144	1935 (균, 교)	광산 본량 07364
	오영교 吳榮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속길 40(남산동) 전 나성군 증중 회장 (참판공)	062-943-9701 010-9887-9701	1936 (균, 교)	광산 풍속 62404
	오세교 吳世敎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123동 1703호(석관동, 두산A) 전 동호프라자 사장 (장탄)	02-960-1532 010-7150-1532	1939 (교, 균)	광산 도림 02780
	오교한 吳敎漢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31-1, 303호(서현동) 전 단국대 대학원장 (칠송공)	031-726-3377 011-9749-1123	1940 (균, 교)	무안 윤남 13578

□ 집행부 임원

회장	오근성 吳根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8, 256동 1001호(금호베스트빌) 합동철재산업(주) 대표이사 (석문공)	031-302-9086 010-5394-7071	1939 (근)	광산 도림 16939
증무원장	오정균 吳丁均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 78(송정동) 전 광산구청 총무국장 (장탄)	062-944-0551 010-8621-0551	1945 (균, 교)	광산 죽산 62437
서울경기 본부장	오양근 吳梁根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65-24, 205동 1102호(현대모닝사이드1차) 전 중앙고속신탁 전무 (장탄)	031-726-2366 010-7554-9940	1939 (근)	광산 봉정 12771
호남 본부장	오무송 吳茂松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길23, 101동 1002호(윤림동, 무등파크맨션) 전 조선대학교 교수 (금양군)	062-671-2526 010-9474-2527	1940 (수)	광산 내동 61491
영남 본부장	오익곤 吳義坤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90, 102동 2405호(삼성아파트) 연합검정(주) 전무 (송은당공)	051-622-5575 010-8338-1415	1941 (수)	경남 양산 48519
종사연구 위원장	오종만 吳鍾滿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2, 103동 1802호(씨니벨리)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 (금양군)	031-308-2265 010-6359-5469	1940 (수)	광산 내동 17088
부회장	오기선 吳起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6-16, 501호(신사동, 다스케어빌) 전 무안중학교 행정실장 (금양군)	02-376-3689 010-8749-2501	1937 (선)	광산 세동 03450
	오인선 吳仁善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09번길 11-2(주월동) 전 나주공산농협 조합장 (송은당공)	010-2625-3006	1944 (선)	나주 동강 61720
	오삼선 吳奇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1 정성빌딩 4층 (주)정성기계 회장 (금양군)	02-953-1244 010-5381-4604	1948 (선)	전북 진안 04954
	오공수 吳貢洙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4, 110동 1402호(하우스토리) (송은당공)	031-528-9635 010-8397-3463	1936 (수)	장성 진원 12010
	오판수 吳判洙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94번길10, 107동 604호(용봉동, 쌍룡예가) 전 초등학교 교감 (송은당공)	062-261-2378 010-7266-2378	1938 (수)	나주 동강 61064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한 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부회장	오관수 吳官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110동 801호(한진타운) 대한상사 대표 (송은당공)	02-2298-9768 010-6274-9723	1942 (수)	나주 동강 04717
	오길빈 吳吉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7-2(도덕동) (석문공)	062-943-7334 010-8849-7334	1943 (수)	광산 도림 62406
	오학수 吳鶴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58, 101동 1205호(정자동 동남타운 아파트) (송은당공)	031-256-8479 010-8848-6123	1946 (수)	나주 동강 16340
	오성수 吳聖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9-14(송산동)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금양군)	062-943-7305 010-5544-7036	1947 (수)	광산 세동 62406
	오곤수 吳坤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안길 27(도덕동) 석문공 중증 총무 (석문공)	062-943-1684 010-2608-1025	1948 (수)	광산 도림 62406
	오병엽 吳炳葉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길 7-30 사정공 중증 회장 (사정공)	061-335-7206 010-3297-7206	1952 (수)	나주 공산 58300
	오행근 吳幸根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23, 103동 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1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오근신 吳根伸	서울시 관악구 창림2길 30, 2층(봉천동) 동부화재 대리점 대표 (송은당공)	032-677-1127 010-7384-1094	1940 (근)	나주 동강 08733
	오맹근 吳萌根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20, 111동 701호(청솔우성A) 전 공무원 (내금위공)	02-2248-6311 010-2820-6311	1944 (근)	광산 임곡 02536
	오헌상 吳憲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10-8 전 공무원 (송은당공)	061-335-2142 010-3649-2144	1944 (근)	나주 동강 58292
	오인국 吳仁局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5번길 17(금호동) 송계공파종회 회장 (송계공)	062-369-0411 010-4185-0411	1945 (근)	광산 내동 62011
	오오근 吳五根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20, 107동 603호(문흥동, 상록A) 전 담양군 금성면장 (내금위공)	062-263-0702 010-4620-0702	1947 (근)	담양 61134
총무 부회장	오기주 吳基柱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 4, 1동 701호(봉선동, 금호타운)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서기관) (송계공)	062-675-3355 010-3642-3355	1947 (근)	광산 내동 61684
부회장	오두성 吳斗星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307동 1203호(대림동, 현대3차A) 전 구례경찰서장 (송은당공)		1947 (근)	나주 동강 07376
	오근태 吳根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59(목동) 건축업 (내금위공)	02-756-8128 010-9010-8128	1948 (근)	장성 남면 02046
	오근국 吳根國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22길 44-9, 101호(서초동) 요식업(의왕) (송계공)	02-521-1358 010-2360-7112	1949 (근)	광산 내동 06668
	오안모 吳安模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80번길 6, 302동 702호(화정동, 금호타운) 전 경찰공무원 (금양군)	062-373-2549 010-4606-2549	1950 (근)	광산 내동 62037
	오경근 吳京根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2-31, 4층(성수동1가) (장탄)	02-462-2780 010-5275-4531	1950 (근)	광산 풍속 04768
	오도근 吳道根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69번길 43, 102동 1803호(용봉동, 금호아파트) 전 초등학교 교장/나성군중회 총무 (석문공)	062-515-4236 010-3613-4236	1950 (근)	광산오운동 61109
	오동석 吳東浙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28(명도동) 전 본량농협 전무/나성군중회 재무 (장탄)	062-943-7427 010-6640-7427	1951 (근)	광산 가마 62404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한 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감사	오동근 吳東根	광주시 서구 치평로 77, 106동 1401호(치평동, 중흥아파트) 우림교통 대표 (금양군)	062-374-2320 010-3605-5330	1952 (근)	광산 세동 61952
총무 부회장	오형근 吳榮根	서울특별시 중로구 지봉로13가길 38(창신동) 전 국제자산신탁(주) 경영지원본부장 (내금위공)	02-765-5250 010-7759-5250	1954 (근)	광산 임곡 03095
부회장	오채근 吳蔡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112동 603호(한신A) (주)부성전공 대표이사 (내금위공)	031-702-3352 010-5247-3352	1955 (근)	장성 남면 13588
부회장	오청근 吳靑根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490번길 22, 101동 505호(당동, 동아A) 금봉렌트카 대표 (내금위공)	031-397-4593 010-8811-8100	1955 (근)	장성 남면 15856
	오희성 吳熙星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23 주원건설 조정이사 (석문공)	063-563-8686 010-8642-8686	1955 (근)	고창 신림 56430
	오안근 吳安根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201동 1504호(상왕십리동, 텐즈힐) 전 고등학교 교사 (송은당공)	010-8896-2257	1956 (근)	나주 동강 04700
	오희석 吳熙石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13-86(송산동) 전 송계공문중회장 (송계공)	062-943-7457 010-3896-7457	1935 (열)	광산 내동 62406
	오 열 吳 烈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29길 21-7, 102동 604호(한강로3가, 한강로 우림필유A) 서울사 대표 (장탄)	02-793-9285 010-7193-9285	1937 (열)	광산 예림 04380
	오진열 吳震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1-4, 401호(역삼동) (명곡공)	02-552-9166 010-8621-9166	1940 (열)	담양 연천 06123
	오영근 吳永根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16, 101동 903호(신용동, 제일풍경채) 전 삼거리주유소 대표 (장탄)	010-3606-7321	1940 (열)	광산 삼도 61084
	오강렬 吳康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111동 604호(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난봉공)	031-408-7020 010-2647-7020	1940 (열)	고창 공음 15541
	오은열 吳殷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3(도덕동) 전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석문공)	062-943-7332 010-5031-7054	1941 (열)	광산 도림 62406
	오창희 吳昌熙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76번길 14, 102동 1503호(모아미래도) 전 초등학교 교장 (석문공)	062-222-8450 010-8615-8450	1941 (열)	광산 양촌 61501
	오동렬 吳東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5가길 38(등촌동) 대왕산업 대표 (장탄)	02-2644-4845 011-349-3430	1945 (열)	광주동명동 07733
	오필열 吳苾烈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77번길 11, 우미빌라 202호 양조장 경영 (칠송공)	061-336-5016 010-3621-5016	1944 (열)	광산 삼도 61940
	오정열 吳正烈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4, 371동 603호(금정동 삼익소월아파트)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연구원장 (장탄)	031-493-2087 010-7313-2789	1948 (열)	함평 월야 15863
	오남열 吳南烈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3, 401동 402호(포일동, 포일숲속마을) 태흥전자 대표 (장탄)	031-465-5185 010-5381-8334	1948 (열)	광산 예림 16003
	오수열 吳洙烈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86번길 3-23(소태동)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사공)	062-223-2562 010-2695-6734	1950 (열)	장성 61496
	오상기 吳相基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10동 2102호(삼성래미안) 해리화학 대표 (참의공)	02-2677-6644 010-4394-3344	1951 (열)	고창 해리 07214
	오중순 吳鍾淳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2동 1801호(한국아델리움) 가야종합건설 대표 (사정공)	062-651-9006 010-3602-9026	1952 (열)	광주 61737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부회장	오전열 吳典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7, 403동 406호(하늘마을4단지)		031-977-2111	1952	광산 도림
		오주통상 대표	(석문공)	010-5223-4550	(열)	10311
	오재열 吳在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70, 703동 1201호(대화마을)		031-816-6269	1953	광산 지평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과장	(부사공)	010-3775-6269	(열)	10218
	오경남 吳京南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11, 4205동 902호(중동, 어는목마을벽산블루밍)		031-309-5511	1954	나주 다시
		(사) 한국전기안전동우회 부회장	(부사공)	010-6209-2244	(열)	17010
	오운열 吳雲烈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3, 201동 604호(잠원동, 롯데캐슬)		02-6247-7076	1962	광산 도림
		해양수산부 국장	(석문공)	010-9287-7076	(열)	06515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3-5(임동)		062-522-0114	1938	광산 죽산
		전 삼도면장	(장탄)	010-4784-3883	(교, 군)	61253
오 동 吳 東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45, 404동 702호(오산동, 운암4단지주공A)		031-378-6760	1939	광산 예림
		전 S-OIL 과장	(장탄)	010-5638-6760	(교, 군)	18133
오성교 吳成敎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65번길 7-1, 301호(농성동, 제일파크)		062-369-3337	1939	광산 평촌
		전 우체국장	(장탄)	010-2595-4132	(교, 군)	61930
오교철 吳敎哲		경기 과천시 별양로 180, 809동 802호(부림동, 주공A)		02-503-5055	1939	무안 몽탄
		전 종무원장(7, 8대), 전 소방서장	(칠송공)	010-8853-2899	(교, 군)	13831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곡길 170-46(명도동)		062-943-9897	1941	광산 본량
		장탄 문중 도유사, 광주 향교 재단이사	(장탄)	010-9013-9897	(교, 군)	62404
오양균 吳陽均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9길 40(용두동)		02-967-7916	1943	담양 후산
		전 미장식품 대표	(명곡공)	010-8773-7916	(교, 군)	02564
오대균 吳大均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50, 103동 402호(명일동 래미안 솔베뉴)		02-3246-3753	1944	담양 남면
		전 서울지방철도청	(명곡공)	010-5383-9845	(교, 군)	05266
오백교 吳白敎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19, 109동 1003호(흑석동, 명수대 현대)		02-2217-7948	1944	광산 죽산
		전 한국산업은행 부장	(장탄)	010-3285-7948	(교, 군)	06904
오병균 吳炳均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7 푸르지오아파트 101동 403호		061-287-3111	1945	목포
		목포대학교 교수	(칠송공)	010-4322-8181	(교, 군)	58580
오찬균 吳燦均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65-6			1945	무안 몽탄
		금초가문 대표	(칠송공)	010-3614-8142	(교, 군)	58109
재무 부회장	오현교 吳玆敎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57번길 4, 102동 1307호(화정동, 모아타워)		062-373-0005	1946	광산 평동
		전 중등학교 교사	(칠송공)	010-5197-0888	(교, 군)	62028
부회장	오홍구 吳洪鉅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6(종암동)		02-911-0255	1946	고창 마명
		(주)시원양행	(도암공)	010-4338-1344	(교, 군)	02800
	오낙균 吳洛均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10-2호		061-392-1546	1946	담양 수북
		전 공무원	(명곡공)	010-3634-1546	(교, 군)	57220
	오순교 吳純敎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31번길 17, 301동 1201호(진월3차 삼익세라믹)		062-673-8740	1950	광산오운동
		전 초등학교 교감	(장탄)	010-2602-8740	(교, 군)	61715
	오창교 吳滙敎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113동 1104호(신천동, 파크리오)		02-2671-5133	1955	광산 도림
		다집건설(주) 회장	(장탄)	010-7387-2332	(교, 군)	05507
감사	오승기 吳承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07, 104동 1006호 (상도동, 삼호A)		02-586-7068	1956	담양 고서
		(사)글로벌녹색환경지도자연합 중앙회장	(명곡공)	010-3641-7021	(영)	07026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한 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조직부장	오건열 吳建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 102동 704호(삼암월드컵A) 자영업(전기) (석문공)	02-6351-1443 010-3784-6173	1957 (열)	광산 평림 03913
여성부장	오영란 吳英蘭	광주광역시 서구 경일로 18 (농성동) 오영란 법무사 사무소 (석문공)	062-527-3160 010-3610-3160	1957 (열)	광산 도림 61927
	오정숙 吳敎淑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70, 5층(사당동) Kyani (장탄)	010-3388-5382	1953 (교, 균)	나주 공산 07025
홍보부장	오중문 吳鍾文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2가길 6, 202호(길동) 도서출판 이미지북 대표 (참판공)	070-8817-7068 010-3214-7068	1960 (중)	광산 풍속 05303
재무부장	오중선 吳鍾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2동 802호(성산동, 시영아파트)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중)	광산 본량 03936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병한 吳柄漢	울산광역시 중구 초은길 39(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은당공)	052-246-2241 010-2864-2241	1946 (선)	울산 44468
	오일태 吳一太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35, 4층(신정동) (송은당공)	052-273-0570 010-3841-0570	1947 (선)	울산 44679
	오민선 吳眠善	경기 부천시 경인로575번가길 11, A동 B02호(괴안동, 역곡빌라3차) (송은당공)	032-347-7230 010-9916-4849	1947 (선)	나주 동강 14677
	오태룡 吳泰龍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1길 12-3(복산동) (송은당공)	052-297-6432 010-4190-1254	1948 (선)	울산 44517
	오영택 吳英澤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7번길 58, 101동 402호(신용주공) 정언공 회장 (정언공)	010-7653-0278	1936 (수)	곡성 삼지 61705
	오연수 吳蓮洙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63, 2동 201호(방림동, 송림연립) 선일건설 기술이사 (송은당공)	062-675-4188 010-3603-1831	1938 (수)	함평 월야 61668
	오형수 吳亨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70-4(덕산리) 송계공파 이암문중 총무이사 (송계공)	010-7742-4479	1942 (수)	장성 이암 57233
	오몽수 吳夢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50-25(덕산리) (송계공)	010-8666-1207	1951 (수)	장성 이암 57233
	오흥수 吳興洙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1동 804호(금호동, 신도브래뉴업) (금양군)	010-6363-1531	1951 (수)	광산 세동 11750
	오권수 吳權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50-29(덕산리) 송계공파 이암문중 회장 (송계공)	010-2028-9772	1952 (수)	장성 이암 57233
	오창수 吳昌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426 (송은당공)	061-335-2163 011-606-9543	1952 (수)	나주 동강 58292
	오금수 吳錦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568 (송은당공)	061-335-2163 010-3606-9543	1952 (수)	나주 동강 58292
	오정숙 吳正淑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83번길 19, 104동 1805호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 (사정공)	010-3777-5566	1954 (수)	나주 공산 16831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경수 吳景洙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65번길 7-1, 1011호(농성동, 제일파크) 전 광산구청 복지문화국장 (석문공)	062-365-5263 010-3624-6686	1955 (수)	광산 도림 61930
	오연수 吳蓮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105 (송은당공)	061-335-2151 010-8708-9333	1955 (수)	나주 동강 58292
	오민근 吳敏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30 (주)호성 (송은당공)	055-374-8361 010-2585-5263	1961 (수)	경남 양산 50582
	오동건 吳東建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261번길 32, 106동 805호(삼산동, 우성A) (송은당공)	052-269-6470 010-2555-8118	1966 (수)	울산 44699
	오대규 吳垚奎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116, B동 502호(신림동, 우송아르떼빌) 신웅건설(주) 이사 (금양군)	02-386-1614 010-8864-9966	1970 (수)	광산 송산 08853
	오근학 吳根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20, 102동 806호(하남제일파크맨션) (부사공)	010-3184-4742 010-6419-4742	1934 (근)	광산 지평 62357
	오홍교 吳洪敎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14 (사정공)	061-335-3374 010-5335-3042	1939 (근)	나주 공산 58300
	오병근 吳炳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24-3 (송은당공)	061-335-0018 010-6470-4980	1946 (근)	나주 동강 58292
	오남근 吳南根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37, 102동 802호(쌍촌동, 일신A) 전 교육공무원 (장탄)	062-372-6227 010-3682-6227	1946 (근)	광산 봉정 61996
	오기영 吳機瑩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0 (사정공)	061-335-3251 010-8600-3251	1947 (근)	나주 공산 58300
	오신근 吳信根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43번길 14-47(도화동) 자영업 (내금위공)	032-883-5619 010-4246-9085	1948 (근)	장성 남면 22102
	오현근 吳玹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월로 167-29 백년골농장 (송은당공)	061-336-3421 010-6620-6382	1948 (근)	나주 동강 58288
	오기근 吳基根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98 자영업 (송계공)	031-763-9991 010-2230-2859	1950 (근)	광산 송산 17303
	오동우 吳東宇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22-15 오명농장 (송은당공)	055-374-0160 010-3801-9230	1952 (근)	경남 양산 50582
	오몽근 吳夢根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2길 90(쌍문동) 삼도식품 대표 (송계공)	02-903-1587 010-4004-1587	1952 (근)	광산 죽산 01379
	오성근 吳成根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6길 17, 301(풍광빌라 301호) 투투플라워 대표 (석문공)	02-2265-2020 010-7927-0711	1953 (근)	고창 신림 04558
	오근용 吳根龍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85, 105동 1806호(신대방동, 경남A) 건우메디칼 대표 (송계공)	010-8791-1967	1956 (근)	광산 내동 07069
	오현근 吳賢根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23, 103동 301호(운암동, 현대A) (주)장성철강 대표이사 (송계공)	062-512-6620 010-8500-4618	1956 (근)	광산 내동 61256
	오성환 吳成煥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5-4 전 나주시의회 의원 (송은당공)	061-335-2692 010-3603-2693	1956 (근)	나주 동강 58292
	오영선 吳英銑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3 (사정공)	061-335-3227 010-4611-3227	1958 (근)	나주 공산 58300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말근 吳末根	전남 목포시 양율로 42, 111동 1803호(대성동, 천연나무아파트) (장탄)	061-462-1280 010-3093-1280	1960 (근)	목포 58711
	오형근 吳炯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53(도덕동) 삼도부동산 (상호군공)	062-943-8920 010-7605-8910	1963 (근)	광산 삼도 62406
	오중경 吳鍾鏡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지정길 108-16(지평동) (지봉공)	062-943-0962 010-6612-0962	1964 (근)	광산 삼도 62406
	오창근 吳昌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B동 501호(삼평동 삼환하이팩스) (주)윈드시너지 대표이사 (석문공)	031-602-5600 010-3002-3989	1965 (근)	광산 도림 13493
	오동하 吳東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310동 801호(대우마리나 3차) (송은당공)	051-515-8461 010-2486-4626	1965 (근)	경남 양산 48091
	오을근 吳慄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2길 3(이동) 라이프종합건설관리 대표 (상호군공)		1967 (근)	광산 삼도 15487
	오선교 吳善敎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4, 8동1204호 (봉선동, 금호타운) 더메이 대표 (사정공)		1980 (근)	나주상병리 61684
	오기섭 吳寄燮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35번길 10-17 농업 (부사공)	062-376-2344 010-2676-2344	1938 (열)	광산 지평 61936
	오기섭 吳基燮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삼안길 49(지평동) 농업 (부사공)	062-943-6151 010-9133-6151	1939 (열)	광산 지평 62406
	오관섭 吳官燮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86-16(용봉동) (부사공)		1939 (열)	광산 가삼 61185
	오금열 吳錦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삼안길 24-7 (부사공)	062-943-7394 010-2537-7394	1940 (열)	광산 지평 62406
	오영현 吳榮炫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34번길 16(광천동) 전 한전 과장 (석문공)	062-366-9966 010-9474-9968	1941 (열)	광산 봉정 61913
	오기섭 吳基燮	전남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1길 37-35 동인한의원 사무장 (정언공)	062-972-3809 010-4907-2666	1944 (열)	나주 57316
	오순열 吳順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414동 702호(정자동, 느티마을) 전 서울시 공무원 (장탄)	031-711-3291 010-6394-3291	1948 (열)	광산 본량 13611
	오병렬 吳炳烈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길 5, 3층(신사동) (주) 매일관광 (내금위공)	02-356-1926 010-7165-1926	1948 (열)	장성 남면 03437
	오송열 吳松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74, 110동 2403호(중흥에스) 송계공파총회 총무 (송계공)	062-526-7229 010-9623-7229	1950 (열)	광산 내동 62322
	오민열 吳民烈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35, 103동 2003호(장기동, 청송마을 현대) (장탄)		1950 (열)	나주 왕곡 10082
	오기호 吳奇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145, 113동 3503호(더샵센텀파크1차) (송은당공)	051-743-2528 010-7118-1670	1951 (열)	부산 48050
	오권열 吳權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5동 704호(월곡동, 하남금호타운) (명곡공)		1951 (열)	담양 수북 62356
	오명렬 吳明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예림길 29-2(명도동) (명곡공)	062-943-7501 010-6744-7501	1952 (열)	광산 본량 62404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한 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진호 吳鎭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0동 2401호(더샵센텀파크) (송은당공)	051-808-2488 010-3867-5545	1953 (열)	부산 48050
	오금열 吳錦烈	전남 나주시 그린로 63, 110동 1501호(빛가람동, LH1단지)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개발과장 (송계공)	062-941-1178 010-3648-2484	1954 (열)	나주 다시 58326
	오경렬 吳京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38번길 5(산정동) (지봉공)	062-952-0336 010-6660-6543	1954 (열)	광산 삼도 62343
	오점석 吳点錫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07, 103동 406호(상도동, 삼호아파트) (명곡공)	010-7343-1510	1954 (열)	담양 남면 07026
	오홍렬 吳弘烈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2길 5, 502호(우면동, 영동아트빌라) 전 한국보그워너보스텍 이사 (내금위공)	02-576-6981 010-3765-9162	1956 (열)	경남 마산 06763
	오한열 吳漢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46, 102동 604호(응암동, 응암푸르지오) (내금위)	010-5442-2305	1956 (열)	장성 남면 03475
	오규열 吳圭烈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길27길 56, 301호(화곡동) (장탄)	010-3307-2617	1956 (열)	광산 명도 07754
	오초섭 吳草燮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109동 1204호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금화PSC 소장 (장탄)	010-8771-5703	1956 (열)	광산 삼도 04720
	오맹렬 吳孟烈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9, 1층(서초동, 양지원빌딩) 보이스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장탄)	02-592-5922 010-5229-9319	1958 (열)	광산 명도 06595
	오택렬 吳澤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21번길 10-1(도산동) (장탄)	010-3620-4940	1958 (열)	나주 왕곡 62442
	오채열 吳采烈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4동 1403호(신대방동, 현대A) 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장탄)	02-844-9330 010-5341-9830	1959 (열)	광산 명곡 07064
	오재열 吳在烈	충남 당진시 면천면 대치로 370-4 (주)원폴 (칠송공)	041-356-4021 010-5772-8553	1961 (열)	광주 덕산 31807
	오왕렬 吳旺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43 (명도동) (장탄)	062-943-2813 010-8867-8006	1962 (열)	광산 명곡 62404
	오승훈 吳承勳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1, 102동 102호(금호동, 시영1차아파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 팀장(사무관) (석문공)	062-456-9768 010-5620-9768	1963 (열)	광산 도덕 62005
	오재열 吳在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27, 101동 1606호(대망드림힐) 국민연금매장 대표 (석문공)	010-9175-0220	1966 (열)	고창 신림 01626
	오청열 吳淸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대주아파트 202동 408호 (주)공간인테리어 대표 (석문공)	010-3607-0570	1966 (열)	광산 봉정 62445
	오기봉 吳基奉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중방길 76-12(지평동 24-1) (부사공)	062-943-7447 010-2062-9557	1938 (교, 군)	광산 지평 62409
	오기봉 吳基奉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산서길 24(요기동) (지봉공)	062-944-6498 010-5115-6498	1939 (교, 군)	광산 삼도 62461
	오천년 吳千年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17번길 33-1(주월동) 나성군 봉사손/운수업 (칠송공)	062-651-0568 010-3638-0568	1940 (교, 군)	광산 양촌 61608
	오경교 吳敬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89번길 9-7(송정동) (참판공)	062-944-0026 010-9669-0026	1943 (교, 군)	광산 풍속 62422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종무위원	오형교	경기 남양주시 불암산로39번길 43-40(별내동)	031-527-4784	1944	광산 본랑
	吳敬敎	오성가구 대표 (장탄)	010-5253-4784	(교, 군)	12100
	오건교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30번길 11, 5동 1501호(지산동, 삼성A)	062-233-9311	1947	광주 덕산
	吳健敎	칠송공 영호공문중(덕흥문중) 회장 (칠송공)	010-2615-3900	(교, 군)	61442
	오송균	서울시 서초구 바우외로39길 20, 가동 101호(양재동, 장미타운)	02-576-8305	1948	무안
	吳松均	국가유공자회 (칠송공)	010-8637-5454	(교, 군)	06745
	오양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11, 301호(미래빌리지)		1948	
	吳良敎	(명곡공)	010-6613-2682	(교, 군)	57220
	오봉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115동 1103호(래미안 노블클래스)	031-217-7412	1951	광산 삼도
	吳鳳均	전 수원 대선초등학교 교장 (송계공)	010-7319-7432	(교, 군)	16534
	오찬교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48-15(양산동)		1952	
	吳贊敎	중앙강철 대표 (송계공)	010-3605-1985	(교, 군)	61056
	오상균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천로2길 39-14, 이고집꾸구미(방배동)	02-585-5879	1952	광산 명곡
	吳相均	(장탄)	010-2915-9585	(교, 군)	06693
	오찬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505-8(지산동 89-2)	062-959-1014	1956	광산 본랑
	吳燦敎	임해관광 사장 (장탄)	010-3611-1014	(교, 군)	62204
	오재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길 45, 101동 1203호 (구로동, 신도림현대)		1956	광산 삼도
	吳在敎	(송계공)	010-5272-0628	(교, 군)	08291
	오만균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22번나길 13 (주월동)	062-653-7112	1957	광주용강동
	吳晩均	광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명곡공)	010-4129-7008	(교, 군)	61730
	오교웅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3-2(도덕동)	062-446-7900	1959	광산 도림
	吳敎雄	도덕동 우체국장 (장탄)	010-4623-0900	(교, 군)	62406
	오순교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16번길 14, 102호(광명동, 삼미빌라)	02-2060-1759	1960	
	吳順敎	(정언공)	010-2521-1759	(교, 군)	14290
	오진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14번길 6-5(쌍촌동)		1961	광산 내동
	吳眞敎	제중약국, 오씨광주전남대동종친회 수석부회장 (송계공)	010-3993-8957	(교, 군)	61966
	오영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상로 24, 108동 1803호(성원상떼빌)		1964	광산 명도
	吳英杓	NH공사 부장 (장탄)	010-9538-0505	(교, 군)	16927
	오정균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86번길 59, 1123동 503호(산본동 럭키백합아파트)	031-347-9701	1968	함평 월야
	吳定均	(주)나래바이오테크 대표이사 (장탄)	010-4344-1094	(교, 군)	15814
	오종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9-4(송산동)		1955	광산 내동
	吳鍾璿	삼도농협 조합장 (부사공)	010-4601-3532	(종)	62406
	오승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속길 30-8(남산동)	062-943-6660	1959	광산 풍속
	吳承鍾	전 본랑농협 조합장 (참판공)	010-4228-6660	(종)	62404
	오종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65, 102동 601호(도림동, 동아에코빌)		1960	광산 본랑
	吳宗錫	광진구청 (장탄)	010-5207-8358	(종)	07374
	오상운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가룡길 83-8		1970	신안 압해
	吳相雲	(유)늘샘건설 대표 (칠송공)	010-5540-4886	(종)	58819
	오영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광립길 6		1977	신안 압해
	吳永一	선우렌터카 대표 (칠송공)	010-4606-9480	(종)	58823

직책	성명	자택주소	자택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장 (파명)	직장전화		
종무위원	오대수 吳大樹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99, 103동1602호(한신희플러스) 자영업 (칠송공)	02-845-5749 010-4261-6532	1965 (영)	무안 몽탄 06916

□ 오수산악회 임원 명단

회장	오채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2동 603호(한신A) (주)부성전공 대표 (내금위공)	031-702-3352 010-5247-3352	1955 (근)	장성 남면 13588
부회장	오근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59(묵동) 건축업 (내금위공)	02-756-8128 010-9010-8128	1948 (근)	장성 남면 02046
부회장	오맹렬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역3길 5, 4층(봉천동) 법무사 (장탄)	02-535-8707 010-5229-9319	1958 (열)	광산 명도 08793
감사	오형근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3가길 38(창신동) 전 국제자산신탁(주) 경영지원본부장 (내금위공)	02-765-5250 010-7759-5250	1954 (근)	광산 임곡 03095
총무	오종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16(효자동)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종)	광산 본량 03042

□ 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회장	오성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9-14(송산동)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금양군)	062-943-7305 010-5544-7036	1947 (수)	광산 세동 62406
산행이사	오행근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길 23, 103동 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7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총무	오영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34번길 16(광천동) 전 한전 과장 (석문공)	062-366-9966 010-9474-9968	1941 (열)	광산 봉정 61913

□ 나주오씨대종회 역대 회장단 명단

대수	임기	회장	종무원장	감사	지역본부장
초대	1999. 12. 05~ 2002. 03. 23	오근택 (석문공) (※ 오사진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2000. 9. ~2002. 3)	오근창 (석문공)	오억근(부사공) 오근문(송은당공)	
2대	2002. 03. 24.~ 2004. 03. 27	오춘수 (금양군)	오형희 (석문공)	오무송(금양군) 오토근(장탄)	서울경기 오세교(장탄)-1년 호 오종만(금양군)-1년 영 남 오광교(장탄)-1년 영 오병휘(송계공)-1년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3대	2004. 03. 28~ 2006. 03. 25	오근동 (석문공)	오종만 (금양군)	오무송(남평공) 오토근 (장탄)	서울경기 오공수(송은당공)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4대	2006. 03. 26~ 2008. 03. 22	오근동 (석문공)	오종만 (금양군)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 (금양군)	서울경기 오토근(장탄)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5대	2008. 03. 23~ 2010. 03. 27	오완교 (칠송공)	오토근 (장탄)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6대	2010. 03. 28~ 2012. 03. 25	오완교 (칠송공)	오토근 (장탄)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7대	2012. 03. 26~ 2014. 03. 25	오인수 (송은당공)	오교철 (칠송공) (2013. 3~)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8대	2014. 03. 26~ 2016. 03. 27	오인수 (송은당공)	오교철 (칠송공)	오동근(금양군) 오근신(~2015.3) 오승기(명곡공) (2015.3~)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9대	2016. 03. 28~ 2018. 03. 25	오근성 (석문공)	오정균 (장탄)	오동근(금양군)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무송(금양군)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10대	2018. 03. 26~ 2021. 03. 28	오근성 (석문공)	오정균 (장탄)	오동근(금양군)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무송(금양군) 영 남 오의곤(송은당공)

대중회 공지사항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주오씨대중회〉는 대중회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매년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회는 정기총회 연 1회(3월중) 개최, 종무회의 연 1회(2월중) 개최,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수시) 개최, 종사연구위원회 활동, 대중보 연 1회(3월) 발간, 선행자 표창, 뿌리찾기 사업, 대중회 홈페이지 운영, 전자족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대중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회비와 협찬금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중회가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후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장학사업, ‘나주오씨의 뿌리 바로알기’ 책자 발간, 선조 사적 탐방 및 성묘행사 체험, 뿌리고실 운영, 지역별 화수회 개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대중회에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이러한 숭조애족(崇祖愛族)의 뜻있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납부하여 주신 금액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㉞㉞㉞ 연회비·협찬금 납부 은행 예금계좌

- | | |
|---------------|---|
| ■ 서울·기타 지역 | ◆ 은행계좌 : KB국민은행 012501-04-266516
예금주 : 오근성 (대중회 회장) |
| ■ 광주, 전남·북 지역 | ◆ 은행계좌 : NH농협 356-1123-7033-33
예금주 : 오현교 (대중회 재무부회장) |

❖ 연회비 : 집행부 임원 20만 원 이상, 고문·종무위원 10만 원 이상

산행의 이모저모



□ 오수산악회(서울·경기지역)

◆ 산행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 시산제 : 매년 3월 첫째 주 일요일

2019년 오수산악회 산행일지

산행일	산행지	모임 장소	2차 모임 장소	참석인원	기 타
1. 6	관악산	2,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소풍가는날 식당	17명	오청근 전임 회장 식대 찬조
2. 3	분당 영장산	분당선 이매역	율동공원 이원희쌈밥집	12명	
3. 3	관악산 시산제	2,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시산제 장소	24명	시산제(12:00 정각)
4. 7	청계산 옥녀봉	신분당선 청계산역	청계산 장수촌	12명	오교환 님 점심 찬조 (따님 미국 교장 취임)
5. 5	오성 합동산행	용산역(07:30, 양재역(08:00)	순창 강천사 일송정 식당	22명	
6. 2	봉화산 장미축제	7호선 중화역	먹골역 해물명가	20명	
7. 7	불암산	6, 7호선 태능역입구역	불암숯불갈비	22명	
9. 1	청계산	신분당선 청계산역	청계산 장수촌	12명	
10. 6	하늘공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농수산물센터	20명	
11. 3	북악산 팔각정	4호선 혜화역	혜화동 잣골식당	19명	
12. 2	우이동 우이령길	우이경전철 우이역	우이동 광주식당	11명	오근성 대중회 회장님 식대 찬조
	총 인원			191명	

□ 오성산악회(호남지역)

◆ 산행 :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2019년 오성산악회 산행일지

산행일	산행지	참석 인원	비 고	산행일	산행지	참석 인원	비 고
1/8, 1/22	무등산	12/10명		7/9, 7/23	무등산	16/14명	
2/12, 2/26	무등산	28명		8/13, 8/27	무등산	10/10명	
3/12, 3/26	무등산	13/12명		추석, 9/24	무등산	10명	
4/9, 4/23	무등산	10/10명		10/8, 10/22	무등산	9/13명	
5/5	강천산	26명	오수산악회와 합동산행	11/12, 11/26	무등산	10/9명	
5/14, 5/28	무등산	9/14명		12/10, 12/24	무등산	14/9명	
6/11, 6/25	무등산	11/15명					



2019년
오수산악회 산행

하늘공원(상)
우이령길(하)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한 가장 든든한 로펌 -
SHIN&KIM | 법무법인 세종의 흔들림 없는 비전이자 의지입니다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종한 (칠송공 문중)



법무법인 德民

대표변호사 오 종 근

(송은당공 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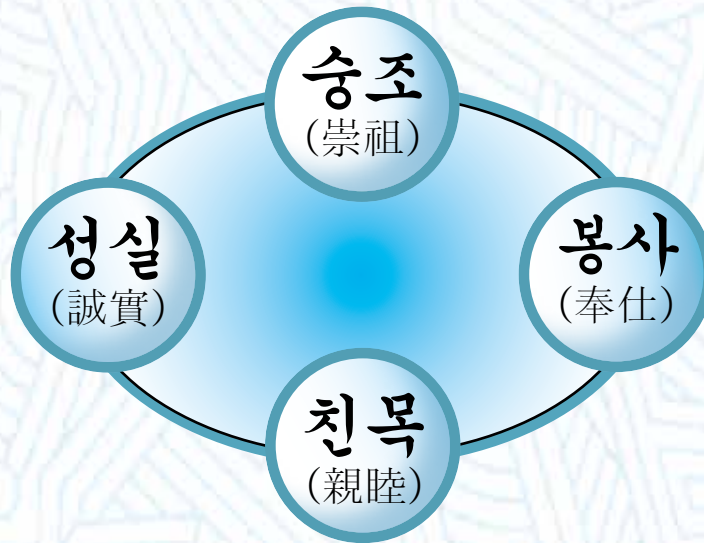


- 서울 성동고(33회), 고려대 법대(84학번) 졸업
- 인도 국립델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Visiting Scholar)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형사6부(특수·공안) 검사

법무법인 덕민

06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4층(서초동 1554-4)
TEL : 02-447-4300, FAX : 02-447-4333, H.P. : 010-7155-0544
전자우편 : ochong@hanmail.net

종훈(宗訓)



승조(崇祖) : 조상을 높여 소중히 여김
친목(親睦) : 서로 친하여 화목함
성실(誠實) : 정성스럽고 참됨
봉사(奉仕)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